

풍기단속반 빅토르

Victor, de la Brigade mondaine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33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13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Victor, de la Brigade mondaine » (1933)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Victor, de la Brigade mondaine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3

번역 정책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일요일 오후, 빅토르는 우연히 발타자르 극장에 들어섰다. 그는 그 날 오후 4시쯤, 실패한 추적을 마치고 인파가 붐비는 클리슈 대로 끝자락에 도착해 있었다.

축제 한복판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그는 카페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다 저녁 신문을 펼치다 한 구절을 읽었다.

“최근 유명 도둑 아르센 뤼팽이 잠시 침묵을 깨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난 수요일 동부 지방의 한 도시에서 목격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파리의 형사들이 급파됐지만, 그는 또다시 경찰의 엄한 포위망을 빠져나갔다.”

“개새끼야.” 빅토르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는 경직된 경찰관이었다. 범인을 개인적인 적으로 여기며, 그들에게는 단 한 번도 관대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

그때부터 기분이 영 찌든 그는 극장으로 피신했다. 오전 두 번째 상영 시간대라던가, 인기 만점의 추리 모험 영화가 상영 중이었다. 그는 발코니 쪽 좌석, 옆자리에 앉혔다. 휴식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빅토르는 이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며 불평을 터뜨리고 있었다.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그는 다시 돌아가려 했고,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참이었다. 그때 정면의 작은 방석석에 혼자 앉아 있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붉은빛의 머리띠는 사슴빛 반짝임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시선을 끌고 다니는 놀라운 존재였다. 비록 그녀는 자신의 자세나 어떤 과시적인 제스처로도 주목을 끌려하지 않았지만.

빅토르는 자리에 남았다.

갑자기 어둠이 방 안을 뒤덮기 전, 그는 밴데오의 노란빛 반사와 맑은 두 눈의 금속광 같은 빛나는 것을 기록할 시간이 있었다.

그는 영화가 기이한 전개로 지루함을 안겨준다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

그가 아직 남자를 유혹할 나이라고 생각할 나이는 아니었다. 아니, 전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거친 얼굴, 친근하지 않은 분위기, 거친 피부, 회색빛으로 변해가는 관자놀이를 잘 알고 있었다. 한마디로, 오십이 넘은 구 기병대 하사관의 그 투박한 인상이었다. 그는 너무 꼭 끼는 옷을 입어 우아함을 부리려 하지만, 오히려 기성복 냄새가 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 광경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감정들을 떠올리게 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어떤 모습들은 그에게, 그 안에 숨겨진 신비로움이나 비극, 혹은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진실을 꿰뚫어 보게 했다.

빛이 다시 밝아지고 여자가 완전히 일어서자, 그는 그녀가 키가 크고 품위가 있으며 옷차림도 매우 훌륭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점들은 그에게 오히려 흥미를 더했다. 그는 보고 싶었고,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호기심과 직업적 관심에서 그녀를 뒤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할 때, 발코미 아래로 내려가는 군중들 사이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다.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고함쳤다.

“도둑이야! 그녀를 잡아라! 그녀가 내 것을 훔쳐어!”

우아한 여인이 오케스트라 위로 몸을 내밀었다. 빅토르도 그제야 몸을 기울였다.

아래 중앙 통로에는 키가 작고 뚱뚱한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팔을 휘저었고, 자신을 에워싼 뻣뻣한 군중을 헤치고 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쫓고자 했던 사람은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빅토르도, 주변 관객들도 아무도 한 여인이 뛰어가며 도망치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청년은 숨을 헐떡이며 발끝으로 서서 팔꿈치와 어깨로 사람들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섰다.

“거기!... 저기요!... 문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검은 머리에... 검은 옷을 입었고... 모자를 쓰고...”

그는 숨이 턱 막혀 제대로 된 말도 꺼내지 못했다. 그 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 하나 제대로 건네지 못한 채였다.

결국 그는 주변 사람들을 거칠게 밀쳐냈다. 거친 힘으로 길을 뚫고, 열린 큰 문 너머 현관 홀로 뛰쳐나갔다.

그때였다. 발코니 층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내려오던 빅토르가 그를 따라잡았다. 그리고 그 남자가 여전히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다.

“도둑이야! 저 여자를 잡아라!”

야외 공원의 모든 오케스트라가 요란하게 연주했고, 막 내려앉은 저녁 그림자는 먼지 빛깔의 진동하는 빛으로 가득 찼다. 당황한 그는 아마도 도망친 여자를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보도 위에 두세 초 동안 꿈쩍도 하지 않다가, 그는 눈으로 그녀를 찾아냈다. 오른쪽을, 왼쪽을, 정면을 살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를 발견한 듯했고, 그는 클리시 광장으로 달려갔다. 자동차와 전차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이제 그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매우 빠르게 달렸고, 때로는 뛰어올랐다. 수백 명의 산책자 가운데서 자신을 속였던 여자를 다시 발견할 수 있으리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영화관 이후로 누군가 자신과 거의 나란히 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사실이 그를 용기를 주었을 터였다. 그가 속도를 더 높였기 때문이다.

한 목소리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전히 그녀를 보고 있는 거요? … 대체 어떻게 그녀를 볼 수 있다는 거지? …”

그는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다.

“아니요… 더 이상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저쪽 거리를 따라갔을 겁니다…”

그는 덜 지나는 거리로 들어섰다. 그곳에서는 다른 보행자들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걷는 여성을 놓칠 수 없는 곳이었다.

네거리에서 그는 명령했다.

“오른쪽 거리를 따라가시오. 나는 이쪽으로 갑니다. 끝에서 다시 만나죠… 작은 갈색 머리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 말이죠…”

하지만 그가 자신이 선택한 거리를 스무 걸음도 채 걷지 않았을 때, 그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렸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

다. 자신의 동료가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쓰러지는 것을 단단히 부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라고? 또 만나다니?” 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쪽에서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클리시 광장 이후로, 당신은 정말로 방향도 없이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이런 일은 제가 많이 겪어봤습니다. 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빠른 법이죠.”

젊은 남자는 그 호의적인 인물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이상하게도, 그는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달리는 동안 숨이 차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아, 그렇군요.” 젊은 남자는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 일을 많이 겪어보셨다고요?”

“네, 저는 경찰입니다. 빅토르 형사입니다.”

“경찰이라고요?” 젊은 남자는 멍하니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저는 경찰이라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그 광경을 보고 기분이 좋았던 걸까, 아니면 불쾌했던 걸까? 그는 빅토르에게 손을 내밀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안녕히 계세요.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빅토르가 그를 붙잡았다.

“그 여자 말입니다. 그 도둑 말이에요.”

“별일 아닙니다. 내가 다시 찾아내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간의 정보를 좀 주시죠.”

“정보라니? 뭘까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는 걸음을 더 빠르게 옮기기 시작했다. 가니마르 형사도 같은 빠른 걸음으로 그를 따라갔다. 대화가 끊기려 할수록 형사는 오히려 그에게 더 달라붙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도 않았다. 젊은 남자는 어딘가 급한 듯 보였지만, 그 목적지는 분명히 도둑을 잡는 곳이 아니었다. 그는 명백히 앞만 보고 무작정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들어갑시다.”

가니마르 형사가 그를 팔로 이끌며 붉은 등불이 달린 지하실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경찰서(POSTE DE POLICE)’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서? 대체 왜 그래?”

“이야기할 게 있어서 그래. 한창 한복판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거든.”

“미쳤나 보군! 그냥 놔두게!”

알 수 없는 남자가 항의했다.

“미친 게 아니야. 그리고 널 그냥 놔두지도 않을게.”

빅토르는 거칠게 대답했다. 그는 방금 예쁜 여배우 주변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온 터라, 그 일이 성사되지 못한 데다 이 남자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고 있었다.

남자는 저항했다. 주먹을 휘둘렀지만, 오히려 두 대를 얻어맞고 말았다. 결국 항복하고 굴복한 그는, 제복을 입은 형사들이 스무 명쯤 모여 있는 방으로 끌려갔다.

형사가 들어오며 말했다.

“모던 브리데 소속 빅토르입니다. 이 분과 몇 마디 나누고 싶은데, 형사님, 괜찮죠?”

‘빅토르’라는 이름이 알려지자, 경찰 관계자들 사이에서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쏠렸다.

간부가 곧장 빅토르에게로 다가갔다. 빅토르는 간략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그 젊은이는 벤치 위에 쓰러져 버렸다.

“피곤하지, 뭐?” 빅토르가 소리쳤다. “도대체 왜 쥐도새도 모르게 달아났소? 네가 노린 여자는 이미 눈앞에서 사라졌잖소. 그럼 대체 왜 도망친 거요?”

상대는 즉시 반박했다.

“도대체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요? 내가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것도 자유인데, 세상에!”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건 금지소. 철도에서 이유 없이 비상 신호를 쏘아대는 것도 금지라고.”

“나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소.”

“아니, 제게요. 아주 흥미로운 단서에 붙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발! 당신 서류가…”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다. 빅토르는 거침없이, 아니 다소 무례할 정도로 빠르게 피의자 조끼를 뒤졌다. 지갑을 꺼내 들더니, 그것을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알폰스 오디그랑이 맞소? 알폰스 오디그랑… 그러니까, 병장, 그 이름 들어봤소?”

병장은 조연하듯 말했다. “전화로 확인하는 게…”

빅토르는 수화기를 들어 경찰청을 연결했다. 기다리다 다시 입을 열었다.

“여보세요. 사법경찰국입니다. 네, 레페뷔르 씨? 여기는 모당느 단의 빅토르요. 레페뷔르 씨, 지금 내 옆에 있는 오디그랑 씨라는 분, 좀 수상하네요. 그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네? 알폰스 오디그랑 맞죠? 여

보세요… 스트라스부르에서 온 전보요?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살찐 남자요. 수염이 축 처진… 알겠군요. 지금 당직은 누가 서 있죠? 에두앵? 경사님? 그분께 말씀하시고, 우리 남자를 위르상 거리 파출소로 데리러 오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오디그랑을 돌아보며 말했다.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군! 동부 중앙은행에 근무하던 네가 지난 목요일, 즉 국방채 9종이 털린 날부터 사라졌더군. 90만 프랑이나 되는 멋진 장사였지. 그리고 지금 영화관에서 털린 돈이 바로 그 돈일 게 분명해. 자, 도둑은 누구인가? 그 여자는 대체 누구지?”

오디그랑은 울고만 있었다. 변명할 힘도 없이 그는 멍청하게 시인했다.

“그녀를 모레 전,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제 함께 점심과 저녁을 먹었죠. 두 번이나 제가 주머니에 노란 봉투를 숨긴 걸 눈치챈습니다. 오늘 영화관에서는 계속 제 곁에 몸을 기댈 뿐만 아니라, 저를 입맞추더군요.”

“봉투 안에 국방채가 들어 있었나?”

“그 여자의 이름은?”

“에르스틴.”

“에르스틴, 뭐라고?”

“모르겠습니다.”

“가족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일하나요?”

“타자기로요.”

“화학 제품 창고에서요?”

“어디에 있나요?”

“모르겠어요. 마들랭 근처에서 만났거든요.”

그는 너무 격렬하게 울어서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빅토르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서관과 상의해 모든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그에게 오디그랑 씨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신경 켜던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영화관 여성과의 연락이 끊긴 것이 아쉽기만 했다. 아름다운 존재, 그리고 그토록 신비로운 그녀! 도대체 왜 그 멍청한 오디그랑이 그녀와 빅토르 사이에 어리석게 끼어들었던 걸까. 빅토르는 아름다운 미녀들을 좋아했고,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빅토르는 테른 지구에 있는 안락한 작은 집에 살았다. 그를 모시는 노예 한 명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는 꽤나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성격은 매우 독립적이었고, 여행에 미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경찰청을 매우 자유롭게 다녔다. 경찰청은 그를 높게 평가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특이한 인물로 여겼다. 그를 규칙에 얽매인 직원이라기보다, 가끔씩 도와주는 협력자로 보았다.

어떤 사건이 귀찮게 느껴지면, 그에게 어떤 명령이나 협박도 그 사건을 쫓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사건이 그의 관심을 끌면, 그는 즉시 그 사건을 붙잡아 철저하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해결책을 가지고 경찰청장의 보호를 받는 그의 후원자에게 가져갔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다음 날 월요일, 그는 신문을 펼쳐 보았다. 거기에는 상테 형무소에 서의 구금 사실을 전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주요 형사 에두앵이 상세히 풀어낸 그 사건 기록은 그를 경악하게 했다. 그는 좋은 경찰은 신중하고 은밀하게 일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신문이 동부 지방의 한 도시를 지나가는 아르센 뤼팽의 행적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다른 일로 마음을 돌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신문은 그 도시가 바로 스트라스부르임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좋은 것들’은 바로 스트라스부르에서 훔쳐진 것이었다.

물론 단순한 우연일 것이다. 바보 오드그랑과 아르센 뤼팽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 리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의아했다.

그는 곧장 전화번호부를 뒤졌다. 오후에는 화학 제품 회사들을 찾아 다녔고, 마들렌 지구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다섯 시가 되어서야 그는 단서를 잡았다. ‘에르스틴’이라는 이름의 타자기가, 몽타보르 거리 중앙화학회사에 근무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곧장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가 건넨 답변은 그에게 즉각적인 현장 방문을 촉구했다. 그는 서둘러 회사로 향했다.

사무실은 좁은 방들이 연이어 늘어서 있었다. 방들 사이에는 얇은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을 뿐,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대표의 사무실로 안내되었지만, 들어서는 순간부터 격한 항의를 마주했다.

“에르스틴 페이에? 범인이라니? 오늘 아침 신문에서 도망친 모험가 이야기와 연결되는 걸까? 불가능해요, 형사님. 에르스틴의 부모님은 아주 신망이 두터운 분이예요. 그녀는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죠.”

“잠깐 몇 가지 질문만 해도 될까요?”

“원하시면요.”

그는 사무실 소년에게 종을 울렸다.

“에르스틴을 부르시오.”

작고 단정한 차림새의 한 여인이 나타났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굳힌 얼굴 표정처럼, 그녀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불쌍한 얼굴의 가면을 쓴 여자는, 빅토르가 어제 영화관에서 동료에게서 훔쳐낸 노란 봉투를 어디다 뒀는지 묻는 차가운 눈빛을 보이자마자 무너졌다.

오디그랑 씨처럼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더듬거렸다.

“그가 거짓말을 했어요… 바닥에 노란 봉투가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줍고, 오늘 아침 신문을 통해 그가 나를 비난한다는 걸 알았죠…”

빅토르가 손을 내밀었다.

“봉투? 당신 지니고 있나?”

“아니요. 그 분을 다시 만날 방법을 몰랐어요. 책상 서랍에 있어요. 타자기 옆에.”

“그럼 가자.” 빅토르가 말했다.

그녀가 그를 앞서 나갔다. 그녀는 철조망과 가리개에 둘러싸인 구석진 공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끝자락에서 편지 더미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놀란 기색을 드러냈다.

열정적인 손동작으로 그녀는 서류들을 흩뜨려 놓았다.

“없어요. 깜짝 놀랐네요. 그녀가 더 이상 여기에 없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 빅토르는 그들을 둘러싸고 바쁘게 움직이는 열 명 가량의 직원들에게 명령했다. “이사님, 제가 전화했을 때, 혼자 계셨나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아니었네요. 회계원이 저와 함께 있었어요, 샤생 씨.”

“그렇다면 특정 단어가 그녀에게 단서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빅토르가 덧붙였다. “우리 통화하는 동안 두 번이나 나를 ‘형사’라고 부르셨고, ‘어네스티네 씨’라는 이름도 발음하셨죠. 그런데 샤생 씨는 신문 기사로 알고 있듯, 어네스티네라는 소녀를 의심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샤생 씨가 여기 계신가요?”

직원 한 명이 대답했다.

“샤생 씨는 항상 여섯 시 이십 분에 여섯 시 열차를 타러 갑니다. 생클루에 살아요.”

“제가 열 분 전에 단장실로 타자기를 치는 여직원을 부르라고 했을 때, 이미 떠났나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당신은 그녀가 떠가는 모습을 봤습니까?” 빅토르가 타자기 여직원에게 물었다.

“네.” 어네스티네 씨가 대답했다. “그녀가 모자를 쓰고 있었죠. 그때 그분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시로 내려가시던 그 때, 그 노란 봉투를 이 서류들 아래에 던지셨나요?”

“네. 그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봉투를 코르제(가슴) 안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샤생 씨가 당신의 그 행동을 목격할 수 있었나요?”

“그렇게 생각해요.”

빅토르는 시계를 확인한 뒤, 샤생 부인에 대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정리했다. 사십 살의 붉은 머리에 풍만한 체격의 그녀였으며, 애플 그린색 스웨터로 단단히 무장한 모습이었다. 그 후 그는 계산을 마쳤다.

아래층으로 내려온 빅토르는, 전날 알폰스 오디그랑을 체포했던 헤두앵 경사와 마주쳤다. 경사는 놀란 듯 외쳤다.

“뭘, 벌써 여기 계셨어요, 빅토르? 오디그랑의 애인을 만나셨다고요?…… 에르네틴이라는 그 소녀를?”

“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그는 택시를 타고 6시 기차에 딱 맞춰 도착했다.

기차에 올라탄 그는 한눈에 확인했다. 긴 객차 안에 앉아 있는 승객들 중, 애플그린색 스웨터를 입은 여성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기차는 출발했다.

주변의 승객들은 모두 저녁 신문을 읽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노란 봉투와 '채권 사건'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을 들으며 Victor는 이미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이 세상에 알려져 버렸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15분 후, 기차는 생클루에 도착했다. Victor는 즉시 역장에게 말을 걸어, 승객들의 하차를 면밀히 감시하도록 했다.

그 열차에는 승객이 많았다. 사과색 스웨터가 회색 코트 사이로 살짝 보이는 여자가, 정기 승차권을 손에 쥔 채 지나가려 했다. 빅토르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제발 따라와 주시겠어요, 마담. 사법 경찰입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며 몇 마디 중얼거렸다. 그리고 가니마르 형사와 역장에게 동행해 역장실로 들어갔다.

“당신은 상용화학회사에 다니는 직원이지요.” 빅토르가 말했다. “타이피스트 에르스틴이 타이핑 기계 옆에 두고 간 노란 봉투를 실수로 가져갔군요.”

“나요?” 그녀는 꽤나 차분하게 말했다. “잘못되신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색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왜 안 하죠. 당신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무고하다면,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역무원과 함께 옆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소지품에서 노란 봉투는 발견되지 않았고, 방위 채권도 나오지 않았다.

빅토르는 흔들리지 않았다.

“주소를 알려주시오.” 그가 엄하게 말했다.

파리에서 온 다른 열차가 도착했다. 수석 형사 에두앵이 재빨리 내리더니, 곧바로 빅토르와 부딪혔다. 빅토르는 태연하게 입을 열었다.

“샤생 부인은 봉투를 안전하게 치워둘 시간이 있었죠. 만약 어제 밤 형사국에서 기자들 앞에서 수군거리지 않았다면, 세상은 황금 봉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샤생 부인은 절도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테고, 저는 그걸 에르스틴의 가슴에 꽂힌 채로 거두었을 텐데 말이죠. 바로 이것이 공개적인 경찰 활동이 주는 결과입니다.”

에두앵이 반발했다. 하지만 빅토르는 계속했다.

“요약하자면, 오디그랑, 에르스틴, 샤생…… 이틀 만에 보물을 노린 세 명의 아마추어가 차례로 제거되었군. 이제 네 번째를 보자.”

기차가 파리로 향했다. 빅토르는 기차에 올랐고, 플랫폼 위에는 어이없어하는 상급자, 즉 수석 형사 에두앵만 남았다.

화요일 아침부터 빅토르는 재킷을 단정하게 여미고 나섰다. 그 재킷은 옛날의 돌만처럼 보이는 구식이었다. 그는 네 명이 탈 수 있는 작은 캐브리오레를 몰고 생클루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꼼꼼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다. 전날 월요일, 오후 5시 40분부터 6시 15분까지 노란 봉투를 손에 쥐고 있던 샤생 부인은, 그 중요한 물건을 아무 곳에나 던져둘 수 없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녀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그 물건을 건넸을 것이다.

그녀는 어디서 그 누군가를 만났을까? 파리에서 생클루로 가는 길 말고는 어디겠는가? 따라서 수사의 초점은 샹생 부인과 같은 칸을 썼던 사람들, 특히 그녀와 신뢰 관계에 있던 인물들에게 맞춰져야 했다.

빅토르가 찾아간 샹생 부인은 이미 1년 전, 도자기 가게를 운영하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로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었다.

엄마와 딸은 평판이 좋았고, 친밀한 사이라고 인정하는 친구는 고작 세 명뿐이었다. 게다가 그 세 친구 모두 어제 파리에 가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샹생 부인의 차가운 태도만 봐도, 그녀가 불륜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다.

수요일이 되어서도 빅토르의 조사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상황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네 번째 도둑은 앞서 실패한 세 사람의 전례를 교훈 삼아 각별히 조심했을 것이다. 그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 모든 준비를 마쳤을 터였다.

목요일, 그는 생클로드와 이웃한 가르슈의 작은 카페, 스포츠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하루 종일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 주변을 두루 누볐다. 빌다브레, 마르나라코켓, 세브르 등지로 발걸음을 넓게 펼쳤다.

저녁 식사 시간, 그는 생클로드에서 바크레송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 위에 있는 가르슈 역 맞은편, 스포츠 카페로 돌아왔다.

아홉 시, 그는 예기치 않은 방문객을 맞이했다. 주사령관 에두앙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했다.

“드디어 찾았군! 오늘 아침부터 이 근처를 샅샅이 뒤졌어. 국장이 너를 보고 매우 화가 나 있단다. 연락이 두절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야? 전화라도 해라! 현재 상황은 어떤가? 뭔가 알아낸 게 있나?”

“당신은요?” 빅토르는 나직이 물었다.

“아무것도.”

빅토르는 음료를 두 잔 주문했다. 그는 큐라소 한 잔을 천천히, 한 모금씩 기울이며 입을 열었다.

“샤생 부인에게 연인이 있소.”

에두앙이 깜짝 놀라며 몸을 떨었다.

“당신 미쳤소? 저 여자의 얼굴을 보시오!”

“어머니와 딸이 매주 일요일마다 장거리 산책을 다니잖아요. 지난 4월, 그 달의 앞선 일요일에 두 사람이 파스르포제 숲에서 한 신사와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됐소. 그리고 일주일 뒤, 그러니까 정확히 이틀 전에는 바크레송 근처에서 세 사람이 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는 모습이 목격됐소.”

“그 신사는 가르쉬 근처, 생큐쿠파 숲 맞은편에 있는 ‘비코크’라는 별장에 사는 레스코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정원 담 너머로

그를 직접 볼 수 있었소. 나이는 마흔다섯. 몸이 가냘프고, 회색 수업을 기르고 있죠.”

“정보라곤 이 정도라니, 너무 빈약한데요.”

“그 이웃 중 한 사람인 기차역 직원 발랑 씨라면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밤 발랑 씨는 병든 친척이 있는 베르사유로 아내를 모셔다 주러 갔습니다.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들은 말 없이 몇 시간이나 기다렸다. 빅토르는 평소부터 말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잠들기도 했다. 에두앵은 초조하게 담배만 피웠다.

드디어 자정 반이 되어 기차역 직원이 나타났다. 그는 곧장 외쳤다.

“르스코 부장? 물론 알죠. 우리 집과 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았습다. 그는 정원을 가꾸는 것 외에는 관심 없는 야성적인 사람입니다. 가끔 밤늦게 한 두 분의 여인이 그의 별장에 숨어들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르스코는 일요일에 산책하러 나가는 것과 주일에 파리 한 번 가는 것 외에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언제였나요?”

“보통 월요일입니다.”

“그럼 지난주 월요일?”

“그때 왔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았죠.”

“몇 시쯤이었나요?”

“매번 같은 열차였습니다. 저녁 6시 19분에 가르슈에 도착하죠.”

침묵이 흘렀다. 두 경찰관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에두앙이 물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아니지만, 제 아내가 봤습니다. 빵 배달부죠. 게다가 그녀가 말하길,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밤, 제가 근무 중이었을 때 ‘라 비 코크’ 주변을 어슬거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나요?”

“네. 레스코 부인의 집 개가 우리 집에서 계속 짖었대요. 제 아내는 회색 모자를 쓴 남자의 그림자 같았다고 확신합니다.”

“정체를 알아봤나요?”

“알아봤습니다. 분명히요…”

“아내분은 베르사유에 계신다, 맞죠?”

“내일까지요.”

와용의 말을 마친 그는 물러났다. 일분, 이분쯤 지나 주임 형사가 결론을 내렸다.

“새벽부터 레스코 부장을 찾아뵙겠습니다. 안 그러면 네 번째 도둑이 또 털릴지 모르니까요.”

“그때까지...”

“일단 별장 주변을 한 바퀴 둘러 갑시다.”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걸었다. 고개 너머 평원으로 이어지는 외딴 길들을 따라, 작은 빌라들이 줄지어 있는 도로를 따라. 맑은 하늘에서 별빛이 쏟아졌다. 밤공기는 포근하고 고요했다.

“여기입니다.” 빅토르가 말했다.

먼저 수풀이 있고, 그 뒤에 낮은 담장이 나왔다. 담장 위로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잔디밭 너머로, 한 층짜리 별장 건물이 보였다. 창문이 세 개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빛이 보이는 것 같은데.” 빅토르가 속삭였다.

“응, 1층 중간 창문이야. 커튼 틈으로 새나오는 거겠지.”

하지만 오른쪽에서 더 밝은 빛이 번쩍였다가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이상하네.” 빅토르가 말했다. “우리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개가 짖지 않아. 그런데 바로 근처에 개집이 보이네.”

“아마 죽었겠지.”

“어제와 그제 밤에 돌아다녔던 그 노숙자 말인가?”

“그럼 이번 작전은 오늘 밤이군. 정원 둘레를 한 바퀴 돌아보자. 뒤에 골목이 있을 거야.”

“잠깐, 들어봐!”

빅토르 귀를 기울였다.

“응…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비명들이었다. 숨 막히게 들렸지만 분명히 들리는 소리였다. 이어지는 총성, 그리고 다시 들리는 비명들. 총성은 바로 불이 켜진 1층에서 울려 퍼졌다.

빅토르가 어깨를 힘차게 내밀자, 대문의 철조망이 쓰러졌다. 두 사람은 잔디밭을 가로질러 발코니에 다다랐다. 그곳의 창문은 그냥 밀어 열 수 있었다.

빅토르가 먼저 1층으로 올랐다. 손전등을 든 채였다.

복도에는 문이 두 개 있었다. 그는 맞은편 문을 열었다. 등불 빛에 비친 방 안에는, 몸이 경련하듯 떨리는 한 사체가 누워 있었다.

한 남자가 옆방으로 도망쳤다. 나는 그를 쫓았지만, 가니마르 형사는 복도 끝의 다른 문을 지켰다.

사실, 총돌은 그곳에서 일어났다. 남자와 형사 사이에 부딪힌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방으로 들어서던 빅토르는 창문을 넘어선 한 여자를 발견했다. 그 여자는 빌라 뒷면으로 난 열린 창문 너머로, 아마도 사다리를 이용해 내려가고 있었다.

빅토르는 전기 손전등 빛을 그녀에게 쏘았다. 그리고 시네 발타자르의 금발 여자를 알아봤다.

그가 곧장 뛰어내리려던 찰나, 형사의 외침이 그를 멈추게 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총성과 비명 소리.

나는 복도로 달려가 쓰러져 가는 가니마르 형사를 부축했다. 총을 쏜 남자는 이미 아래층으로 사라진 뒤였다.

“쫓아가 봐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깨가….”

주사령관 가니마르의 탄식이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러서.”

빅토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동료의 손길을 뿌리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가니마르 주사령관은 넘어지지 않으려 빅토르에게 매달려 있었다. 빅토르는 그를 끌고 첫 번째 방의 소파까지 갔다. 그리고는 그를 소파 위에 눕혔다.

이제 잡을 수 없게 된 두 피고인의 추격은 포기한 채, 빅토르는 바닥에 드러누운 남자의 무릎을 꿇었다.

그 남자는 바로 레스코 부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죽었군.”

빅토르가 빠르게 시체를 확인한 뒤 말했다.

“틀림없어. 죽었어.”

“성가신 일이다.”

에두앵이 중얼거렸다.

“노란 봉투는?”

“수색해 봐.”

빅토르는 이미 수색을 시작했다.

“노란 봉투가 하나 있었지만, 구겨져 있고 비어 있더군. 레스코 신부는 방어 채권을 봉투에서 꺼내 따로 보관했다가, 결국 건네줄 수밖에 없었을 거야.”

“봉투에 적힌 글자는 없나?”

“없어. 하지만 반투명하게 보이는 제조사 표시가 있네. ‘스트라스부르 구소프 제지’라고.”

그는 동료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말을 이었다.

“드디어 단서가 나왔군. 스트라스부르…… 바로 그곳에서 은행에서 첫 번째 절도가 자행되었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섯 번째 도둑을 쫓고 있어. 이번엔 눈이 시리지도 않은 사나이야. 헛! 만약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도둑들이 미련한 놈들이었다면, 다섯 번째 놈은 우리에게 꽤 골치 아픈 상대가 될 거야.”

그는 자기가 목격한 그 놀라운 여인을 생각했다. 그녀는 범죄 현장에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그녀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걸까?

제2장

역무원과 이웃 두 명이 소음에 깨어나 달려왔다. 그중 한 사람은 집에 전화가 있었다. 빅토르는 그에게 생클로드 경찰서에 알리라고 부탁했다. 다른 한 사람은 의사를 불러왔지만, 의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심장을 맞은 레스코 신부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상처가 심각하지 않았던 에두앙은 파리로 이송되었다.

생클로드의 경찰서장이 부하들과 함께 도착했을 때, 빅토르는 아무 것도 어지럽히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두었다. 그는 경찰서장에게 사건 경과를 보고했다. 두 사람은 두 공범이 남긴 흔적을 밝히려는 아침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빅토르는 집으로 돌아갔다. 파리에 있는 그의 집으로.

아홉 시가 되자 빅토르는 다시 소식을 확인하러 갔다. ‘비코크’ 집 앞에는 경찰들이 군중을 밀쳐 내며 거리 두기를 하고 있었다. 안뜰과 별장 안에는 다른 형사들과 헌병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베르사유 검찰청의 도착 소식이 있었지만, 파리에서 역명령이 내려졌다고 했다. 따라서 조사는 파리 검찰청이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빅토르는 생클루 경찰서장과 면담한 결과든, 직접 조사한 결과든 몇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다만 그 사실들은 부정적인 것이었다. 결국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1층으로 도망친 남자에 대한 단서는 없었다. 창문으로 도망친 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여자가 수풀을 넘어 옆길로 빠져나간 자리는 쉽게 찾아냈다. 1층 창문 아래로 사다리가 남긴 자국도 확인했다. 하지만 철제 접이식 이동식 사다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공범 두 사람이 어떻게 합류했는지, 또 어떻게 지역을 빠져나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자정부터 한 시간 사십오 분까지 자동차 한 대가 라 셀 생클루 기마학교 옆에 정차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그 차는 이후 부기발과 세느강변을 따라 파리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레스코 아저지의 개는 켄넬에서 죽어 있었다. 독에 중독된 채였다.

정원 자갈 위에는 발자국이 전혀 없었다.

시체에서 꺼낸 총알과 가니마르의 어깨에서 빼낸 총알은 모두 7밀리 65 브라우닝 권총에서 발사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권총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이 작은 사실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뤼팽은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 기자들과 사진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자신이 말하듯 ‘대화식 추측’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가 진정으로 관심 가진 것은 사건의 심리였으며, 그것이 요구하는 깊은 사고와 지능이었다. 나머지 일, 즉 조사나 확인, 추적, 감시 같은 것은 억지로 했을 뿐이었다. 그는 항상 혼자서, 오직 자신을 위해 일했다.

그는 역무원 발랑의 집으로 향했다. 발랑의 아내가 베르사유에서 돌아와, 며칠 밤 비코크 근처를 배회하던 남자를 전혀 모른다고, 알아보지도 못했다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다시 근무에 복귀한 발랑은 역 앞에서 그를 막아섰다. 그리고 스포츠 카페로 그를 초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안주 한 잔이 그의 혀를 풀어주자 발랑이 입을 열었다. “제 아내,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는 게르트루드가 빵 배달을 다니며 남의 집에 들릅니다. 만약 그녀가 수군거린다면, 그 말은 결국 그녀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죠. 하지만 제 경우는 다릅니다. 철도 직원이자 공무원으로서, 저는 정의의 편에 서서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보시죠.” 발랑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녀가 내게 말해 준 회색 모자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쓰레기를 치우던 중, 우리 집 울타리 안쪽 구석에 있는 쭉발과 쓰레기 더미 아래서 줍게 됐죠.

어제 밤 도망친 놈이 울타리를 넘어갈 때 무심코 던져놓은 게 분명합니다.”

“그 다음?”

“다음으로, 제르트루드가 단언하길, 화요일 밤과 수요일 밤의 그 남자, 즉 회색 모자를 쓴 남자는 바로 매일 아침 그녀에게 빵을 사 가는 손님입니다. 바로 상류층 신사분이죠.”

“이름이 뭐죠?”

“막시르 도트레이 남작입니다. 왼쪽으로 몸을 좀 기울여 보세요. 그 집, 바로 저기요. 생클루로 가는 길에 있는 유일한 임대 주택이죠. 여기서 아마 오백 미터쯤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는 네 번째 층에 아내와 노모인 하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분들입니다. 조금은 자존심이 강할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훌륭하죠. 그래서 저는 가르트루드가 과장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연금으로 생활합니까?”

“아니요, 전혀요. 그는 샴페인 와인 사업에 종사합니다. 매일 아침 파리로 향하죠.”

“그리고 언제 돌아오나요?”

“저녁 여섯 시 열차를 타고, 이 역에는 일곱 시에 도착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그 열차로 돌아왔습니까?”

“물론이죠. 어제만 빼고요. 어제만은 제가 아내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빅토르는 입을 다물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전개될 수 있었다.

월요일, 파리에서 돌아오는 여섯 시 기차의 칸 안이었다. 샤생 부인은 레스코 신부 곁에 앉았다.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이라 평소에는 어머니와 함께 있지 않을 때 연인인 그와 말을 섞지 않았다.

그런데 그 월요일, 그녀는 무의식적인 동작으로 노란 봉투를 훔쳐냈다.

그녀는 속삭이듯, 그러나 태연한 척하며 그에게 자신이 맡길 것이 있다고 알렸다. 그리고 서서히, 그 봉투를 그에게 건넸다. 그녀는 아마도 그 봉투를 맡아 끈으로 동여맨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이 모든 장면을 차 안의 드오트르 남작이 지켜봤다. 그는 신문을 읽은 바 있었다. 노란 봉투라니, 혹시 그것이…?

“생클로드에서 샤생 부인이 떠났다. 레스코 신부는 가르슈까지 계속 간다. 같은 역에서 내리는 막시므 당트레이는 그 노인을 미행해 집 위치를 파악했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비코크 저택 주변을 배회하다 목요일에 결단을 내렸다.”

빅토르는 동료를 떠나 지정된 건물로 향하며 생각했다.

“너무 잘, 너무 빠르게 연결되어 있군. 진실은 결코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이렇게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

비크토르는 네 번째 계단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안경 쓴 흰 머리 노파가 문을 열더니, 그의 이름을 묻지도 않고 거실로 안내했다.

“명함을 내보내라.”

방은 거실이자 식당이었다. 안에는 의자 몇 개와 식탁, 찬장, 작은 원탁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외관은 초라했지만,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다. 벽에는 종교적인 그림이 걸려 있었고, 벽난로 위에는 몇 권의 책과 종교 선전용 소책자가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생클루 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한 부인이 나타났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았고, 미분도 바르지 않았다. 옷차림은 낡아 보였지만, 풍만한 가슴과 복잡한 머리 스타일, 그리고 낡은 가운을 입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나쁘지 않은 인상이었다. 다만, 고의적으로 높게 잡은 표정과 여백이 느껴지는 고집스러운 머리의 각도가 걸렸다. 그건 그녀가 스스로를 남작부인이라 생각했을 법한 태도였다.

대화는 짧았다. 그녀는 일어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monsieur?”

“바론 드 오프레이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월요일 밤 기차 안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거든요.”

“아마도 신문에서 보도한 노란 봉투 절도 사건에 관한 말씀이시겠죠?”

“네. 그 절도 사건으로 인해 오늘 밤 가르슈에서 살인이 자행됐습니다. 피해자는 레스코라는 남자였죠.”

“레스코라니요?”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용의자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월요일 저녁 6시 기차를 타고 파리에서 가르슈로 향했던 승객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 오프레이 바론께서...”

“제 남편이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리에 계시거든요.”

그녀는 빅토르가 물러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다.

“드 오프레이 씨는 저녁 식사 후 가끔 외출하시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화요일과 수요일은 어땠습니까?”

“네, 이틀 동안은 두통이 심해져서 잠시 산책하러 나왔죠.”

“그리고 어제 밤, 목요일은요?”

“어제 밤은 일이 있어서 파리 시내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묵었습니까?”

“아니요, 집으로 돌아왔죠.”

“몇 시쯤이었습니까?”

“저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돌아온 뒤, 열한 시가 울리는 것을 들었어요.”

“열한 시? 그러니 살인 사건 두 시간 전이군요. 확신하십니까?”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날카로운 예의 바름으로 대답해 온 남작 부인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감했다. 그녀는 ‘풍기단속반 빅토르’라고 적힌 명함을 힐끗 바라보며, 이해는 못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사실이라고 확신할 때만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와 몇 마디 나누었습니까?”

“물론이죠.”

“정말 완전히 깨어 계셨나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얼굴이 붉어졌다. 대답하지 않았다.

빅토르가 다시 물었다.

“오스트레 백성이 오늘 아침에 떠난 시각은 언제였나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여섯 시 십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가 작별 인사라도 하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그녀가 화를 내며 말했다.

“이게 무슨 심문입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생활을 침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회색 모자를 꺼냈다.

“이 모자가 오스트레 씨 소유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녀는 모자를 자세히 살피보며 말했다.

“오래전에 벗어던지고 쓰지 않던 낡은 모자입니다. 제가 서랍 구석에 넣어둔 것이죠.”

그녀는 남편에게 치명적인 답변을 하며 얼마나 담담하게, 그리고 성의 없이 그 말을 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 그토록 솔직한 태도는 핵심

적인 부분에서는 그녀가 그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은 아니었을까?

빅토르는 자신의 간섭이 실례였음을 사과하며, 낮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예고하고 작별 인사를 나갔다.

현관 관리인을 만나서 한 조사 결과는 오 드트르 부인의 말과 일치했다. 남작은 밤 11시쯤 인터폰을 눌러 코드 번호를 요청했고, 새벽 6시쯤 문을 두드려 출근했다. 밤사이에는 아무도 오가지 않았다. 이 건물에는 세 가구만 임대 중이고, 다른 세입자들은 저녁에 절대 외출하지 않기 때문에 감시는 매우 쉬웠다.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안쪽에서 문을 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 짐무실로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자물쇠와 빗장을 꼭 걸어둡니다.”

“오토르 남작이 아침에 가끔 외출하시나요?”

“전혀 없습니다. 장보는 일은 안나, 그들의 오래된 하녀가 합니다. 보세요, 바로 계단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집에 전화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빅토르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상충되는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분열시켰다. 근본적으로, 남작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이든 간

에, 상황 자체가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알리바이를 의심할 수는 없었다. 범죄가 일어난 순간, 그는 아내 곁에 있었다.

그는 점심 식사 후 다시 역으로 돌아와 이렇게 물었다.

“바롱 도트레이는 손님이 많지 않을 때면 그의 행차가 반드시 주막 맡곤 합니다. 오늘 아침 그는 일찍 출발한 열차 중 하나를 탔나요?”

답은 하나였다. 단호하게, 그리고 일치된 ‘아니오’였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가르슈를 떠났을까? 오후 내내 가니마르는 도트레이 가문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공급업자, 약사, 관공서 직원, 우편국 직원 등에게서 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이 순회 과정에서 그는 도트레이 부부가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외면받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집주인인 구스타브 제로므 씨를 찾았다. 제로므 씨는 시의원이며 목재와 석탄 상인이었다. 그는 바롱과 바론느 사이의 마찰을 구경거리 삼아 지역 사회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다.

제라움 부부는 평원 위에 있는 아름다운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문턱을 넘자마자 빅토르는 안락함과 부유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화와 소동이 가득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발걸음을 재촉해 현관으로 들어선 그는, 1층에서 벌어지는 싸움 소리를 들었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공명했다.

남자의 목소리는 지루하고 날카로움이 없었다. 반면 여자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분노에 찬 비명이었다.

“당신은 그냥 술주정뱅이일 뿐이에요! 네, 바로 당신요! 시의원인 구스타프 제라움 씨는 술주정뱅이예요! 어제 밤 파리에서 대체 뭐 했어요?”

“알잖아, 내 사랑. 데발과 비즈니스 만찬이었어.”

“물론 여자들이 끼었겠지. 당신의 데발, 나는 잘 알아. 술자리 좋아하는 놈이잖아. 만찬 끝난 뒤에는 풍드베르그로 갔지? 누드 쇼도 보고, 댄싱도 하고, 샴페인도 마셨겠지?”

“니가 미쳤구나, 앙리에트! 내가 데발을 차를 타고 수레즈까지 모셔다줬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몇 시쯤이었어?”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아…”

“당연히 네가 술에 취해 있었지. 아마 새벽 세 시나 네 시쯤이었을 거야. 하지만 넌 내가 잠든 틈을 타…”

논쟁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다. 제로姆 씨가 계단 쪽으로 돌진해 내려갔다. 뒤따라오는 아내의 추격을 받으며 그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방문객을 발견했다. 방문객은 즉시 사과했다.

“저도 모르게 종을 울렸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서… 감히…”

사십 살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 붉게 탄 잘생긴 남자, 구스타브 제로
姆이 웃음을 터뜨렸다.

“들었어? 사소한 가정 다툼일 뿐이야… 별일 아니야… 앙리에트는
정말 훌륭한 여자야… 그런데 내 사무실로 들어가 주게… 나는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 거지?”

“방금 모던 브리데 소속 빅토르 형사입니다.”

“아, 레스코 신부 사건 말씀이지요?”

“그쪽 이야기는 아니고요.” 빅토르가 말을 끊었다. “여기 세입자, 오
트레이 남작에 대해 좀 알아보고 왔습니다. 두 분 사이가 어떤가요?”

“정말 안 좋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우리 건물의 이 아파트를 남작 부부에게 빌려주기
전까지, 여기서 십 년을 살았거든요. 그사이 불만 사항과 시비가 끊이
지 않았고, 법원 집행관 문서도 수두룩했죠. 다 사소한 일들이었습니
다.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 열쇠를 하나 더 건넸는데, 그들은 받지 않
았다고 주장하더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국 싸움이 났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제로姆 씨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도 알고 있군요. 네, 싸
움이 났습니다. 남작 부인한테서 코를 한 대 얻어맞았죠. 물론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녀가 뭘 후회한다니요!” 제로姆 경감이 외쳤다. “저 여자는 천덕꾸러기요, 대범한 도둑이죠. 종일 교회나 다니는 척하면서요. 게다가 그 남자는요, 경감님, 이미 망가진 인간이에요. 빗더미에 앉아서 집세도 안 내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놈이죠.”

그녀는 예쁘고 친근한 인상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쉰 목소리라 욕설이나 분노를 내뿜기에 딱 좋았다. 게다가 그녀의 남편 역시 그녀를 탓하며 끔찍한 뒷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랑블에서 파산했고, 리옹에서는 추잡한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다. 사기와 부정을 저지른 무거운 과거가 그들을 따라다녔다.

빅토르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뒤에서 다시 시작된 싸움 소리와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저녁 무렵, 빅토르는 스포츠 카페에 자리를 잡고 저녁 신문을 훑었다. 하지만 특별할 만한 기사는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가르쉬에서 온 한 부부가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파리에서 막 내려온 이들이었고, 북역 근처에서 택시 안의 오토레이 남작과 한 젊은 여자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운전석 옆 뒷좌석에는 두 개의 여행용 가방이 놓여 있었다. 이것이 확실한 사실일까?

빅토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증언이 얼마나 의심스러운지 말이다.

‘어쨌든 선택지는 간단해.’

바론이 방산채권과 함께 벨기어로 도망쳤다면, 그 옆에는 레스코 아저씨의 창문 너머에서 다시 본 그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실수일 수도 있어. 그럼 바론은 평소 타던 기차로 곧장 여기에 도착하겠지.

그건 모든 정황이 거짓이었다는 뜻이야. 즉, 우리가 쫓던 발자취는 헛것이라는 거지.

역에서 빅토르는 출구 근처에서 뱅상과 다시 만났다.

기차가 도착한다는 신호가 울렸다. 곧 커브 너머로 기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승객 서른여덟 명이 내렸다.

뱅상이 빅토르의 팔꿈치를 툭 치며 속삭였다.

빅토르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남작의 태도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엿보이지 않았다. 평온하고 안도한 듯한 그의 얼굴은, 18시간 전에 살인을 저지르고도 과거의 기억에 시달리며,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불안과 다가올 상황에 대한 공포로 괴로워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는 평소의 리듬대로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한 신사의 모습이 었다. 그는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손에 접은 저녁 신문을 들고 있었다. 지나가는 철조망의 봉에 무심코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빅토르는 뒤에서 거리를 두고 그를 따라오다가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와 함께 건물에 도착했다.

네 번째 층의 복도에서, 남자가 열쇠를 꺼내 들자 빅토르는 말했다.

“오토레이 남작이시죠?”

“무슨 일입니까, monsieur?”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던 브리데, 빅토르 형사입니다.”

분명히 충격이 일었다. 마음이 흔들렸고, 의지를 모으려는 노력도 보였다. 턱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건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리고 어쨌든, 가장 정직한 사람들조차도 경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자연스럽게 느끼는 반응일 뿐이었다.

오토레이 부인은 식당 창가 근처에서 자수를 놓고 있었다. 빅토르를 보고는 벌떡 일어났다.

“가브리엘, 나가.” 남편이 그녀를 입맞춘 뒤 말했다.

빅토르가 입을 열었다.

“아침에 이미 댐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녀가 계셔 주시면 우리 대화도 한층 수월해지겠지요.”

남작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놀란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신문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형사님, 지금 이 기사에서 당신의 이름을 봤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것이죠. 당신은 아마도 여섯 시 열차의 상용 고객이자 단골 승객인 저를 심문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지난 월요일에 누구와 함께 타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상한 행동이나 노란 봉투 같은 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도트루이가 거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형사님은 당신만큼은 너그러이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막심. 가르슈 꼭대기에서 살인이 자행되는 밤,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남작이 깜짝 놀라 물었다.

“무슨 뜻이요?”

빅토리가 회색 모자를 내밀었다.

“이것은 공격자가 쓰고 있던 모자입니다. 근처 울타리 안에 던져놓은 것이죠. 오늘 아침, 오 드오트루이 님께서 이 모자가 귀하께 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드오트루이가 바로잡았다.

“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거실 입구의 찬장 속에 있었죠, 그렇지 않아요, 가브리엘?”

그가 아내에게 물었다.

“네, 대략 이틀 전쯤 제가 정리해 두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 제가 그 모자를 구멍 뚫린 낡은 손수건과 함께 쓰레기통에 버렸죠. 떠돌이들이 줍고 갔겠죠. 자, 형사님, 그 다음?”

“화요일 밤과 수요일 밤, 당신이 밖으로 나간 정확한 시간에, 이 모자를 쓴 남자가 비코크 주위에서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산책은 나갔지만, 그쪽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요?”

“생클루 대로변으로.”

“누군가를 만났나요?”

“아마도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밤, 목요일에는 몇 시에 들어오셨나요?”

“열한 시예요. 파리에서 저녁을 먹었죠. 아내가 잠들어 있었어요.”

“아내 말씀으로는, 몇 마디 나누셨다고 합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나, 가브리엘? 나는 기억이 안 나.”

“있어요, 있어요.”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기억해 봐요… 내가 당신을 키스했다고 말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다만, 당신에게 부탁하는 건, 이 분께 더 이상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고, 거칠고 붉게 달아오른 볼이 더욱 붉게 물들었다.

“가브리엘, 나는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바론이 말했다. “내가 이를 돕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떠나는 시간을 말씀드릴 필요는 있겠습니까, 가니마르 형사? 여섯 시쯤이었죠.”

“기차를 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중 아무도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차는 막 지나간 참이었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보통 세브르 역까지 걸어갑니다. 거리가 스물다섯 분 거리니까요. 제 정기관으로 그곳까지 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보다는 덜하지만, 승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혼자서 compartments에 탔습니다.”

빅토르는 망설임 없이 즉답했다. 그의 반박은 단호했고, 논리가 그토록 치밀해 잠시 동안은 그것이 곧 진리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만 같았다.

“내일 저를 파리로 모셔가 주실 수 있습니까?”

빅토르가 물었다.

“어제 저녁에 함께 식사하신 분들과 오늘 만나신 분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가브리엘 드 오토르가 그의 곁에 일어서서 얼굴을 붉혔다. 분노가 그녀의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빅토르는 그라운드 씨에게 날린 주먹을 떠올리며 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 여자의 표정이 너무도 코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그녀는 팔을 뻗어 벽에 걸린 성상을 향해 손가락을 댔다.

“저의 영원한 구원을 걸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너무 비열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맹세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부당해 보였나 보다. 그녀는 십자성을 긋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몇 마디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남편을 다정하고 동정 어린 눈빛으로 입맞춘 뒤 자리를 떠났다.

두 남자는 서로를 마주 보고 서 있었다. 남작은 침묵을 지켰다. 빅토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이 차분하고 평온해 보였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뺨에는 많은 여성들이 쓰는 자줏빛 화장이 칠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곧이어 눈가의 검은 다크서클과 끝이 처진 입술에서 느껴지는 극도의 피로함도 기록했다. 도대체 어떤 변화인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그 변화는 매초마다 더 깊어지는 듯했다.

“형사님, 잘못 오셨습니다.” 그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형사님의 수사가 뜻밖의 반전으로 내 비밀스러운 삶 한복판으로 들어와, 부끄러운 고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매우 아끼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파리에서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함께 저녁을 먹은 사람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녀가 성라자르 역까지 나를 배웅했고, 오늘 아침 일곱 시에 다시 그녀를 만났습니다.”

“내일 그 여자 집으로 데려가 주시오. 내가 차를 타고 가서 모시겠습니다.” 빅토르가 명령했다.

남작은 잠시 주저하다가, 결국 대답했다.

이 만남은 빅토르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확실히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감정과 추론 사이를 오갔다.

금요일 밤, 그는 생클루의 경찰관 한 명과 합의를 봤다. 자정이 될 때까지 그 집을 감시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제3장

가르슈와 파리 사이, 스무 분 남짓의 여정은 고요했다. 그 침묵, 그리고 그 순종적인 태도가 빅토르의 의심을 가장 무겁게 만들었다.

바론의 평온함은 더 이상 그를 압도하지 못했다. 전날 그가 발견한 가발과 분장 때문이었다. 그는 바론을 주의 깊게 살폈다. 붉은 기운은 사라졌다. 그러나 볼이 오그라든 창백하고 누런 얼굴은, 잠을 설치고 열에 시달린 밤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어디로 가시죠?” 빅토르가 물었다.

“보주아르 거리, 룩상부르 공원 근처입니다.”

“이름은?”

“엘리즈 마송입니다. 폴리에르제르에서 단역으로 일하던 여배우였죠. 제가 그녀를 거두어 졌으니,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하는지 모릅니다. 폐가 약해서요.”

“그녀 때문에 많이 지출하셨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너무 순박하거든요. 다만, 제가 일을 덜 하게 될 뿐이죠.”

“결국 월세 낼 돈도 없게 된 셈이군.”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빅토르는 남작의 애인을 생각했다. 그리고 뜨거운 호기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여자가 영화배우였을까? 아니면 비코크 살인사건의 여주인이었을까?

보자르르 좁은 거리에는 작은 방들로 이루어진 낮고 큰 건물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3층 왼쪽, 남작이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젊은 여자가 재빨리 문을 열며 팔을 벌였다. 빅토르는 즉시 그녀가 자신이 기억하던 그 여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드디어 왔네! 그런데 혼자만 온 게 아니야? 친구도 같이 온 거야?”

“아니요.” 그가 말했다. “이분은 경찰이에요. 제가 우연히 연루된 방위채권 사건에 대해 정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녀를 볼 수 있었다. 그녀가 두 남자를 데려온 작은 방 안이었다.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얼굴이었다. 푸른 눈이 유난히 컸고, 갈색 곱슬머리는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다. 볼에는 선명

한 붉기가 돌아왔다. 바로 어제 자크 남작 뺨에서 보았던 그 보라빛 붉음이었다.

그녀는 집안에서 입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주황색에 녹색 줄무늬가 있는 넓은 스카프를 느슨하게 매고 있었다.

“단순한 절차일 뿐입니다, 자매님.” 빅토르가 말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 모로 남작을 전역 목요일에 보셨나요?”

“전역 목요일?” 그녀가 생각에 잠겼다. “아, 맞아요. 그가 와서 점심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 제가 그를 기차역까지 배웅했죠.”

“그리고 어제 금요일은요?”

“어제 아침 일곱 시쯤 그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네 시까지 이 방을 떠나지 않았죠. 평소처럼 산책하듯 천천히 그를 밖으로 모셔냈습니다.”

빅토르는 그 말투를 들으며, 이 모든 대답이 미리 각본대로 준비된 것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진실도 거짓말과 똑같은 어조로 말할 수 있는 법이 아니던가?

그는 거처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화장실과 부엌, 그리고 옷장이 전부였다. 옷장 안을 살펴보니, 옷들을 치우자마자 여행용 가방과 두꺼운 천으로 된 여행용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가방은 내용물로 가득차 부풀어 올랐다.

빅토르는 급히 몸을 돌렸다. 젊은 여자와 그 연인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는 곧장 여행용 가방을 열었다.

한쪽에는 여자 속옷과 짧은 부츠, 드레스 두 벌이 들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남자 재킷과 셔츠가 있었다. 가방 안에는 파자마와 슬리퍼, 세면도구가 담겨 있었다.

“출발을 준비하던 참이었군요?” 그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에게 다가가 불평불만 섞인 눈으로 그를 노려보던 남작이 속삭였다.

“잠깐,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뒤지는 걸 허락했소? 이건 명백한 압수 수색이잖소. 무슨 자격으로? 영장은 어디 있소?”

빅터는 위기를 느꼈다. 격분한 기색이 역력한, 그리고 눈빛에서는 잔인한 살의가 드러나는 상대를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머니 깊숙이 숨겨둔 권총을 잡았다. 그리고 상대를 향해 몸을 일으켰다.

“어제 북역 근처에서 두 개의 여행 가방을 든 당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애인과 함께 있는 모습도요.”

“장난하십니까, 남작! 제가 기차를 타지 않았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나를 뭐라고 단죄하려는 건가? 그 노란 봉투를 훔쳤다고? 아니면...”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혹은 레스코 신부를 죽였다고? 그게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엘리즈 마송이 숨을 헐떡이며 더듬거렸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를 죽였다고? 가르슈의 그 남자를 죽였다고요?”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음, 누가 봐도 그럴싸하군요. 하지만 가니마르 형사,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제 아내분께도 이미 질문하셨잖아요.”

그는 자신을 단속하며, 서서히 경계심을 풀고 있었다. 빅토르는 권총 손잡이를 놓아 버리고, 안방으로 쓰이는 복도로 걸어나갔다.

반면 드오프르리는 여전히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 경찰이구나. 내가 직접 보는 건 처음이군. 하지만 천벌이야, 항상 이럴까 봐! 자, 형사님, 이 짐들은 몇 주째 준비해 둔 거예요. 제 아내와 저는 남쪽 여행을 꿈꿔 왔는데, 자꾸만 일이 꼬이네요.”

젊은 부인은 큰 푸른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말을 듣고 있었다.

“당신을 살인자라니, 그가 감히!”

그때 빅토르의 머릿속에 아주 명확한 계획이 떠올랐다. 먼저 두 연인을 분리한 뒤, 남작을 경찰청으로 데려가야 했다. 그리고 상사들과 협의해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도록 해야 했다.

그는 본인이 직접 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방위 채권이 그 안에 있다면, 이번에도 그걸 놓쳐서는 안 되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그는 젊은 여자에게 말했다. “당신은요, 각하...”

그가 열린 문을 가리키며 내뱉은 말투는 너무나 권위적이었다. 남작은 완전히 순종하는 태도로 그의 앞을 지나, 계단 세 단을 내려가 차의 뒷좌석에 앉았다.

길 모퉁이에서 순경 한 명이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다. 빅토르는 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차와 그 안에 탄 남자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는 바로 옆 포도주 가게로 들어갔다. 가게는 건물의 1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뒷방에는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는 즉시 경찰청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형사국과 연결되려면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십오 분 후, 자전거를 탄 형사 두 명이 도착했다. 빅토르는 그들에게 엘리자베스 마송이라는 여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3층에 살고 있으며, 그의 정확한 외모 묘사를 함께 전했다.

그리고 빅토르는 도트레이 남자를 경찰청으로 데려가, 동료들에게 맡겼다.

고위직에 있는 고티에 국장은 총명하고 유능한 인물이었다. 겉으로는 순박해 보였지만, 속에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판단력이 숨어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 빅토르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 안에는 또 다른 사람도 함께 있었다.

작고 통통한 노인이었다. 나이는 지났지만 체격은 여전히 건장했고, 목은 굽고 힘이 있어 보였다. 이 남자는 빅토르의 바로 위 상사, 곧 모를레온 총경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지요, 빅토르?” 국장이 외쳤다. “저에게 당신에게 두말할 나위 없이 단단히 일렀습니다. 우리와 절대적인 연락을 끊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틀째 소식이 없소. 생클루 경찰서는 저들대로, 제 형사들은 제멋대로, 당신은 또 다른 길로 가고 있소. 서로 연결고리가 없소. 공동의 계획도 없소.”

“프랑스어로 정확히 말하자면, 보나,” 빅토르는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안채권 사건과 비코크 살인 사건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이겠군요, 수장님?”

“당신은 어떻게, 빅토르?”

“저는 불만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하건대, 수장님, 저는 그다지 신이 나지 않습니다. 사건은 재미있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하죠. 너무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제3급 배우들이 흩어진 채 행동하고, 실수만 거듭하고 있죠. 통일성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적수도 없구요.”

“그렇다면,” 이사가 은근히 타일렀다. “양보하시오. 모를론은 아르센 뤼팽을 잘 모르지만, 과거에 그를 상대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잘 알고 있지요. 그 누구보다도 적합한 인물입니다.”

빅토르는 이사 쪽으로 다가가 있었다. 분명히 동요하는 모습이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수장님? 아르센 뤼팽이라니? 정말 확실합니까? 그자가 이 일에 관여했다는 확실한 증거라도 있는 겁니까?”

“물론 확실합니다. 아르센 뤼팽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가까스로 체포를 면했다는 사실은 아시지요? 그런데 은행에 맡겨졌던 노란 봉투는 은행장이 무례하게도 자신의 서랍에 넣어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스트라스부르의 한 산업자 소유의 금고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산업자가 9장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산업자가 봉투를 은행에 맡긴 다음 날, 그의 금고가 강제로 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열었을까요? 우리가 찾아낸 편지 조각들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바로 아르센 뤼팽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정말로 뤼팽의 것이었습니까?”

“宛名는?”

“그녀는 그의 연인처럼 보이는 여자와 함께 있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놓친 수표들이 은행 직원 중 한 명인 알폰스 오디그랑에게 훔쳐졌을 가능성이 크다. 흥미가 있다면 파리에서 그의 행적을 찾아주게. 나는 일요일 밤에 도착할 테니까. 나로선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오직 다른 사건, 즉 천만 프랑 사건만 생각하지. 이건 정말 움직일 만한 가치가 있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거든.’”

“서명은 없었나?”

“있었다. 보라. ‘아르. 엘.’이라고.”

고티에 씨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일요일은 바로 당신이 시네 발타자르에 갔던 날이고, 그곳에서 알폰스 오디그랑이 그의 연인과 함께 있었죠?”

“그곳에는 다른 여자도 있었습니다, 상사님. 아주 아름다운 여자ですよ. 의심할 여지 없이 오디그랑을 감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제가 밤에 본 사람입니다. 레스코 신부 살해 사건 직후 그녀가 도망치는 모습을 목격했죠.”

빅토르는 방 안을 오갔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 할 정도의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보통 언제나 차분하고 절제된 사람이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상사님, 그 저주받은 자에 관한 일이라면 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를 몹시 증오하는 것 같은데.”

“저요? 저는 그를 본 적도 없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릅니다. 그가 저를 아는 것도 아니죠.”

“그럼 대체 왜?”

“저도 모릅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반드시 정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지금은 현재에 집중합시다.”

그는 주저 없이 그날 아침까지의 모든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다. 가르슈에서 벌인 조사, 오토레이 부부와 제로메 부부, 그리고 에리스 마송 양과의 면담 내용까지. 특히 에리스 마송에 대해서는 신분증명서 사무실에서 받아온 명함 한 장을 꺼내 보였다.

“고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결핵 환자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죠. 동료들의 사물함에서 도둑질을 여러 번 저지른 탓에 불리에르베르제 극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어떤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그녀는 국제적 조직의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핵 2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고티에 씨의 태도에는 비크토르의 조사 결과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Mauléon 씨,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잘한 일이오.” 총경이 대답했다. 물론 그는 속으로 여러 가지 이의를 달았지만. “잘한 일이지만,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소. 원하시면 제가 직접 남작을 심문하겠소.”

“혼자서 하시오.” 빅토르는 평소처럼 거침없이 중얼거렸다. “저는 차에서 기다리겠소.”

한 시간 뒤, 몰롱이 남작을 차까지 데려다주며 빅토르에게 말했다.

“이 자와는 소용없어.”

“그럼, 엘리스 마송 아가씨 댁으로 가시죠?” 빅토르가 제안했다.

총경이 반대했다.

“아니, 저 여자는 감시 중이오. 압수수색은 오늘 오후에, 아니 우리 도착 전에 이미 이루어질 거요. 제 생각에는 더 시급한 일이 있소.”

“무슨 일?”

“피해 당시 가르슈 시의원이자 도트레의 소유주였던 귀스타브 제로姆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질문은 그의 아내가 스스로 던진 것이고,

저도 성클루에 사는 부동산 중개상이자 그의 친구인 펠릭스 드발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방금 그의 주소를 알아냈거든요.”

빅토르는 어깨를 으쓱하며 모를레온 옆 운전석에 앉았다. 도트레와 한 형사가 뒷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성클루에서 두 경찰은 그의 사무실에서 펠릭스 드발레를 만났다. 그는 키가 크고 갈색 피부에 수염을 깔끔하게 다듬은 사내였다. 경찰의 첫 마디에 그는 킁킁 웃으며 말했다.

“아, 내 친구 제로뭉을 상대로 무슨 음모가 꾸며지고 있단 말인가? 오늘 아침부터 아내의 전화가 왔고, 그 뒤로는 기자들이 두 번이나 찾아왔네.”

“무슨 일 때문이에요?”

“그가 목요일 밤, 즉 그제저녁에 들어온 시각에 대해선 어땠나요?”

“물론이죠. 진실을 말했죠. 그가 제 집 앞에서 내려주실 때 시계는 정확히 열한 시 반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아, 그런데 정작 그의 아내는 남편이 자정이 넘어야 집에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더랍니다.”

“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질투에 사로잡힌 여인처럼 그 소리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죠. ‘열한 시 반 이후에 뭘 했냐? 어디에 있었냐?’ 하고. 그러자 사법당국이 개입하고, 기자들이 제 집으로 몰려

들더니, 그 시간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불쌍한 가스 트가 용의자로 몰리게 된 거예요.”

그는 배꼽을 잡고 크게 웃었다. 가스트라니, 도둑이자 살인범이라 니! 파리를 밟으면 파리 한 마리도 밟지 않을 법한 순한 사람이 말이다.

“당신의 친구가 조금 취한 상태였나요?”

“아, 별일 아니에요. 머리가 잘 어지러우시더군요. 심지어 저를 여기서 500미터 떨어진 ‘카레포르 에스타미네’까지 데려가자고 했어요. 그곳은 자정이 돼서야 문을 닫는다고 하던데. 참, 가스트브라니!”

경찰 두 사람은 곧장 그 에스타미네로 향했다. 그곳 종업원들은 이 틀 전 밤, 열한 시 반쯤에 그 집 단골손님인 구스타브 제롬 씨가 커멜 리큐르 한 잔을 마시러 왔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점점 더 중요한 의문이 떠올랐다. “구스타브 제롬은 밤 열한 시 반부터 자정까지 대체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오토레이 남작을 그의 집 문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호송하던 형사도 돌려보냈다. 그리고 몰롱은 제롬의 빌라까지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부부는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점심이나 먹자. 시간이 꽤 지났군.” 몰롱이 말했다.

그들은 스포츠에서 점심을 먹었다. 거의 말도 섞지 않았다.

빅토르는 침묵으로, 그리고 불쾌한 표정으로, 형사의 걱정거리가 얼마나 유치하게 느껴지는지 여실히 드러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몰롱이 외쳤다. “저 남자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어떤 남자?”

“구스타브 제롬.”

“구스타브 제롬? 내겐 두 번째 문제야.”

“하지만, 젠장, 내 계획을 말해 봐!”

“엘리즈 마송에게 곧장 가는 거야.”

“내 계획은?” 몰롱이 재빨리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리며 말했다. “오토레 백작을 만나러 가는 거야. 가자.”

“가자.” 빅토르가 동의했다. 그의 어깨를 으쓱거리는 동작이 더 커졌다.

형사는 보도에 배치되어 집 앞을 지켰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랐다. 몰롱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려던 순간, 아래서 누군가 그들을 불렀다. 한 순경이 발길질을 재촉하며 뛰어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빅토르가 방귀덩이 거리 엘리스 마송의 집을 감시하라고 맡긴 두 사이클리스트 중 한 명이었다.

“어떻 된 일이오?” 그가 물었다.

“살해당했어요. 아마도 질식사했죠.”

“엘리스 마송이요?”

모를론은 참을성이 없는 성격이었다. 가비야르 대로에서 작전을 시작해야 한다는 동료의 주장을 무시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갑자기 분노에 휩싸였다. 누구에게 화를 풀어야 할지 몰라, 오토레 부부가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소리쳤다. 분명히 그들에게 반응을 유도해, 그걸로 무언가 얻어내려는 의도였다.

“그녀가 죽었어! 그게 문제야! 왜 그녀가 겪고 있는 위험을 알려주지 않았어, 불쌍한 여자가? 만약 그녀가 죽었다면, 오토레, 당신이 그녀에게 증권을 맡겼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 있었지. 누구지? 지금이라도 우리를 도와줄 생각은 없어?”

빅토르가 끼어들려 했지만, 모를론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럼, 뭐? 장갑을 끼라는 거야? 나는 그런 습관이 없어. 도트레이 부인이 살해당했잖아. 내가 묻는 건 간단해. 그가 우리에게 단서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말이야. 그리고 지금 당장! 지체 없이!”

반응이 있었는가? 도트레이 씨에게는 없었다. 그는 멍하니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 애쓰는 표정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가브리엘 도트레이는 벌떡 일어섰다. 몸이 굳어붙은 채 남편을 바라보며 항변이나 반발, 아니면 최소한 놀람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녀는 거의 쓰러질 뻔한 기색으로 기댔 수밖에 없었다.

모를론이 말을 멈추자, 그녀는 헛간거렸다.

“당신은 애인이 있었어요… 당신! 당신, 막심! 애인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파리로 가시는 거였군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이를 되풀이했다. 흥조를 띠던 뺨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연애 상대라니… 연애 상대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너한테 연애 상대가 있었다니!”

마침내 그는 신음하는 듯한 어조로 대답했다.

“용서해 줘, 가브리엘… 어떻게 된 일인지 나도 몰라… 그런데 그 여자가 죽었어…”

그녀는 십자 성호를 그었다.

“죽었다니…”

“들었지? 지난 이틀 동안 벌어진 일들은 모두 끔찍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악몽이야…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지?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체포하려고 하는 거야?”

그녀가 몸을 떨었다.

“너를 체포한다고?… 넌 미쳤나 봐… 너를요, 체포한다고!”

그녀는 절망에 찬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무릎을 꿇고, 합장한 손을 쪽 뺨으며 경찰서장에게 간청했다.

“아니요, 아니요… 당신은 그런 권리가 없어요… 제가发誓(맹세)하건대, 그는 무죄예요. 뭐요? 레스코 신부 살해 사건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는 제 곁에 있었잖아요… 제 영혼의 구원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가 저를 안아주었고, 그리고… 그리고… 저는 그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네, 그의 품에서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은죠? 그것은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녀는 몇 마디 더 더듬거렸지만, 이내 목소리가 고갈되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모든 것, 배신당한 여자의 슬픔, 공포, 기도, 그리고 실신. 모두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반응이었다. 그녀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막시무 드 오토르이는 울고 있었다. 그녀를 돌볼 생각은커녕 말이 다. 잠시 후, 반쯤 깨어난 그녀도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

모를롱은 빅토르의 팔을 꺼쥐고 그를 끌고 나갔다. 현관에서는 늙은 하녀 안나가 문틈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저 사람들에게 오늘 밤까지, 아니 내일까지도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오. 아랫층에 경계원이 서 있어서 만일 움직이려 들면 바로 제지할 테니까.”

차 안으로 들어선 모를롱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 누가 알겠나! 나는 그런 연극배우들을 수없이 봐왔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이 오즈자르 거리 모퉁이에 모인 군중을 헤치고 집안으로 들어설 때, 모를롱의 분노는 여전했다. 반면 빅토르는 차분했고, 스스로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었다.

그가 전해 들은 정보와, 직접 확인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았다.

오후 한 시. 세 번째 층 복도에서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압수 수색에 나선 형사들은 거리의 순찰 사이클리스트들에게서 정보를 입수했다. 엘리자베스 마송 소녀는 아직 건물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형사들은 가장 가까운 도공집을 찾아가 열쇠를 빌려 왔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곧장 침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소녀는 침실의 소파 침대 위에 엎드려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팔은 굳어 있었으며, 손목은 저항하던 힘 때문에 거의 비틀린 상태였다.

피는 한 방울도 없었다. 무기 흔적도, 가구나 소품이 어지럽게 흩어진 흔적도 없었다. 다만 얼굴은 부어올랐고, 검은 반점들이 가득했다.

“의심스러운 반점들입니다.” 법의학자가 단정했다.

“목이 졸려 죽은 것입니다. 밧줄이나 수건, 혹은 스카프 같은 것으로요.”

빅토르는 즉시 눈치챘다. 피해자가 항상 두르고 다니던 주황색과 초록색 스카프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주변에 물었지만, 아무도 그 스카프를 본 사람이 없었다.

이상하게도 서랍이나 유리장장은 손대지 않은 채였다. 빅토르는 여행 가방과 트렁치를 다시 찾아보았다. 아침에 놔둔 그대로의 상태였다. 이는 살인자가 방위채권을 찾지 않았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 채권이 아파트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일까?

관리인을 질문하자, 그녀는 자신의 다락방 위치가 좋지 않아 들어오거나 나가는 사람들을 항상 명확히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가 많아서 지나가는 사람도 많았다는 것이다. 결국 그녀는 아무 이상 징후도 목격하지 못했고, 어떤 단서도 제공할 수 없었다.

모를론은 빅토르를 따로 불러냈다.

그가 전한 이야기는 이렇다. 오층 거주자 한 명이 정오 직전, 2층과 3층 사이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그 여자는 계단을 아주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3층의 한 문이 방금 닫히는 것을 목격했다.

그 여자는 소박하게 차려입었다. 작은 부르주아 여성 같은 복장이었다. 얼굴은 가려져 있어 자세히 볼 수 없었다.

모를론이 덧붙여 말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사망 시각은 오전 중반쯤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두세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살인자가 반드시 만졌을 물건들에서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흔적이죠.”

빅토르는 한쪽 구석에 앉아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한 형사가 방 안을 철저히 뒤지고 있었다. 그는 꼼꼼하게 각자품을 들어 올리고, 벽을 훑어보며, 커튼을 흔들어 확인했다.

납아빠진 나뭇줄 엮은 담배갑 하나도 열려 비워졌다. 안에는 형편없는 사진이 열 장가량 들어 있었다.

빅토르도 그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그것들은 소일거리 삼아 찍은 amateur 사진들이었다. 친구들끼리 놀러 갔을 때 찍는 그런 사진들.

엘리즈 마송의 동료들, 극단 여배우들, 작은 옷가게 여직원들, 백화점 점원들……

그런데 담배갑 바닥을 받치던 실크 천 조각 밑에서, 그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네 번 접혀 있던 그 사진은 다른 것들에 비해 훨씬 잘 찍혔다. 비록 같은 종류였지만 말이다.

그 순간, 빅토르는 거의 확신했다. 이 사진이 바로 ‘시네 발타자르’와 ‘라 비코크’에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를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그는 케이스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4장

사법경찰청장이 소집한 회의가 열렸다. 지정된 심판관 발리두의 집 무실에서였다. 그는 방금 ‘라 비코크’에서 돌아온 참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조사를 시작하고 증언들을 모아두었다.

회의는 제법 혼란스러웠다. ‘국방채권’ 사건이 이미 두 차례나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신문들은 발각 뒤집혔다.

그런데 여기에 아르센 뤼팽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모순되는 사건들의 소란과, 믿기 힘든 추측들, 근거 없는 비난, 그리고 선정적인 루머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이 떠올랐다.

이 모든 것이 단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다. 매일마다 반전이 찾아왔다.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성공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이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직접 마를론 경위의 보고를 들으러 왔다가, 각자의 주도로 긴급한 호출이 들어오자 자리를 떴다.

“빠르게 행동이라니.” 발리두 씨가 중얼거렸다. 그는 평온하고 결단력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바로 그런 신조를 가지고 있었다. 즉, 사건에 휘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빠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에 뛰어들자마자 모든 현실은 산산이 흩어지고, 모든 확신은 무너진다. 서로 다른 주장들이 맞서는데, 모두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동시에 모두 취약하기 짝이 없다.

우선, 방위채권 절도와 레스코 신부 살해 사이에 결정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었다. 알폰스 오디그랑과 타자기 치는 에르스틴은 자신들이 중간 매개자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샹생 부인은 끝까지 항변했다. 비록 그녀가 레스코 신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이 입증되었지만, 노란 봉투의 행방은 그 지점에서 끊겨 버렸다.

결국 오토레이 남작에게 불리한 정황은 많았지만, 그가 왜 그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그리고 또 하나. 레스코 신부 살해와 에리즈 마송 살해 사이에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요약하자면, 모든 사건은 빅터 형사의 집요한 추리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Mauléon 총감이 말했다.

“지난 일요일, 시네 발타자르에서 출발해 오늘, 쉬지 않고 에리즈 마송의 시체 곁에 다다랐으니 말이다. 결국 우리에게 강요되는 것은 그의 해석일 뿐이다.”

빅터 형사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대답했다.

이런 뒷담화 회의는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는 묵묵히 입을 다물었고, 그 침묵이 논쟁을 끝내게 했다.

일요일이 되자, 빅토르는 옛 경시청 소속 요원 한 명을 자기 집으로 보냈다. 정년 퇴임 후에도 경시청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다. 신망과 공로가 높았기에, 퇴임 이후에도 여전히 임용되어 일했다.

노장 라르모나였다. 그는 빅토르에게 온전히 헌신하며, 그를 우러러 보았다. 그리고 빅토르가 맡기는 미묘하고 어려운 임무라면 언제든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엘리즈 마송의 생활상을 가능한 한 치밀하게 조사해.” 빅토르가 말했다. “그녀에게 더 친밀한 친구가 있었는지, 혹은 막심 도트레이 외에 더 가까운 사귀이 있었는지도 꼭 파악해 봐야 해.”

월요일, 빅토르는 가르쉬로 향했다. 검찰은 아침에 에리즈 마송의 아파트에서 조사를 마친 뒤, 오후에 빅토르의 지시에 따라 비코크의 살인 사건을 재구성했다.

소환된 도트레이 남작은 태연한 척하며, 자신에게 가해진 혐의를 격렬하게 부인했다. 그의 방어는 주변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행 다음 날 북역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두 개의 짐을 싣은 가방과 회색 모자는, 그에게 가해진 가장 심각한 의심을 뒷받침했다.

법관들은 부부를 한자리에 불러 함께 심문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작 부인이 소환되었다.

작은 ‘비코크’ 방에 그녀가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눈은 부어올랐고, 볼에는 피가 날 때까지 긁힌 자국이 있었다. 턱도 일그러진 채, 그녀는 굵신거리며 서 있었다.

그때 바로 옆에서 그녀를 부축하던 노종숙 Anna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남작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는 소리쳤다.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저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판사님. 제가 그들을 떼어놓지 않았더라면, 저를 때려 죽였을 거예요. 판사님,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 미쳐버린 거죠. 아무 말도 없이, 귀먹은 사람처럼 팔을 휘두르며 때렸어요.”

막시드 드 오프레이는 해명을 거부했다. 남작 부인은 지친 목소리로, 단편적인 진술만 이어갔다. 자신은 그 일의 이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둘이 친절한 친구처럼 수다를 떨던 순간,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이다.

“그가 너무 불쌍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죠. 그가 결코 저를 때린 적은 없어요. 그 점만큼은 그를 너무 심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반면 그는 눈이 붉어지고,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며, 열 살은 더 늙어 보이는 표정으로 흐느끼고 있었다.

빅토르가 남작 부인에게 질문을 던졌다.

“여전히 말씀하시길, 목요일 밤 열한 시에 남편님이 집에 돌아오셨다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든 후, 남편님이 당신을 입맞춤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반시간 혹은 한 시간쯤 뒤에 다시 일어나지 않으셨는지, 확신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니까?”

“만약 그가 이미 자리에 없었다면, 내가 그의 품에 안겨 있었으니까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게다가……”

“게다가?”

그녀는 자주 하던 대로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한 시간 뒤, 아직은 반쯤 잠이 든 채로 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알잖아, 오늘은 내 생일이야.’”

“그래서?”

“그러자 그가 다시 나를 키스했죠.”

그녀의 소극적이고 수줍은 태도는 어딘지 모르게 애뜻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언제나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그녀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녀가 보여주는 진정성의 깊이가 아무리 깊더라도, 남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확신하는 척하며 적절한 어조를 찾아낸 것은 아닐까?

법관들은 여전히 고민에 빠진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를레 총감이 갑자기 나타나 상황을 뒤집었다.

그는 그들을 비코크의 작은 정원으로 불러내며 열정적으로 말했다.

“새로운 사실입니다. 두 가지, 아니 세 가지나 되네요. 첫째, 첫 번째 층 창문에서 빅토르 형사가 목격한 공범이 사용했던 사다리 말입니다. 이 사다리는 오늘 아침, 라 셀라 목장에서부터 부기발까지 내려가는 해안가 길가에 있는 버려진 정원에서 발견됐습니다. 도망친 여성, 혹은 도망친 이들이 성벽 너머로 던져놓은 것이겠죠. 저는 즉시 제조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사다리는 한 여성에게 팔렸는데, 그 여성은 바주르르 거리에서 에리즈 마송의 살해 사건이 일어나던 순간, 그녀의 숙소 근처에서 목격된 여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단서, 완료!”

말론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두 번째로.

오르페브르 가의 형사국에 한 운전기사가 찾아와 진술했다. 내가 직접 그 진술을 들었다.

금요일 오후, 레스코 살인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이었다. 그 운전기사는 뤽상부르 공원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캔버스 여행용 가방을 든 한 남자와 손에 여행 가방을 든 한 부인이 나타났다. 그들은 택시를 불러 ‘노르가르 역’으로 가자고 했다.

‘출발 시간부터 타시는 건가?’

‘네.’ 남자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기차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모양이었다. 역 근처에서 차를 탄 채로整整 한 시간을 기다렸다.

그제야 그들은 카페 테라스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운전기사는 그들을 보고 있었다. 지나가는 아이에게 저녁 신문 한 장을 사서 읽는 모습도 목격했다.

마침내 남자는 부인을 태워 집으로 돌려보냈다. 부인은 혼자 뒤탃부리로 돌아갔고, 두 개의 짐을 들고 발리야르 거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신원 확인 자료는?”

“바론과 그의 애인의 것.”

“시간은?”

“오후 다섯 시 사십오 분. 그러니까 그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 먹은 모양이다. 왜 바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외국으로 도망치는 계획을 접고, 마드리 외르 부인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는 직접 택시를 탔다. 그 택시는 곧 찾아낼 것이다. 그는 여섯 시 열차를 타고 가르슈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정정당당한 신사로서 사건에 맞서겠다는 각오로 모습을 드러냈다.”

“세 번째는?”

재판장 검사가 물었다.

“익명의 전화 신고였습니다. 시의원 거스타브 제로뮈를 지목하는 내용이었죠. 비크터 형사가 간과했던 그 단서에 내가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는지는 이미 아시죠. 전화를 걸어온 남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약 조사를 힘 있게 진행한다면, 제로姆 시의원이 ‘사페르 뒤 카레포르’ 주점에서 멈춰 선 뒤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요. 특히 그의 서재 책상을 수색해 볼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로姆 시의원과 그의 부인을 서재에서 만났다. 비크터와 몰롱이 자신을 소개하자, 제로姆 시의원은 팔짱을 끼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만큼이나 유쾌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야? 이 장난이 끝나질 않나? 사흘째 계속되는 이 상황을 당신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신문 기사에 내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 둘째 치고, 아는 사람들도 나를 보자마자 피하더군요! 헨리에트, 네가 우리 집안일을 남들에게 떠들고 다녔으니 이런 결과가 온 거야. 이제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어.”

폭풍처럼 화를 내던 빅토르를 본 헨리에트는 고개를 숙여 속삭였다.

“당신이 맞아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데발이 당신을 여자와 함께 끌고 다녔다는 생각에 제가 정신을 잃었거든요. 정말 바보 같은 실수예요. 게다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자정 훨씬 전에 집에 돌아왔으니까요.”

몰레온 수사관은 마호가니 책상을 가리켰다.

“당신 지갑에 이 서랍장의 열쇠가 있소?”

“물론이지.”

“열어주게. 부탁이네.”

“왜 안 되겠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서랍장을 열었다. 작은 서랍들이 여럿 드러났다. 모를롱이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중 한 서랍에는 검은 천 주머니가 들어 있었다. 끈으로 매듭을 지은 것이었다. 주머니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다.

모를롱이 말했다.

“스트리크닌이군요. 어디서 구한 거죠?”

“손쉬운 일이에요.” 귀스타브 제롬이 대답했다. “소롱에서 사냥을 하거든요. 해로운 짐승들을 없애기 위해요.”

“레스코 씨의 개가 스트리크닌으로 독살당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귀스타브 제롬은 거침없이 웃었다.

“그래서 뭐요?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나요? 제가 특권을 가진 건가요?”

앙리엠티는 웃지 않았다. 밝았던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서렸다.

“서재를 열어라.” 모를롱이 명령했다.

점점 불안해 보이는 제로르는 잠시 망설이다가 순종했다.

모를롱은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파일과 장부에 잠깐 눈을 떴었다. 그러다 브라우닝 권총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살펴본 뒤, 자로 총열의 지름을 재기 시작했다.

“일곱 발 장전식 브라우닝이군.” 그가 말했다. “아마도 7.65mm 구경일 거야.”

“7.65mm 맞습니다.” 제로르프가 단정했다.

“그렇다면 이 권총은 레스코 부인을 즉사하게 하고, 헤두앵 경위를 부상을 입힌 총알과 같은 구경이 되는군.”

“그게 제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제로르프가 외쳤다. “이 권총은 산 지 5년, 아니 6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시다.”

몰레온은 탄창을 빼냈다. 총알이 두 발 빠져 있었다.

commissaire는 재차 집요하게 물었다.

“총알이 두 발 빠져 있군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본 뒤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신사, 총열 안쪽에는 최근에 타버린 화약 자국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죠.”

귀스타브 제로르프는 오랫동안 당황한 채 서 있었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신사. 이런 증거가 스무 개라도 저에게 대항한다면 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범인이라면 이 서랍에는 스트리크닌이 없었을 것이고, 이 책상 위에는 총알이 두 발 빠져 있는 권총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설명할 게 없습니다. 살인이 새벽 한 시쯤에 저질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정원사 알프레드는 제 차고에서 서른 발썸 떨어진 곳의 방에 삽니다. 방금 전에도 그는 제가 열한 시쯤 집에 들어왔다고 단언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너머로 소리쳤다.

“알프레드!”

정원사 알프레드는 소심한 사람이었다. 대답하기 전에 모자를 손가락으로 스무 번이나 돌렸다.

물론이 성이 나서 물었다.

“자, 물었습니다. 주인이 차를 주차할 때, 그 소리가 들리나요? 네, 아니면 아니오?”

“음... 그제... 날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그날은 어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뭐라고요?” 구스타브 제롬이 외쳤다. “확신이 안 선다니요?”

몰롱이 끼어들어 정원사 쪽으로 다가가 엄숙한 어조로 물었다.

“속임수를 부리지 마라. 위증은 너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해. 그저… 그날 밤 차 소리가 들린 시각을 말이지.”

알프레드는 다시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침을 삼켰다. 코를 훌쩍이더니,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 시간 사십 분쯤… 아니, 한 시간 반쯤이었을지도요.”

그가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평온하고 유쾌한 모습의 제롬이 그를 문 쪽으로 밀어냈다. 엉덩이를 툭 치며 밖으로 내쫓은 것이다.

“빠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오늘 밤에 돈은 지급해 주마.”

그리고는 안도한 듯 돌아와 몰레옹에게 말했다.

“이제 좀 나아졌군. 마음대로 하라. 하지만 경고한다. 나한테서는 단 한 마디도 빼낼 수 없다. 알아서 잘들 해보라!”

그의 부인은 흐느끼며 그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그는 몰롱과 빅토르를 따라 비코크로 향했다.

그날 밤, 사법경찰청장 고티에 씨가 빅토르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자, 빅토르, 우리 진전이 있는 거야, 그렇지?”

“조금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상사.”

“설명해 봐.”

“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론에 만족을 줘야 했죠. 그건 끝났습니다. 모를롱 만세! 빅토르 물러나라!”

그는 상사를 붙잡았다.

“사건 다음 날, 남역에서 바론을 생라자르 역까지 태워다 준 운전수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상사.”

“무엇을 기대하는 거요?”

“국채 증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헐!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 여론은 만족했다. 비코크의 살인사건, 오제르가르 거리 살인사건, 그리고 보른 도난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가니마르 형사의 심문이 열렸다. 물론 아무런 답변도 나오지 않아 무의미한 심문이었지만. 그 결과, 드 오토레이와 제로메는 상테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언론이든 일반 대중이든, 모두 두 사람이 아르센 뤼팽이 주도한 광범위한 범죄의 공범이라고 단정했다. 두 사람과 뤼팽 사이에는 한 여성이 중재자 역할을 했을 터였다. 명백히 그의 애인일 것이다.

법정은 각자의 역할을 규명할 것이다.

‘어쨌든 생각해보니, 이 논리도 나쁘지 않아.’

빅토르가 혼자 중얼거렸다.

핵심은 뤼팽을 붙잡는 거다. 어떻게? 그의 애인을 통해서일 뿐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정말로 단 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시네 발타자르의 여주인, 비코크의 부인, 사다리를 산 여인, 그리고 엘리자스 마송의 집 층에서 마주친 여공. 이 네 사람이 실은 같은 여자라는 것을.

그는 자신이 가진 사진을 들고, 사다리를 팔았던 상점 직원에게 보였었다. 이어 그 여공을 목격한 집주인에게도 건넸다.

두 사람의 반응은 비슷했다.

‘만약 그녀가 아니라 해도, 정말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닮았소!’

저녁이 되자 라르모나가 일리스의 친구 한 명을 데려왔다. 고아 소녀의 쓸쓸한 장례식에 참석한 유일한 친구였다. 아르망두 뉘트렉. 잘 생긴 갈색 머리 여성으로, 솔직하고 단정한 성격이었다. 그녀는 음악

당에서 일리스와 친해져 자주 만나곤 했다. 그녀의 동료는 일리스를 늘 신비로운 존재로 여겼다. “불분명한 관계가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빅토르는 그녀에게 모든 사진을 살펴보라고 요청했다. 마지막 사진을 마주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아, 그 사진 속 인물! 본 적이 있어요. 키가 크고, 매우 창백하며, 잊을 수 없는 눈매를 가진 여성이었죠. 오페라 극장 근처에서 일리스와 약속이 있었어요. 일리스는 어떤 부인이 운전하는 차에서 내려왔는데… 그 부인이 맞아요. 확신합니다.”

“일리스가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하지만 한 번은 우체국에 넣으려던 그녀의 편지에서 주소를 엿본 적이 있어요. ‘프린세스’라고 시작하고, 이리저리 흐릿해서 제대로 읽지 못한 러시아어 이름, 그리고 콩코르드 광장의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그녀라고 확신합니다.”

“그건 언제쯤이야?”

“삼 주전이에요. 그 이후로 에리즈를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오프레이 남작과의 연애로 그녀가 바빴거든요. 게다가 몸도 좋지 않아서, 산속에서 요양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죠.”

그날 밤, 빅토르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에프 공주가 콩코르드 광장의 큰 호텔에 묵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편지는 상젤리제 거리 캠프브리지 호텔로 돌려보내졌다.

바실리에프 공주라니? 빅토르와 라르모나는 단 하루 만에 그 정체를 파헤쳤다. 파리에는 그 이름을 가진 러시아 명문가의 유일한 후손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와 형제들은 체카의 명령으로 학살당했고, 오직 알렉산드라 바실리에프만이 죽은 줄 알고 버려졌으나 살아남아 국경을 건넜다.

그녀의 가문은 유럽 곳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부유했고, 자신의 뜻대로 자유분방하게 살았다. 기이하고 야성적인 성격이었지만, 러시아 동포 사회의 몇몇 여성들과는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늘 ‘알렉산드라 공주’라고 불렀다. 그녀는 서른 살이었다.

라르모나트는 캠브리지 호텔에서 정보를 수집했다. 바실리에프 공주는 거의 외출하지 않았고, 종종 댄스홀에서 차를 마시며 호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녀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다.

어느 오후, 빅토르는 은밀히 오케스트라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우아한 군중들 틈에 자리 잡았다.

키가 크고 창백하며 금발의 한 여성이 지나가며 잠시 떨어진 곳에 앉았다. 바로 그녀였다.

맞아, 그녀였다. 시네 발타자르의 그 여인이자, 비코크의 창문 너머로 잠깐 보였던 그 환상이었다. 그녀가 맞았지만, 동시에……

처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두 여성은 같은 특별한 아름다움의 인상을 주지 못했고, 같은 맑은 눈빛과 창백한 피부, 그리고 같은 자태

를 지니지 않았다. 하지만 짙색의 곱슬머리는 빅토르의 기억 속에 ‘황갈색 머리’와 함께 연상되던 비극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제 그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두 번이나 다시 찾았지만, 처음 마주쳤을 때 느꼈던 절대적인 확신은 돌아오지 않았다. 반면, 가르슈에서 그 밤에 포착했던 그 비극적인 표정은 정말로 사정 때문이었을까? 범행과 위험, 그리고 공포가 만들어낸 결과였을까?

그는 엘리즈 마송의 친구를 불렀다.

이틀 후, 한 여행자가 캠브리지 호텔에 도착했다.

그는 제시된 신원 등록부에 이렇게 적었다. ‘마르코스 아비스토. 62세. 페루에서 왔다.’

누구도 이 신사에게 형사 빅토르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모던 브리강드(풍기단속반) 소속인 그는, 예전 준장교 시절의 단정하고 딱딱한 재킷을 입고 있어 외모가 전혀 친근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행자는 열 살이나 더 늙어 보였다. 머리카락은 온통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삶이 자신에게 베푼 은총과 특권만 가득한 듯한 온화한 인상이 서려 있었다.

그는 3층에 방을 배정받았다.

공주가 머무는 아파트는 그 층, 문이 열 개쯤 더 건너편에 있었다.

제5장

500개 객실을 갖춘 거대한 카라반사라이. 오후와 저녁이면 인파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마르코스 아비스토는 눈에 띄지 않을 명분을 충분히 가졌다. 그에게 특별한 관심은 끌리지 않았으니까.

그는 산만하고 자기 세계에 깊이 빠져 있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에프 공주에게도 쉽게 눈치채지지 않았다.

이 덕분에 그는 거의 끊임 없이 그녀를 감시할 수 있었다. 첫 사흘 동안, 그녀는 절대 호텔을 떠나지 않았다. 방문객도, 편지도 없었다.

만약 그녀가 외부와 연락했다면, 방 안의 전화기를 통했을 것이다. 빅토르가 동료 라르모나와 연락하던 방식과 똑같았다.

가니마르 형사가 가장 기다리던 순간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비록 그녀의 시선을 피했지만, 그는 눈을 떼지 않았다. 그 광景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세련된 외모를 하고 있었지만, 그는 상테 형무소 소속 형사로서는 허용되지 않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모험가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분개했다.

속으로 그는 중얼거렸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런 품격과 자질을 가진 여자가 루팡 같은 하찮은 자의 애인이 될 수 없어.”

그녀가 비코크의 도둑이자 보지르르 거리 살인범이라는 추측까지 받아들여야 할까? 부유하고 손이 가냘프고 희며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상류층의 여인이, 몇백만 프랑을 노리고 사람을 죽일 리가 없지 않은가.

네 번째 밤, 그녀는 홀의 한구석에서 담배를 몇 개비 피우고 복도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때 그는 그녀가 탈 엘리베이터에 미리 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자 그는 곧장 일어났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피했다.

다섯 번째 밤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우연인 양, 혹은 우연처럼.

그런 일이 자연스럽고도 매끄럽게 반복되자, 만약 스무 번이나 마주쳤다 해도 그는 여전히 그와 같은 정중한 무관심과 서로의 산만함을 유지했을 것이다. 그녀는 항상 엘리베이터 기사 옆에 서서 출입구를 바라보았다. 빅토르는 그 뒤를 바짝 따랐다.

여섯 번째 밤에는 우연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일곱 번째 밤, 빅토르는 정문을 닫으려는 순간에 나타났다. 그는 평소처럼 승강기 깊숙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삼 층에서 바실리예프 공주가 나와 오른쪽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다. 빅토르도 같은 쪽에 살았지만 더 멀리 있었다. 그는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가 텅 빈 복도를 열 발짝도 채 걷지 않았을 때였다. 그녀는 갑자기 목덜미를 만지며 발걸음을 딱 멈췄다.

빅토르가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팔을 거칠게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쪼개어 말했다.

“선생님… 제 에메랄드 머리핀을 누군가 훔쳐갔어요. 머리에 꽂고 있던 거였죠.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확신합니다.”

그가 몸을 뒤로 젖혔다. 그녀의 어조가 공격적이었다.

“죄송합니다, 마담.”

그들의 시선이 삼 초 동안 맞붙었다.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녀는 발길을 돌려 말했다. “아마도 떨어졌겠죠.”

역으로 그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실례합니다, 마담. 찾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누군가 당신의 머리를 만졌다는 걸 느끼셨습니까?”

“네, 그 순간은 신경 쓰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후에…”

“그렇다면 범인은 저이거나, 엘리베이터 기사뿐이겠군요.”

“아니요! 그 아저씨는 절대 그럴 사람이 못 돼요.”

“그럼 내가 범인이라는 건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제가 분명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헤어핀은 제 머리카락에 끼워둔 것이 아니었죠. 화장대에 두고 온 걸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그가 그녀를 붙잡았다.

“저희가 헤어지면 이미 늦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의심을 남기게 되죠. 저는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강력히 요청하는 바는, 우리가 함께 호텔 사무실로 내려가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대상이 저라도 말입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선생님. 필요 없습니다. 당신도 이 호텔에 묵고 있나요?”

“345호입니다. 마르코스 아비스토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되뇌며 자리를 떴다.

빅토르는 집으로 돌아갔다. 친구 라르모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결과는 어때?”

“됐습니다.” 빅토르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의 즉시 눈치챈 모양이에요. 그래서 충돌은 우리 사이에서 즉각 일어났죠.”

“그럼 어땠습니까?”

“그녀가 물러섰어요.”

“물러섰다고?”

“네.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클립을 꺼내 서랍 위에 올려놓았다.

“예상했던 반작용이 일어나면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네, 여보시요. 네, 저입니다. 클립 말씀이시죠?… 찾았다고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존경합니다, 마담.”

그는 수화기를 놓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화장대 위에서 이 서랍 속의 보석을 찾아냈습니다, 라르마 나 씨. 이는 결국 그녀가 고소하는 것을 주저하고, 스캔들을 피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석이 이미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물론이지.”

“그리고 그녀가 보석이 도난당했다고 추측하고 있다고?”

“네가 훔쳤다고?”

“그렇다면 그녀는 너를 도둑으로 여기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일이지.”

“네가 원했던 일이라고?”

“당연하지!” 빅토르가 외쳤다. “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거야?”

“음,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 계획은 아주 간단해! 공주의 관심을 끌고,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한 다음, 그녀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거야. 그녀가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만든 뒤, 그 신뢰를 통해 뤼팽에게 접근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시간이 꽤 걸리겠네.”

“그래서 나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나서는 거야. 하지만, 천만에, 신중함도 필요하고 손끝의 섬세함도 필요해! 하지만 그 작전이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 뒤펅을 감시하고, 그에게 다가가, 그의 동료가 되고, 그의 오른팔이 되어, 그가 찾는 천만 프랑을 손에 쥔 그날, 바로 나 빅토르, 풍기단속반의 일원이 그곳에 서 있는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나는 흥분으로 들끓어! 게다가...”

“빅토르, 또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이제 그만이야. 하지만 나는 눈을 가지고 있어. 볼 수 있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빅토르...”

“반대야! 그녀가 더 아름다울수록, 그 더러운 뒤펅이 더 불쾌해져. 그 불쌍한 녀석, 정말 운이 좋아!”

비쿠르는 이틀 동안 알렉산드라 바실리에프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보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 비쿠르는 그녀가 앉았던 테이블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보지 않을 수는 없었다. 옆모습은 매우 차분했고, 그는 단지 자신이 음미하고 있는 부르고뉴 와인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들은 로비에서 담배를 피웠다. 여전히 서로를 모르는 사이였다. 비쿠르는 지나가는 모든 남성들을 훑어보며, 그들 중 아르센 뤼팽의 체성을 드러낼 만한 우아함, 실루엣, 태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그가 성내며 찾고 있던 그 남자는 아무도 없었다. 어쨌든 알렉산드라는 이러한 모든 남성들에게 무관심해 보였다.

다음 날도 같은 프로그램, 같은 연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다음 날 저녁, 그녀가 식탁으로 내려오려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서로 아무런 제스처도 보이지 않았다. 각자는 상대방이 자신을 보지 못했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도, 공주님.’ 빅토르가 속으로 생각했다. ‘나한테 당신은 도둑맞은 여자일 뿐이야. 그런데 당신은 내가 도둑맞았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범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걸 입 밖에 내지 않는 걸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는 여자야. 귀부인의 무심함일까? 어쨌든 첫 번째 관문은 넘었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이틀이 더 흘렀다. 그러자 빅토르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의 계획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했다.

어느 날 아침, 호텔 1층에서 잠시 머물던 미국인 여성이 금화와 보석이 든 캐스트를 도난당했다.

『소방신문』 제2판은 이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된 정황을 보면, 범인은 놀라운 솜씨와 놀랄 만큼의 침착함을 드러냈다.

이 신문 제2판은 공주가 매일 저녁 식탁 위에 놓인 것을 무심코 넘겨 보곤 했다. 그녀는 첫 페이지를 스쳐 보더니, 본능적으로 빅토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범인은 바로 저놈이야.’

빅토르는 주시하고 있던 차,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녀가 그 미묘한 절도에 화답하는지 지켜보며 기다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더 세밀하게, 더 집중해서.

‘이제 나는 분류가 됐군.’ 그가 생각했다. ‘그리고 그 분류는 ‘대범한 절도범’, ‘호텔을 유린하는 도적’이다. 만약 내가 찾고 있는 여인이 바로 그녀라면, 나는 그녀에게 경외감을 심어줘야 한다. 내 용기가 얼마나 큰지 보라! 내 평정이 얼마나 깊은지! 다른 도적들은 일을 마치고 도망치고 숨는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연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빅토르는 젊은 여자를 먼저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녀가 평소 앉던 의자 옆에 놓인 혼자 있는 소파에 앉으며 그 연상을 도왔다.

그녀가 다가왔다. 잠시 망설이다가 소파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담배에 불을 붙여 몇 모금 빨아들이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손목을 들어 목덜미를 만졌다. 며칠 전 밤과 똑같은 동작이었다. 머리카락 사이에서 헤어핀 하나를 꺼내 들더니, 그것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보십시오, 선생님. 제가 다시 찾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군요.”

빅토르가 주머니에서 자신의 핀을 꺼내 보였다.

“저도 방금 이것 다시 찾았거든요.”

그녀는 당황했다. 이런 반격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자백이나 다름없었다. 평소 남을 지배해 오던 그녀로서는, 자신의 도전을 받아드는 상대와 부딪혔을 때 느끼는 수치심이 깊게 밀려왔다.

“결국, 마담. 그분은 한 쌍이었군요. 두 개의 핀이 모두 그녀의 손에 남아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쉽군요.” 그녀가 재떨이에 담배 불을 꼭 꼭 눌러 끄며 말을 끊었다.

다음 날, 그녀는 같은 장소에서 빅토르를 다시 만났다. 팔과 어깨는 드러났고, 태도도 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다. 그녀는 거리낌 없이, 그리고 거의 외국어 억양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프랑스어로 이렇게 물었다.

“제 모습이 좀 이상하고 복잡해 보이시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당신은 러시아 공주라고 들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러시아 공주는 그리 안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제 삶이, 제 가족의 삶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아세요? 더 참혹했던 건, 우리가 원래 너무 행복했다는 점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죠.

자신감 넘치고, 걱정 없이, 상냥하고, 솔직했던 어린 소녀. 모든 것에 즐거워하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항상 웃고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행복 속에서, 열다섯 살 약혼녀였던 저에게 불행이 닥쳤어요. 마치 돌풍처럼 갑자기 말입니다. 제 눈앞에서 부모님이 목이 베였죠. 형제들과 약혼고도 고문을 당했고… 그러면서 저는…”

그녀가 이마에 손을 올렸다.

“그건 말하지 말자. 기억하고 싶지 않아.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나는 결코 평정심을 되찾지 못했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평온을 알지 못해. 설령 되찾는다 해도, 내가 그걸 견딜 수 있겠니? 아니, 나는 이미 소동과 불안에 취해 버렸으니까.”

“그 말은, 즉 공포스러운 과거를 기억하며 당신은 강렬한 감정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군요. 그래서 우연히 당신의 길에 서 있는, 그리 종교

적이지 않은, 조금은 규칙에서 벗어난 남자가 나타나면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

“오, 신의 이름으로요! 당신은 수많은 위험을 넘기고, 여러 가지 드라마 같은 사건들을 목격했죠. 그래서 지금도 당신 주변에 드라마 같은 분위기가 감돌고, 당장이라도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당신을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그 사람의 얼굴에서 불안이나 공포의 징후를 찾아내려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즐겁게 담배를 피우고 있고 목소리에 떨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당신은 의아해하는 거죠.”

그녀는 열렬히 그의 말을 경청하며, 그에게 몸을 기울여 그를 바라보았다.

“특히 말씀드리지만, 마담. 그런 인간들에게 지나친 관용을 베풀지 마십시오. 그들을 인간성의 모범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대답할 뿐입니다. 신경이 더 예민하면서도 더 복종하기 쉬운 거죠. 습관과 통제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라도?”

그가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요?” 그녀가 그의 명령에 따르며 속삭였다.

“저기 저쪽, 왼쪽을 거닐고 있는 그 웃기게 생긴 큰 남자, 턱시도 입은 사람 보이시죠?”

“누구죠?”

“경찰입니다.”

“뭐요!” 그녀가 깜짝 놀라며 외쳤다.

“모를론 경찰서장입니다. 그는 캐시박스 도난 사건 수사를 맡고 있고, 사람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팔을 기댄 채, 숨으려는 기색 없이 손바닥을 펼쳐 이마를 가렸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빅토르의 표정을 살폈다. 위기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가세요. 숨으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왜 가야 합니까? 자, 그 녀석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아세요? 몰롱? 바보예요… 저를 오싹하게 만드는 건 단 한 명뿐입니다.”

“누구죠?”

“하급자요… 빅토르라는 이름의 사내예요. 풍기단속반 소속.”

“빅토르… 풍기단속반… 그 이름을 본 적이 있어요.”

“바로 그 녀석이 몰롱과 함께 방위채권 사건, 비코크의 살인 사건, 그리고 총살당한 엘리자스 마송의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 빅토르가 어떤 사람인가요?”

“나보다 키가 작군. 서커스단의 기사처럼 조이는 재킷 차림. 눈빛만으로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속속들이 꿰뚫어 보는 눈초리. 저 녀석은 경계해야 해. 반면 모를롱은…… 자, 봐. 저기 우리 쪽을 주시하고 있잖아.”

사실 모를롱은确实, 주변 사람들을 한 명씩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공주에게 멈췄다. 이어 빅터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더 멀리 시선을 돌렸다.

그것이 그의 감시 마지막이었다. 그는 자리를 떴고 멀리 걸어갔다.

공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힘尽한 듯 보였다.

“이제 끝났군.” 빅터가 말했다. “그는 자기 임무를 다 마쳤다고 생각하겠지. 독수리 같은 눈초리를 피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믿을 테니까. 아, 보세요, 마담. 만약 제가 궁전 같은 곳에서 흠친다면, 절대 자

리를 뜨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일한 바로 그곳에서 누가 나를 쫓아오겠어요?”

“그렇지만 모를롱은……?”

“오늘 그가 찾는 게 반지갑 도둑만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럼 누구를요?”

“비코크와 오주아르 거리 사람들 말이에요. 그는 그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들한테는 그 일이 집착이 되어버린 거죠.”

그녀는 리큐어 한 잔을 쪽 들이키더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창백하면서도 아름다운 얼굴에서 다시 자신감이 돌아왔다. 하지만 빅토르는 그녀의 깊은 내면에서 어떤 생각의 소용돌이가 일고, 병적인 쾌락처럼 그녀를 짓누르는 공포가 감지되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빅토르는 처음으로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슬쩍 눈을 마주쳤다는 느낌을 받았다.

멀리서 두 신사가 앉아 있었다. 한 명은 얼굴이 붉고 다소 평범한 외모였는데, 아마 영국인일 터였다. 빅토르는 이미 로비에서 그를 눈여겨본 바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는 바로 빅토르가 뤼팽에게서 찾아냈던, 우아함과 태연무심함의 자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었다.

그는 동료와 함께 웃고 있었다. 표정은 밝고 친근했지만, 가끔씩은 다소 날카로운 인상을 풍겼다.

알렉산드라 공주가 다시 그를 관찰하더니, 고개를 돌려서는 자리를 떴다.

다섯 분 뒤, 두 사람은 다시 일어났다.

현관 복도에서 젊은이가 시가를 하나 피웠다. 모자와 외투를 가져오게 한 뒤, 호텔을 나섰다.

영국인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자 빅토르가 탔다. 그리고 종업원에게 물었다.

“아까 올라간 그 분 이름이 뭐지? 영국인이었지?”

“337호 손님 말씀이세요?”

“비미스 씨라고.”

“이미 꽤 오래 묵으신 분 같은데요? 아니요?”

“네… 보름쯤 됐을까요.”

그렇다면 그 분은 바실리에프 공주와 같은 시기에, 같은 층에 묵고 있었던 셈이다. 지금 방금, 왼쪽으로 돌아 337호로 향하는 대신, 오른쪽으로 돌아 알렉산드라를 만나러 갔을까?

빅토르는 발소리를 죽이며 그녀의 방을 지나쳤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살짝 열어 둔 채 귀를 기울였다.

다음 날 오후, 빅토르는 라르마나를 불렀다.

“모를레옹과 연락을 취하고 있나?”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는 모른다고?”

“어제 밤 그 캐셋 사건 때문에 그가 찾아온 거야?”

“네, 사건은 호텔 짐꾼이 저질렀습니다. 그는 동료가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동범자는 도망쳤습니다. 모를레옹은 그 캐셋 사건과는 완전히 별개의 작전에 몰두해 보이는군요. 오늘 오후에는 아르센 뤼팽의 무리가 모인 바를 포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 조각에 언급된 천만 프랑의 유명한 사건이 바로 거기서策划되고 있죠.”

“오호, 그 바의 주소는?”

“마울롱에게 주기로 했어. 곧 장악할 수 있을 거야.”

빅토르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에프 호텔에서의 일을 라르모나에게 전했다. 그리고 빔시라는 영국 사람 얘기도 덧붙였다.

“그는 매일 아침 나가서 보통 저녁에 돌아온대. 네가 그 뒤를 밟아보게. 그전에 그의 방을 좀 뒤져봐.”

“말도 안 돼요. 경찰청의 허가나 영장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말장난은 그만두게! 경찰청이 개입하면 모든 게 망쳐져! 뤼팽은 도트레이 남작이나 구스타브 제로姆 같은 존재가 아니야. 그를 처리하는 건 오직 나뿐이야. 그를 체포해 넘기는 손은 내 손이어야 해. 이건 내 일이야. 내 책임이야.”

“그럼 어떡하죠?”

“오늘은 일요일이군. 직원도 적으니 조심만 하면 눈에 띄지 않을 거야. 걸리면 신분증만 보여줘. 남은 문제는 열쇠뿐이야.”

라르모나가 웃으며 열쇠 뭉치를 내보였다.

“그건 내가 맡지. 좋은 경찰은 도둑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알아야 해. 337호 맞지?”

“그래. 그리고 절대 물건을 건들지 마. 영국인이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돼.”

문을 살짝 열어 둔 채 빅토르는 그를 따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빈 복도 끝까지 간 그가 멈춰 서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까지.

반 시간이 흘렀다.

“어떻게 됐어?” 그가 돌아오자 물었다.

상대는 눈짓으로 답했다.

“역시 넌 눈이 밝군.”

“무슨 단서를 찾았어?”

“셔츠 더미 한가운데, 스카프가 있었어요. 주황색에 초록색 무늬가 큰 스카프였죠. 구겨져 있었지만…”

빅토르의 심장이 요동쳤다.

“엘리즈 마송의 스카프… 내가 틀리지 않았어.”

“그런데 그 영국인이 러시아 여자와 손을 잡은 것 같으니, 바쥐아르 거리로 온 건 바로 그녀일 거예요. 혼자 왔을 수도 있고, 빔시라는 영국인과 함께 왔을 수도 있고.”

저녁 식사 한참 전, 빅토르는 거리로 내려가 ‘소문의 종’ 신문의 제2판을 샀다.

이 페이지의 큰 글씨로 그가 읽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마지막 보도다. 마를로 총감과 그의 형사 세 명이 오늘 오후 마르보 거리 어딘가 바를 포위했다. 그들의 정보에 따르면, 이 바는 국제적 사기꾼 무리가 모이는 곳이다. 특히 영국인들이 자주 찾는다.

그들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두 명은 뒷문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그중 한 명은 중경상을 입은 채였다. 나머지 세 명은 체포됐다.

일부 단서는 아르센 뤼팽이 이 세 명 중 한 명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스트라스부르에서 그의 새로운 정체를 눈치챈 이동 형사대의 형사들이 출동할 예정이다.

아르센 뤼팽의 인적 기록은 신분증명국에서 도난당해 존재하지 않는다.

빅토르는 옷을 차려입고 식당으로 향했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에프의 식탁 위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늦게 도착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전혀 걱정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식사를 다 하고 나서야 비로소 『르 피유』 지를 펼쳤다. 첫 페이지를 훑어본 뒤,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자 그녀의 고개가 기울어졌고, 의자 위에서 흔들거렸다. 몸을 굳힌 그녀는 다시 글을 읽었고, 마지막 줄에 다다랐을 때 빅토르는 그녀가 쓰러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 잠시 의식을 잃은 듯했지만 곧 회복되었다. 그녀는 신문을 무심하게 치웠다. 단 한 번도 빅토르를 올려다보지 않았기에,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녀는 믿을 수 있었다.

홀에서 그녀는 그를 따라가지 않았다.

영국인 빔리시가 거기에 있었다.

마르보프 거리에 있는, 호텔과 아주 가까운 그 술집에서 모레옹의 손아귀를 빠져나간 사기꾼 중 한 명이 아닐까?

그가 바실리에프 공주에게 아르센 뤼팽에 대한 소식을 전해줄지도 모를 일이었다.

만약을 대비해 빅토르는 먼저 올라가 문짝 뒤에 숨어 자리를 잡았다.

러시아 여자가 먼저 나타났다.

그녀는 자기의 방 앞에서 서성였다. 조급하고 신경질적인 모습이었다.

영국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그는 복도를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그러더니 재빨리 그녀 쪽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몇 마디 말을 나눴다.

그러자 러시아 여자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영국인은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래, 생각해보니,' 빅토르는 생각했다. '정말 그녀가 그 저주받은 뤼팽의 애인이라면, 그는 지금 체포망을 빠져나온 모양이야. 그리고 영국인이 그녀를 안심시켜준 게 분명해. 그래서 저런 웃음이 나온 거지.'

이후 경찰의 진술은 이 추측을 뒷받침했다. 아르센 뤼팽은 잡힌 세 사람 중 누구도 아니었다.

이들 세 명은 러시아인이었다. 그들은 해외에서 저지른 몇몇 절도 사건에 가담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자신을 고용한 국제 조직의 두목 이름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도망친 두 동료 중 한 명은 영국인이었다. 나머지 한 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회의 중에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부상당한 자가 바로 그 사람일 것이다. 그의 외모 특징은 빔시와 함께 호텔에서 본 젊은이의 특징과 일치했다.

이 세 러시아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분명히 그들은 조연에 불과했다.

사흘 뒤,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다. 세 러시아인 중 한 명이 전 무용수 엘리즈 마송의 연인이었고, 그녀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오드레이의 노장’이 지금 ‘큰 장사’를 꾸미고 있군. 성공하면 내일 바로 브뤼셀로 데려가겠어. 너도 거기서 나를 기다릴 거지, 내 사랑?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는 거금을 안고 둘이서 달아날 테니까. 하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제6장

마르보 거리 사건은 빅토르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비코크 살인사건이나 보지르아르 거리 사건 같은 건 그에게 관심 밖이었다. 이런 두 가지 사건은 오직 아르센 뤼팽과 연관될 때만 그의 관심을 끌었을 뿐이다.

하지만 마르보 거리 사건은 달랐다.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영역이었다. 이 사건은 모험가 단속반 소속 형사 빅토르가 독점하겠다고 마음 먹은 전리품이었다.

그 결과, 빅토르 형사는 뤼팽과 관련된 모든 수사를 독점했다. 특히 영국인 비미시와 바실리예프 공주에 대한 조사는 그의 독점 영역이었다.

이런 생각들이 그를 몰아갔다. 상테 형무소 뤼팽이 감옥에서 빠져나와 다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그는 루앙의 감옥에서 탈출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지금, 파리의 상테 형무소로 다시 돌아갈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상테 형무소 앞 광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그리고 몰레옹의 계략을 파헤쳐 보려 했다. 알렉산드라와 그녀의 대리인 비미시도 이토록 위험한 시기에 방을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걸어서 근처 차고로 향했다. 자신의 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시동을 걸고 부아드르의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자신이 뒤를 따라오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자, 그는 트렁크에서 필요한 재료와 옷가지를 꺼냈다. 너무 타이트한 도르마ンを 입고 갑옷을 입은 듯 단단히 무장했다. 그리고 다시 상테 형무소의 빅토르 형사가 되었다.

몰레옹의 친절한 환영과 보호적인 미소 앞에, 빅토르는 굴욕감을 느꼈다.

“자, 빅토르. 뭐라도 가져왔나? 별것 없지? 아, 아니, 묻는 게 아니야. 넌 혼자 다니고 말수도 적은 사람이야. 각자 방법이 있는 법이야. 나는 정면으로 나가. 그 결과도 나쁘지 않아. 마르보프 백작의 술집에서 거둔 성과는 어때? 무리 셋을 잡았지. 두목도 곧 잡힐 거야. 하느님 앞에 맹세하노라. 이번엔逃겼더라도, 이번 수사로 그 무리와 엘리즈 마송이 연결됐어. 그리고 엘리즈 마송은 무덤 속에서 도트레이 남작을 고발하고 있어. 고티에 씨는 매우 만족해하고 있지.”

“검사국장은 뭐라고 하나?”

“발리두 씨요? 용기를 내자. 그에게 가자. 발리두는 드로에 남작에게 엘리자스 마송의 끔찍한 편지를 알려줄 거야. ‘구 드로에 남작이 큰 거

래를 꺾하고 있다’는 그 편지 말이지. 어때? 내가 증거 자료로 뭘 집어 넣었는지 알아? 바로 그거야. 추의 한쪽을 무겁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자, 가자, 빅토르.”

그들은 판사의 서재에서 드로에 남작과 시의원 제로므를 만났다. 드로에 남작의 모습을 본 빅토르는 깜짝 놀랐다. 이미 체포 당시 망가져 있던 얼굴이 더 심하게 패이고 깊게 파인 채였기 때문이다. 그는 서 있을 힘도 없이, 의자에 주저앉아 꿈쩍도 하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 있었다.

발리두의 공세는 가혹했다. 그는 엘리자베스 마송의 편지를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피고의 놀란 얼굴을 보자마자, 그의 노력은 더욱 거세졌다.

“자, 드오트레씨,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월요일 밤, 우연히 ‘방어 채권’이 레스코 아저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요일 밤, 즉 살인 사건 전날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함께 보내는 엘리자베스 마송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비밀이 없는 그 여자, 동시에 러시아 해적의 연인이기도 한 엘리자베스가 연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노인 드오트레가 큰 일을 하나 일으키고 있네. 성공하면 나와 그 자는 브뤼셀로 도망칠 거야, 등등...”

목요일, 살인이 자행되고 채권들이 도난당합니다.

금요일, 당신과 당신의 친구가 기차역 근처에서 목격됩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 친구의 집에서 도망갈 준비를 마친 짐가방들이 발견되지요.

이야기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드오프레씨, 자백하십시오. 자명한 사실을 왜 부인합니까?

이 순간 남작이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고백하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편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그는 말했다.

“보여라. 믿기 싫다. 내가 직접 읽어봐야겠다.”

그가 읽고는 비명을 지르듯 중얼거렸다.

“저 여우야! ... 연애 상대라니! 그녀가! 내가 진흙탕에서 건져낸 그녀가!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와 함께 도망쳤단 말인가.”

그의 눈앞에는 배신과 다른 남자와의 도주 계획만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머지, 즉 절도와 살인 혐의는 오히려 그가 무관심할 정도로 가벼운 것으로 보였다.

“자백하시는군요, 오프레이 씨? 맞습니까? 당신이 레스코 신부를 죽였다는 것이?”

발리두 씨가 귀스타브 제로메를 향해 몸을 돌렸다.

“당신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범위에서, 하지만 분명히 관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나 구스타브 제로메는 감옥 생활로 인해 전혀 상한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얼굴은 여전히 화사하게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자정에 이미 집에서 잠들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당신의 정원사 알프레드의 진술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새벽 세 시쯤에야 집에 돌아왔다고 단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당한 아침에 당신이 그에게 이렇게 약속했다고도 증언합니다. 자정이 전에 당신이 돌아왔다고 거짓 증언을 해주면, 5천 프랑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구스타브 제로메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아, 맞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하느님! 그들로부터 당하는 귀찮음에 지친 나머지, 그냥 끝내버리고 싶었거든요.”

“당신은 이것이 모든 혐의를 더해 주는 뇌시도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제라움은 발리두 판사 앞에 쫓하고 섰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요? 내가 그 훌륭한 도트레이 남작처럼 살인범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 있다는 뜻인가?”

그의 얼굴은 친근하고 경쾌한 표정이었다.

빅토르가 나섰다.

“판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피고인이 방금 한 말을 들었을 때, 판사님은 도트레이 남작이 레스코 신부 살해의 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라움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는 듯 손짓을 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바꾸고 간단히 말했다.

“그건 저와 상관없습니다. 사법부가 알아서 하라고요.”

“저는 확고합니다.” 빅토르가 말했다. “대답을 거부한다면, 이미 결론이 난 셈이죠. 그리고 그 결론을 숨길 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지요.”

제롬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사법부가 알아서 하란 말이죠!”

저녁이 되자, 막심 드 오프레이는 자신의 감방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살을 시도했다. 결국 그는 견갑대를 채워야 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저 녀석은 이제 힘이 다한 거야.”

몰롱이 빅토르에게 말했다. “사흘 안으로 자백할 거야. 내가 찾아낸 엘리즈 마송의 편지가 그 과정을 앞당겼지.”

“당연하죠.” 빅토르가 말했다. “그리고 세 명의 러시아 공범들을 통해, 당신은 뤼팽에게로 다다를 수 있을 거야.”

그는 이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다. 상대가 침묵하자, 빅토르는 다시 물었다.

“저쪽에서는 아무 새로운 소식이 없나요?”

하지만 몰롱은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행동한다고 떠들었을 뿐,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이 간사한 놈, 의심하는구나.’ 빅토르가 생각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경계했다. 두 사람 모두 초조하고 질투심에 가득 찼다. 그들의 운명이 걸린 상황에서, 한쪽이 다른 쪽의 노력을 모두 가로챌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가르슈에서 하루 종일을 함께 보냈다. 두 피고인의 아내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냈다.

빅토르는 큰 놀라움을 느꼈다. 가브리엘 도트레이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 고난을 견디는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헌신적인 신부이자 교회에 자주 드나들던 그녀를 지탱해 주던 것은 신앙이었을까? 그간의 조사로 드러난 그녀의 자선적인 습관들은 또 어떤 의미였을까?

그녀는 더 이상 처음처럼 자신을 감추지 않았다. 하녀를 해고한 그녀는 직접 장을 보러 다녔다. 머리를 들고 걸어가며, 남편의 알 수 없는 폭행으로 몸에 남은 푸르고 노란 멍 자국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무죄입니다, 경감님. 그는 끊임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악녀에게 속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네, 네, 저는 확신합니다. 깊이, 아주 깊이 말입니다. 어쩌면 예전보다 더 깊게.”

빅토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내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에는 예상치 못한 감정들이 넘쳐흘렀다. 자부심, 승리의 기쁨, 안도감, 그리고 약간의 허물은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에 대한 순진한 애정까지.

헨리에트 제로므의 경우에도 신비는 여전했다. 그녀는 격분과 분노의 비명, 격앙된 연설, 절망, 그리고 저주까지 서슴지 않았다.

“구스타프요? 그는 그 자체로 친절과 정직 그 자체입니다, 형사님! 그는 특별한 성품을 지녔죠. 그리고 제가 잘 압니다. 그는 밤새 제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네, 물론 처음에는 질투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했을 뿐이에요...”

누가 거짓말을 한 걸까?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

빅토르는 관찰이라는 작업에 열중했다. 그는 이 일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차츰차츰 진실의 단서들이 드러나고, 그 단서들을 중심으로 사실들이 저절로 정리되어 가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그는 바지유르 거리 아파트로 향하기로 했다. 혼자서 말이다. 그곳이 바로 모를론을 통해 알렉산드라와 뤼팽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핵심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곳이 가장 어둡고 미궁처럼 깊숙한 곳이기도 했다.

문 앞에는 두 명의 형사가 경계를 서고 있었다. 빅토르가 문을 열자마자, 그는 찬장 안을 뒤지고 있는 모를론의 모습을 보았다.

“어, 여기 있군.” 총감이 비웃는 듯한 어조로 외쳤다. “이쪽에서 단서라도 캐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당신의 착상이겠지? 아, 그렇구나. 내 형사 한 명이 말하길, 사건 당일 우리가 함께 여기 왔을 때 아마추어 사진이 열 장쯤 있었다고 하더군. 당신이 그 사진들을 살펴본 게 분명하다고 믿는다고.”

“잘못된 추측입니다.” 빅토르가 태연하게 말했다.

“또 하나. 엘리제 메이슨은 집에서도 항상 주황색과 초록색 스카프를 두르고 다녔어. 아마도 그 스카프로 목을 졸랐겠지. 혹시 그 스카프를 본 적 있나?”

총안이 눈빛으로 빅토르를 거론했다. 빅토르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본 적 없습니다.”

“당신이 남작을 모셨을 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그 스카프를 두르고 있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적 없습니다. 남작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commissaire가 투덜거렸다.

“이상하군.”

“무엇이?”

“이런 기계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는 거지. 말인데?”

“무슨 말?”

“엘리즈 마송의 여자 친구 같은 건 발견 못 했어?”

“여자 친구?”

“아망드 뒤트렉이라는 소녀에 대해 들었어. 모르겠어?”

“모르겠지.”

“내 부하가 그 애를 찾아냈어. 그 애는 이미 경찰에서 한 번 조사받았다고 했지. 너인 줄 알았어.”

“나 아니야...”

비록 빅토르가 보였지만, 모를레온의 짜증이 점점 커졌다. 결국 빅토르가 물러서지 않자, 그는 말했다.

“그 애가 곧 올 거야.”

“그 소녀... 어, 발소리가 들리는군.”

빅토르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동료들이 이 사건의 일부를 손에 넣지 못하도록 그가 벌인 모든 수작이 이제 발각될까? 그리고 몰롱이 발터자 시네의 그 여인의 진짜 정체를 엿볼 수 있을까?

만약 문이 열릴 때 몰롱이 젊은 여인을 바라보는 대신 빅토르를 엿봤다면 모든 것이 끝장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 늦게 들었다. 빅토르는 한눈에 젊은 여인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처음엔 놀랐고,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이해했다.

이제 판은 정해졌다. 그녀의 대답은 모호했다.

“물론 그 불쌍한 엘리즈를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절대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어요. 그녀나 그녀가 사귀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주황색과 초록색 스카프? 사진? 그런 건 모르겠어요.”

두 경찰은 다시 경찰청으로 향했다. 몰롱은 분노에 찬 침묵을 지켰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빅토르는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떠나겠습니다.”

“네, 지방으로요. 흥미로운 단서죠. 기대가 큼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몰롱이 덧붙였다. “국장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무슨 일로요?”

“운전기사 문제입니다. 가레 뒤 노르에서 가레 생라자르까지 오토레이를 태워다준 그 사람 말이죠. 우리가 그를 찾아냈습니다.”

빅토르는 재빠르게 계단을 올라가 통보를 받은 뒤, 몰롱을 동반하고 국장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국장님, 운전기사를 찾아냈다고요?”

“뭐라고? 모를론이 그 말을 안 했어?”

“오늘 아침, 그 운전수가 신문을 보고 드오트루이 남작의 사진을 처음 봤거든. 그리고 금요일, 즉 사건 다음 날 남작을 한 역에서 다른 역으로 태워다준 운전수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읽었지. 그래서 혹시나 싶어 여기로 찾아온 거야. 드오트루이 남작과 대면시켜 주었더니, 그는 확실히 그 운전수를 맞다고 인정했어.”

“하지만 발리두가 심문하지 않았어? 드오트루이가 바로 그 차를 탔나?”

“그렇다면 차에서 내렸다는 말인가?”

“아니. 그는 노르가에서 에투알까지, 그리고 에투알에서 생라자르까지 태워달라고 했지. 이건 분명 불필요한 지름길이야.”

“아니, 불필요하지는 않아.” 빅토르가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는 물었다.

“그 운전수는 어디 있나?”

“여기, 사무실입니다. 그분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였고, 두 시간 후에 수표를 건네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분이 도착한 이후로 다른 사람과交談한 적은 없습니까?”

“발리두 씨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검찰청을 방문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에게도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니콜라입니다. 작은 자동차 대여업자죠. 이 차 말고는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왔는데…… 차는 마당에 있습니다.”

빅토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상사와 몰롱이 궁금한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들의 호기심이 너무도 강렬하자, 고티에 씨가 외쳤다.

“자, 빅토르, 이 일이 결국 심각한 건가?”

“당연하죠.”

“우리를 위해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확신이 서십니까?”

“상식적인 추론에 기반할 수 있는 한, 확신합니다, 상사.”

“아, 이건 그냥 추론에 불과한 건가요?”

“형사 업무에서 capo, 우리의 모든 행동은 추론이나 운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그만하고, 빅토르. 우리에게 설명해 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우리는 스트라스부르에서 비코크까지, 그러니까 도트레가 그 증권을 주머니에 넣은 밤까지, 방위채권을 쫓아갔습니다. 논쟁의 여지는 없습니다.

도트레가 그 밤에 무엇을 했는지, 그 시간표는 넘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이 있습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님.

어쨌든 금요일 아침, 도트레는 약탈품을 안고 애인 집에 도착합니다. 짐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두 사람은 북역으로 가서 기차 시간을 기다렸다가, 갑자기 이유도 모를 채 생각을 바꿔 출발을 포기합니다.

시각은 다섯 시 이십오 분. 도트레는 애인과 짐을 보내고, 자동차를 타고 여섯 시까지 생라자르역으로 향합니다.

그때쯤 그는 사저에 산 신문으로, 자신이 용의자이며 경찰이 가르슈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위채권을 가지고 올까요? 아닙니다. 그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다섯 시 이십오 분부터 여섯 시 사이, 그가 약탈품을 안전한 곳에 숨겼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차는 어디에도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럼 운전기사와 내통해 소포를 건넸거나, 아니면 차 안에 그대로 남겨뒀거나 둘 중 하나일 거야.”

“말도 안 돼요!”

“아니면 차 안에 숨겨둔 거고.”

“그것도 아니에요!”

“왜?”

“누구든 집어갈 텐데요. 차 뒷좌석에 백만 프랑을 그냥 뒀요?”

“그래. 하지만 숨길 수는 있어.”

모를롱 지사는 크게 웃었다.

“빅토르, 너 참 재밌는 생각을 하네!”

고티에 씨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 물었다.

“어떻게 숨긴다는 거지?”

“쿠션 가장자리 아랫부분을 십 센티미터 정도 뜯어내고, 다시 바느질하면 돼. 그걸로 끝이야.”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상사. 그래서 오토루이가 당신 말대로 ‘불필요한 우회’를 한 거죠. 그는 가르슈로 돌아와 자신의 은신처가 완벽할 거라 믿으며, 위험한 시기가 지나면 곧장 채권을 다시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용의자라는 걸 알았잖아.”

“네, 하지만 자신에게 덮인 죄목의 중대성을 몰랐고, 상황이 이렇게 빨리 변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럼 결론은?”

“결론은, 니콜라 기사의 자동차가 마당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채권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Mauléon은 비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빅토리의 설명에 큰 타격을 받은 이사는 즉시 니콜라 기사를 불러냈다.

“우리 차까지 데려다주게.”

넓고 넓아빠진 쿠페였다. 차체는 구겨지고 찌그러졌으며, 여기저기 흙집이 가득했다. 분명 마른 강 전투 승리에 일조한 차가 분명했다.

“시동 걸까요?”

기사 니콜라가 물었다.

“아니, 친구.”

빅토르가 한쪽 문을 열고, 왼쪽 쿠션을 꺼내 뒤집어 살피봤다.

그리고 오른쪽 쿠션도 똑같이 했다.

오른쪽 쿠션 아래, 가죽 테두리를 따라 약 십 센티미터 길이에 걸쳐 이상한 흔적이 보였다. 짙은 회색 천보다 훨씬 검은 실로 뜯 바느질 자국이었다. 고르지 않지만 튼튼하고, 바늘결이 매우 촘촘했다.

“세상에, 이걸…”

고테르 씨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정말…”

빅토르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실을 잘라냈다. 그리고 과감히 그 틈을 더 벌렸다.

그리고 그는 손가락을 깃털 솜 속으로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리고 찾았다.

사초, 오 초췌 지났을까. 그가 중얼거렸다.

“찾았다.”

그는 거침없이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종이라기보다는 두꺼운 카드였다.

그가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뱉어냈다.

아르센 뤼팽의 명함이었다.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깊은 사죄의 뜻과 최선의 인사를 전합니다.”

몰레옹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고 허리가 훔 듯이 구부러졌다.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입은 덜덜 떨렸다.

“세상에, 이게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우리 친구 뤼팽의 그 오래된 장난이 다시 등장했군! 빅토르, 백만 프랑 지폐 아홉 장 대신 카드를 건네다니! 정말 웃겨 죽겠군! 이제 빅토르, 풍기단속반 소속이라니, 정말 창피하기 그지없어.”

“전혀 동의할 수 없소, 몰레옹.” 고티에 씨가 반박했다.

“사실은 정반대야. 빅토르의 통찰력과 직관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사건이 증명하고 있잖소. 대중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거요.”

빅토르는 매우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사건은 또 다른 사실도 증명하죠, 상사님. 뤼팽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 말입니다. 제가 통찰력과 직관이 뛰어났다면, 그는 그 몇 배는 뛰어났을 겁니다. 제게 경찰의 모든 자원이 있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앞질렀으니까요.”

“당신은 포기하지 않겠지, 기대하오?”

빅토르는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틀, 많아야 이 주면 끝납니다. 서두르십시오, 몰레옹 위원장.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네기 전예요.”

그는 발꿈치를 맞대고 두 상사에게 경례를 한 뒤, 몸을 틀고 뺏뺏하고 딱딱한 걸음걸이로 자리를 떴다.

그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가장 평온한 잠을 잤다.

신문들은 Mauléon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디테일을 담아 이 사건을 보도했고, 대다수가 빅토르의 정말 놀라운 업적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옹호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빅토르가 예언한 대로, 아르센 뤼팽에 대한 찬사가 폭발했다. 관찰력과 지능의 현상인 그 인물에 대한 찬양조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 유명한 모험가의 항상 예상치 못한 상상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 위대한 속임수꾼의 새로운 궤변에 대해서도 그랬다.

저녁 무렵, 오프레이 남작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보른 가문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된 것이,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달래줄 유일한 위안이었던 것이다.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불을 덮고 벽을 등진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유리 조각으로 손목의 정맥을 베었다. 그는 한 번도 움직이지도, 신음하지도 않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 온 자백이었다.

하지만 이 자백이 비코크 사건과 오즈자르 거리 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밝혀 줄 수 있을까?

빅토르는 자신의 자동차로 돌아갔다. 부아 드 부아뉴로 향하던 그는, 좁았던 군복 저고리를 벗어 던지고 페루인 마르코스 아비스토의 우아하면서도 단정한 의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그는 캠브리지 호텔로 가서, 자신이 묵던 방을 다시 찾았다.

그는 잘 재단된 턴도리를 입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꽃장식을 단 재킷 단추구멍은 화사했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곳에서 알렉산드라 공주를 보지는 못했다. 홀에도 공주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밤 열 시쯤, 방으로 돌아온 그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마르코스 아비스토 씨? 알렉산드라 바실리에프 공주입니다. 할 일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너무 번거롭지 않다면, 한번 찾아와 주시겠어요.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뵈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 당장요?”

제7장

빅토르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드디어 시작이군! 그녀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 불안하고 놀란,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여성을 만나게 될까? 음, 그럴 가능성은 낮아. 아직은 두 번째 단계일 뿐이야.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더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말이야. 하지만 괜찮아. 중요한 건 그녀가 나를 만나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다는 사실이야. 나머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지.”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내려다보며 넥타이 매듭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아쉽군!... 여든이 아닌, 여섯 살 먹은 노신사라니... 물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stiff한 앞단추 밑으로는 가슴이 여전히 팽팽하게 차오르고 있어. 하지만, 여섯 살 먹은 노신사라니...”

그는 고개를 복도 쪽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공주님의 문 앞, 그는 급히 방향을 틀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대기실을 지나 부두아르로 들어섰다.

문턱에서 알렉산드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서 그를 맞았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살롱에서 완벽한 신사가 찾아왔을 때 하듯 하는 행동이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를 앉게 하며 말했다.

그녀는 흰색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다. 가슴이 크게 트여 팔과 아름다운 어깨가 드러났다. 그녀의 얼굴은 대중에게 보여주는, 조금 지나치게 비장하고 운명적인 표정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위엄도, 산만한 무관심도 없었다. 대신 그녀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고, 친근하고 다정한, 그리고 친구처럼 느껴지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그를 순식간에 자신의 사적인 공간으로 받아들였다.

부두아르는 모든 대형 호텔이 자랑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 방에는 다른 곳과는 다른 우아한 기운이 감돌았다. 은은한 조명, 값비싼 소품들, 단단히 제본된 책들,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이국적인 담배 향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작은 원탁 위에는 신문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순진한 척 말했다.

“조금 난감하군요...”

“난감하다니요?”

“블러놓았는데, 왜 블러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 왜요?”

“지루해하고 계신 거죠.”

“맞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그 지루함, 내 인생의 근원적인 고통은 단순한 대화로 달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루함은 오직 과감한 행동과, 감수해야 할 위험의 정도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저를 도와줄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요?”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당신 위에 가장 무서운 위험을 쌓아 올리고, 재앙과 폭풍을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당신을 생각하면—자주 생각하죠—당신의 온 삶이 끊이지 않는 위험의 연속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녀는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추측을 하십니까?”

“손을 내미세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그는 몸을 굽혀 그녀의 손바닥을 오랫동안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맞아요. 그게 제가 생각한 거예요. 겉보기엔 복잡해 보이지만, 속은 생각보다 이해하기 쉬운 분이잖아요. 눈빛과 태도로 이미 알았던 것들, 손금의 단순한 선들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상한 건, 모험을 좋아하는 용기와 약함이 공존한다는 점이에요. 끊임없이 위험을 찾아다니면서도, 정작 보호받고 싶어 하죠.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때론 그 고독이 두렵기도 해요. 자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악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누군가를 찾고 싶을 때가 있죠.”

“당신은 지배하고 싶지만, 동시에 주종 관계도 필요해요. 복종과 자존심이 교차하는 분이예요. 시련 앞에서는 강하지만, 지루함이나 일상적인 루틴, tristesse, 단조로움 앞에서는 당황해하죠.”

“결국 당신 안엔 모순이 가득해요. 평온함과 열정, 건강한 이성과 격렬한 본능, 냉정함과 감각적 욕망, 사랑에 대한 갈망과 독립에 대한 집착이 서로 충돌하죠.”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다.

“제가 착각한 건 아니죠? 당신, 제가 보는 그대로군요.”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의 영혼 깊숙한 비밀까지 파고드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담배에 불을 붙인 뒤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화제를 돌리며 신문을 가리켰다. 태도가 너무 자연스러워, 그가 바로 그 지점이 그녀가 말하고 싶었던 곳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그와 나눈 첫 언급이었다. 아마도 둘 다에게 이 사건은 그들의 생각과 근심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현실이었을 것이다. 빅토르는 그 주제에 그녀가 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숨죽인 떨림으로 그녀를 따라갔다.

그도 그녀만큼이나 태연하게 대답했다.

“매우 모호한 사건이군요…”

“매우 모호하긴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

“네. 예를 들어 오프레이 남작의 자살은 시인한 것과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십니까? 그는 애인에게 배신당했고, 돈도 찾지 못해 절망했으니 죽은 거죠. 하지만 정말 그가 레스코 신부를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다는 겁니까?”

“공범입니다.”

“누구?”

“문을 통해 도망친 그 남자 말입니다. 그 남자는 가스트게룸일 수도 있고, 창문을 통해 도망친 여자의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연인?”

“네. 아르센 뤼팽입니다.”

그녀가 반박했다.

“아르센 뤼팽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자제를 지키려 애썼지만, 차갑게 이어지던 대화는 서서히 극적인 긴장을 띠기 시작했다. 빅토르는 그 분위기를 깊이 음미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전율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던진 이 질문이 얼마나 열정적인 관심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는 느꼈다.

“그 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관 여주인공 말씀이세요?”

“영화관 여자와 비코크의 여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이죠.”

“보주아르 거리 계단에서 본 여자도 같은 사람?”

“당연하죠.”

“그렇다면 당신은…?”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입에 담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단어였을 것이다. 대신 빅토르가 말을 이었다.

“그 여자가 엘리사 마송을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그는 가설을 제시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말은 고요한 침묵 속으로 스며들었고,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어조를 유지하며 말을 이었다.

“그 여자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녀의 실수들이 저를 놀라게 하네요. 초보자가 한 것 같죠. 게다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결국 그녀가 살해한 목적은 방위채권을 훔치기 위함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엘리자 마송은 그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

어요. 따라서 이 살인은 터무니없고, 쓸데없는 일치고는 너무 어리석었죠. 솔직히 말해, 그 여자는 그리 흥미롭지 않네요.”

“당신은 이 사건에서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 겁니까?”

“두 사람이다. 진짜 남자들. 오도트나 제로메, 혹은 경찰 모를롱 같은 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아니, 전혀 달라. 자신감 넘치는 두 사나이. 실수 없이, 과시하지도 않으며, 자신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서로 마주치게 될 것이다. 뤼팽과 빅토르.”

“뤼팽?”

“그가 바로 대장군이지. 보지르 사건에서 계획이 빗나간 후, 어떻게 방산채권을 다시 찾아내며 국면을 역전시켰는지 보라. 정말 놀라운 솜씨다. 빅토르도 마찬가지다. 그는 차가 숨겨진 곳까지 찾아냈으니까.”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 남자가 뤼팽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진심으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기회에, 신문을 통하거나 관련자들이 직접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이 남자의 수사를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뤼팽은 이런 어둡고 은밀하며, 고집스럽고 집요한 공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빅토르는 그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아, 정말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되었을 겁니다. 이미 단서를 잡았을 테고요.”

“모를레온 총경도요?”

“네. 뤼팽에게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는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팔꿈치를 무릎 위에 괴고 말이 없더니, 끝내 미소를 짓려다 말며 속삭였다.

“그건 아쉽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모든 여자들이 그렇듯, 당신도 그의 매력에 사로잡혔군요.”

그녀는 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저를 매료시킵니다. 저 사람도요. 다른 이들 역시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감정들은 익숙해지면 문제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맨릴 카드 게임을 즐기듯, 평범한 부르주아처럼 차분하게 행동하게 되죠. 물론 고통스러운 순간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드문 일이지요. 거의 항상, 손끝의 감각만 잘 익혀두면 순조롭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어떤 일이 알려졌을 때...”

그는 말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았네요.”

그녀가 그를 붙잡았다. 눈이 빛나며 호기심이 가득했다.

“누군가 알려줬다고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니요, 들려주세요.”

“아니요, 확신합니다. 이건 불쌍한 팔찌 문제일 뿐이에요. 잘 들은 바로는, 그냥 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긴장할 것도 없고요. 그냥 산책하는 거랑 다를 바 없어요.”

그가 문을 열려던 순간, 그녀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가 몸을 돌리자, 그녀는 당당하게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거절할 수 없다는 듯, 여자의 모든 도발적인 기운을 담아서였다.

“산책은 언제 해요?”

“왜요? 당신도 같이 가고 싶나요?”

“네, 가고 싶어요. 너무 지루해서요!”

“그럼 기분 전환이 되겠네요?”

“어쨌든 제가 봐야죠. 시도라도 해 봐야죠.”

그가 말했다.

“그다음 날 오후 2시, 리볼 거리, 생자크 광장.”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다. 그녀가 오는 것을 보자,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자, 내 작은 새야. 내가 너를 잡았어. 끝까지 파고들면, 결국 너의 연인도 찾아낼 테지.”

그녀는 아주 어린 소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경쾌했고, 행동이 기다려졌으며, 놀이동산에 가는 것처럼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정장을 하지는 않았다.

회색 양모로 만든 짧은 치마 하나. 머리카락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단색의 작은 모자 하나. 그녀를 바라보는 이가 없도록, 그녀에게는 아무런 특징도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귀부인의 자태를 잃었다. 눈부셨던 아름다움은 갑자기 사라 깊고, 부드럽게, 그리고 마치 베일로 가려지듯 은폐되었다.

빅토르가 물었다.

“결심했나?”

“항상 그렇죠. 저 자신을 벗어나기 위해.”

“먼저 설명을 좀 해두자고.”

“필요한가요?”

“당신의 양심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없어요. 그냥 산책이나 하죠. 뭐랄까…… 꽃도 따고.”

“그렇지. 산책길에 한 노인을 만나자. 그는 본래 도둑놈의 물건을 사들이는 상인이야. 그전 날, 누군가 도난당한 팔찌를 그에게 건네줬지. 그는 그 팔찌를 팔려고 애쓰고 있어.”

“그리고 당신은 그걸 사주지 않겠지.”

“물론이지. 게다가 그는 자고 있을 거야.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든. 점심 먹고 집에 돌아와서 두 시에서 세 시까지 낮잠을 자. 폭 자는 잠이지. 무슨 소음으로도 깨지 못해. 보니까 이 방문은 전혀 위험하지 않아.”

“아쉽군. 그 자고 있는 노인은 어디에 사나?”

“오너라.”

그들은 작은 정원을 나섰다. 백 보쯤 더 가자, 그는 그녀를 차 안으로 들이켰다. 차는 보도 옆에 세워두었는데, 알렉산드라가 번호판을 볼 수 없도록 위치를 잡았다.

그들은 리볼리 거리를 따라가다 왼쪽으로 꺾어, 헤매듯 얇힌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는 주저함 없이 목적지를 향해 차를 몰아갔다. 차는 차체가 낮았고, 지붕이 높아 시야를 가렸기에 바깥에서 거리 이름을 알아볼 수 없었다.

“저를 의심하시는군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이 흥측한 동네의 길은 모두 낯설어요.”

“이건 길이 아니야. 경치 좋은 시골 길이고, 아름다운 숲속을 지나는 길이지. 그리고 내가 데려갈 곳은 놀라운 성이란단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당신은 페루인이 아닌가요?”

“아니, 물론 아니지.”

“프랑스인?”

“몽마르트르에서 왔소.”

“당신은 누구요?”

“바실리에프 공주의 운전기사요.”

차량은 마구간 아치문 앞에 멈췄다. 두 사람은 내렸다.

넓은 안마당이었다. 돌로 깔린 바닥 한가운데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주변은 낡은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각 건물 계단 입구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계단 A... 계단 B...

그들은 계단 F를 올랐다. 돌계단 위를 밟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각 층마다 문은 하나뿐이었다.

전반적으로 낡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천장이 매우 낮은 다섯 번째, 마지막 층에 도착했다. 빅토르는 주머니에서 가짜 열쇠 묶음과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종이에에는 아파트 평면도가 그려져 있었고, 그는 그 위에 네 개의 작은 방 위치를 지시하며 동료에게 보여주었다.

잠금 장치는 쉽게 뚫렸다. 그는 소리 없이 문을 열었다.

“두렵지 않아요?” 그가 속삭였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얼굴빛이 다시 평소의 창백함으로 돌아왔다.

현관과 마주한 두 개의 문이 있는 복도였다.

그가 오른쪽 문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거기서 자요.”

그는 왼쪽 문을 살짝 열어젖혔다. 그들은 네 개의 의자와 작은 서랍장이 놓인 소박한 방으로 들어섰다. 이 방은 커튼으로 가려진 좁은 통로 너머 다른 방과 분리되어 있었다.

그가 커튼을 살짝 치우고 안을 내다보더니, 젊은 여성에게도 보라고 손짓했다.

맞은편 벽에 걸린 거울에는 소파 침대가 비쳐 보였다. 거기서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그녀에게 몸을 기울여 귀에 대고 말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가 그녀의 손을 만졌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눈을 감고 잠든 남자를 향해 고정된 그녀의 눈동자는 열병에 걸린 듯 빛나고 있었다.

빅토르는 책상까지 물러났다. 그는 꽤 오랜 시간을 들여 책상의 서랍을 부수었다. 여러 개의 서랍이 그의 앞에 드러났다. 그는 안을 뒤졌고, 실크 종으로 말려 있는 팔찌를 찾아냈다.

그때 옆에서 살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무엇인가가 마루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알렉산드라는 커튼을 다시 내렸다. 그녀는 비틀거렸다.

그가 다가가자, 그녀가 헛소리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움직였어요… 깨어나려 해요…”

그가 권총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하자, 그녀는 당황한 듯 그에게 달려들더니 팔을 짊 잡으며 신음했다.

“당신 미쳤어요!… 아니, 절대 안 돼요!”

그가 그녀의 입을 막았다.

“잠깐만요… 들어봐요…”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잠자는 이의 숨소리가 거대한 침묵을 짊어 나갔다. 그는 동료들 향해 출구 쪽으로 몸을 이끌었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섰다. 그가 문을 닫았을 때, 그들이 방에 들어온 지는 고작 오 분도 채 지나지 않았다.

복도에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구부정했던 키를 곧추세우며, 그녀는 꽤 평정심을 잃지 않은 채 계단을 내려갔다.

자동차로 돌아온 뒤, 그녀의 몸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팔이 굳어지고 얼굴이 찌푸려졌다. 그는 그녀가 울음을 터뜨릴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이 그녀를 조금은 안도시켰다. 그리고 그는 팔찌를 보여주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훌륭하구요. 당신에게는 좋은 거래였겠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이 왔던 낡은 구시가지 쪽으로 돌아갔다. 큰 안마당을 다시 가로질러 F자 계단을 다시 올랐다. 다섯 번째 층에서 그는 문을 두드렸다.

그의 친구인 라르마톤 형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잘했어, 라르마톤.” 빅토르는 신이 나서 말했다. “너는 일등 잠자는 자야. 이 아파트는 이 작은 연극을 치르기엔 딱이야. 그런데 뭐가 떨어졌어?”

“내 단안경이었지.”

“조금만 더 늦었으면, 네 머리에 총알을 쏘겠을걸! 그 광경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놀라게 했나 봐. 그녀는 너를 깨울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로 달려들었어.”

“그러니 그녀는 살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바그니르 거리에서의 기억이 그녀를 공포에 떨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경험이 그녀에게 충분하지 않다면 말이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빅토르가 말했다. “그녀 안에서 내가 읽어내는 것은 아직 내게 확신을 주지 못해. 어쨌든, 내가 원했던 대로 이제 우리는 공범이 됐지. 그녀를 여기로 데려와, 내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거야. 그래, 내가 그녀에게 약탈물의 일부를 주거나 약속해야

했어. 그게 내 의도였는데……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었지. 그녀가 죽었다고 해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여자…… 도둑이라니? 상상할 수 없어. 어쨌든, 이 팔찌를 다시 가져가. 이 팔찌를 너에게 맡긴 보석상에게 감사해.”

라르모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너는 정말 재주 있는 사람이야!”

캠브리지에서 저녁 식사 전, 라르모나로부터 전화를 받은 빅토르는 그 순간의 분위기를 정리했다.

빅토르는 초조해졌다. 그가 택한 길은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작전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

반면 몰론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발각된 추적을 따라 그는 적을 향해 곧장 돌진할 뿐이었다.

그런데 영국인이 붙잡힌다면? 그것은 곧 뒤편이 위기에 처한다는 뜻이었다. 알렉산드라 역시 아마도 위험에 빠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빅토르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었다.

불편한 사십팔 시간이 흘렀다.

신문들은 라르모나가 예고했던 경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라르모나는 전화로, 더 이상 아는 바는 없지만 몇몇 세부 사항들이 자신의 첫인상을 확인시켜 준다고 전했다.

영국인 비미스는 여전히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발목이 빠였다는 이유로 방을 떠나지 않았다.

바실리에프 공주는 저녁 식사 이후에 단 한 번만 모습을 드러냈다. 홀에 앉아 일러스트레이션 잡지를 읽으며 담배를 피웠다.

그녀는 자리를 옮겼고, 비크토르도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비크토르는 그저 슬쩍, 눈치 보듯 그녀를 훑쳐보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왜 모습을 드러냈을까?

빅토르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였을까? 자신을 안 인사하고 말도 걸지 않더라도, 자신은 여전히 여기 있고 언제든지 연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전하려는 것이었을까?

당연히 그녀는 자신에게 닥쳐올 위기가 그토록 급박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여성다운 직감으로 그녀는 자신 주변, 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 주변으로 다가오는 위험의 기운을 느꼈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힘이 그녀를 이 호텔에 묶어두고 있었을까? 또 왜 영국인 빔리시도 그곳에 머물렀을까?

둘 다 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나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 왜 서로 헤어지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녀는 빅토르가 어느 날 밤 영국인 옆에서 본 그 낯선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그 남자는 아르센 뤼팽일 수밖에 없었다.

빅토르는 그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려다 말았다.

‘가세요. 상황이 위급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이렇게 물었다면 어땠을까.

‘누구에게 위급하다는 거죠? 제가 뭘 두려워해야 합니까? 바실리에프 공주가 어떤 곤경에 처했다는 말입니까? 영국인 빔리시? 그 사람은 알지 못해요.’

빅토르는 기다렸다.

그 역시 호텔을 떠나지 않았다. 적어도 적군이 철수하지 않고, 모를레온 경감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까진 그랬다. 어쨌든 이곳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였다.

그는 깊은 사색에 잠겼다.

수시로 사건 전체를 되짚으며, 자신이 내린 결론들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알렉산드라의 성격과 행동 양식을 바탕으로, 그 결론들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것이었다.

빅토르는 방에서 점심을 먹고 오랫동안 나른한 낮잠을 잤다.

그 뒤로 발코니에 나와 아래로 몸을 굽혀 아베뉴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서 그는 파리 경찰청 동료들의 실루엣 중 한 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다른 한 명도 반대쪽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캠브리지 호텔 정면의 벤치에 앉았다. 서로 말은 나누지 않았다. 등을 돌린 채였지만, 눈은 결코 호텔의 포털(현관)에서 떼지 않았다.

길 건너편에는 또 다른 형사 두 명이 자리를 잡았고, 더 멀리서도 두 명이 관측에 나섰다. 모두 여섯 명이었다. 포위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빅토르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다.

첫째, 다시 '모던 브리데' 소속의 빅토르로 돌아가 영국인을 고발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아르센 뤼팽을 쫓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알렉산드라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둘째, ……

‘아니면 뭐라고?’

그가 중얼거렸다.

모를롱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건, 알렉산드라의 편을 든다는 뜻이다. 곧 모를롱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해야 할까?

스스로 그 일을 성사시켜, 직접 아르센 뤼팽을 잡으라는 건가?

때로는 생각하지 않는 게 낫다. 이성을 버리고 본능에 맡기는 것이다. 그것이 어디로 나를 이끌든 상관없다.

핵심은 행동의 중심에 뛰어들어, 싸움의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데 있었다.

그는 다시 몸을 숙였다.

옆 골목에서 형사 라르모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호텔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왜 여기에 왔을까?

라르모나는 동료들이 앉아 있는 벤치를 지나쳤다. 세 남자는 서로를 힐끗 바라보며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여전히 여유로운 보폭으로, 라르모나트는 보도를 건너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빅토르는 망설이지 않았다. 라르모나트가 무슨 일을 하러 왔든, 반드시 그를 만나야 했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라르모나트는 이런 만남을 예상하고 있었을 터였다.

빅토르는 내려갔다.

차 시간이었다. 테이블은 이미 대부분 차 있었고, 홀과 그 주변 넓은 복도에는 사람들이 오가며 북적였다. 덕분에 빅토르와 라르모나트는 눈치채지 못한 채 마주칠 수 있었다.

“그래?”

“호텔이 포위됐어.”

“무슨 소리지?”

“바 공격 이후부터 영국인이 여기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해.”

“공주님은?”

“그건 논외야.”

“뤼팽은?”

“그 역시 논외.”

“알았어.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경고를 하러 온 거야?”

“당직 중이야.”

“헛소리 그만해!”

“남자 한 명이 빠져 있었어. Mauléon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지. 그가 나를 여기로 보냈어.”

“지금 도착하는 거야?”

“저기, 문지기랑 이야기하는 걸 봐.”

“헐! 코고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네.”

“우리 총 열두 명이야. Victor, 너는 지금이라도 도망치는 게 좋겠어. 아직 시간도 남아.”

“미친 소리를 해?”

“네가 심문당할 거야. 만약 그가 너를 Victor라고 알아챈다면?”

“그게 뭐 어때? Victor는 페루인으로 위장하고, 경찰이 수사 중인 호텔에서 형사 일을 하고 있어. 내 일은 신경 쓰지 마. 가서 알아봐.”

Larmonat은 서둘러 현관 로비로 향했다. Mauléon과 합류한 뒤, 밖에서 온 한 명의 경관과 함께 관리국 사무실로 그를 따라갔다.

삼 분 후, Larmonat은 다시 나타나 Victor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들 사이에서 오간 말은 고작 몇 마디에 불과했다.

“저희가 등록부를 일일이 살피고 있소. 혼자 묵은 영국인 이름은 물론, 외국인의 이름까지 모두 적어 넣었지.”

“왜 하필이오?”

“뤼팽의 공범 이름이 아직 모르기 때문이오. 게다가 그 공범이 꼭 영국인일 거란 보장도 없소.”

“그 다음?”

“그 다음엔 그들을 차례로 소환하거나, 직접 숙소로 올라가 여권을 검사하오. 당신도 아마 심문을 받을 거요.”

“제 여권은 완벽하오.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말이오. 만약 누군가가 나가려 하면 어떻게 하죠?”

“여섯 명의 형사가 감시하고 있소. 용의자들은 형사국으로 연행되고, 한 명의 형사가 전화 통화를 감청하오. 모든 절차가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지. 스캔들 같은 건 없소.”

“그리고 당신은요?”

“뒷문 쪽 폰티외 거리에는 직원과 공급업체 전용 출구가 하나 있어요. 가끔 손님이 쓰기도 하지만, 제가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규칙은?”

“저녁 여섯 시가 되기 전에는, 호텔 명함이 아닌 Mauléon 서명의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한 누구도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당신은 무언가 하려는 건가요?”

“어떤 의미로?”

“젠장!”

그들은 헤어졌다.

빅토르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는 주저함이 없었다. 주저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맞아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계획에 circumstance들이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보면 신기할 정도예요.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제게 남은 시간은 고작 십오 분, 길어도 스무 분뿐이니까요.”

복도에서 알렉산드라의 문이 열렸다. 차를 마시러 내려오는 듯 도시복을 차려입은 그녀가 나타났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다가가 어깨를 잡더니, 그녀를 아파트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짜증을 내며 저항했다. 대체 무슨 일인가?

“호텔이 경찰에 포위됐어요. 수색 중이에요.”

제8장

알렉산드라는 뒤로 물러서면서도, 자신의 몸을 붙잡고 있는 그 굳게 쥐고 있는 손에 끝없이 저항했다. 그 손의 짙 조이는 힘은 그녀를 격분시켰다. 안방을 지나자, 빅토르는 부엌문 뒤에서 문을 닫았다.

그때 그녀가 외쳤다.

“역겹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 호텔은 경찰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반박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뭐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영국인 명단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건 바실리에프 공주와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 영국인 중에는 빔시 씨도 있습니다.”

그녀는 눈꺼풀을 살짝 깜빡일 뿐이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빔시 씨를 모릅니다.”

“하지만 알죠. 알죠. 그는 이 층에 사는 영국인입니다. 337호요.”

“저는 그를 모릅니다.”

“당신은 그를 압니다.”

“그래서 나를 감시하고 있었군요?”

“당신을 구해야 할 때면 언제라도요. 지금이 바로 그 경우죠.”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특히 나한테는요? 그게 당신의 뜻이죠?”

“누구에게도요.”

“부디 쓸데없는 설명은 하지 마세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십 분밖에요. 십 분, 들리시죠? 십 분 안에, 늦어도 십 분 안에, 두 명의 형사가 빔리시 씨의 방에 들어와 그를 지휘본부로 내려보내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모롱 총경과 마주하게 되죠.”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려 했다.

“불쌍한 빔리시 씨를 위해 유감스럽군요. 대체 무슨 죄로 기소당한
다는 거죠?”

“마르보 거리 바에서 탈출한 두 남자 중 한 명이라는 죄목입니다. 다
른 한 명은 아르센 뤼팽이었죠.”

“사건이 불리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인물에게 동정심이 있다면, 그에게 전화를 걸어 경고해 주십시오. 그
가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할 것입니다.”

“전화 통신은 감청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발 당신들끼리 그와 잘 해결해 보시오!” 그녀의 어조는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다.

젊은 여성의 말투에는 일종의 모욕이 담겨 있었고, 빅토르는 그것을
보고는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차갑게 반박했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마담. 8분에서 10분 안에 빔
시 씨의 집에 방문할 두 형사 중 한 명은 그를 경찰서로 데려갈 것입니
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방에 남아 수색할 것입니다.”

“그가 불행할 뿐이죠.”

“당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나요?”

그녀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분노일까, 격분일까, 아니면 불안감일까.

그녀는 다시 자신을 진정시키고 말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 남자와 제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내 친구가 아닙니다.”

“아마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당신과 손발을 맞추고 움직이고 있어요. 부디 부인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금고를 훔쳐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내게 손을 내밀었을 때부터 말입니다. 그런 일을 당신께서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이유를, 내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제가 직접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적어도 제가 저지른 일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당신을 궁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제가 당신을 그 영국인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그 후, 저는 그의 방에 숨어들어 ……”

“뭐요?”

“당신에 대해 알려 주는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무엇이요?” 그녀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이 곧 찾아낼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제발, 말해 주시오!”

“비미 씨의 옷장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셔츠 더미 한가운데에 주황색과 녹색이 섞인 실크 스카프가 발견될 것입니다.”

“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주황색과 녹색의 실크 스카프입니다. 엘리즈 마송을 질식사시켜 죽인 바로 그 스카프요. 제가 직접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그 스카프는 지금 영국인 비미 씨의 옷장 안에 있는 거죠.”

이 말에 바실리에프 공주의 저항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몸은 비틀거렸고 얼굴은 공포에 질렸다. 입술이 떨리며 그녀는 비명처럼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저도 그걸 봤습니다. 바로 그 손수건이 범인들이 찾는 물건이죠. 신문도 읽어보셨죠? 엘리즈 마송이 아침에 집에 있을 때면 꼭 목에 두르

던 그 손수건이요. 그것이 영국인의 손에서 발견됨으로써, 그이가 뵈지르 거리 살인 사건에 관여했음이 부정할 수 없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르센 뤼팡의 개입도 분명해졌죠.

그 손수건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정체, 특히 그 여자의 실체를 드러낼 다른 증거들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여자?” 그녀가 이를 갈며 말했다.

“공범 말인가? 범인 발생 시간에 계단에서 마주쳤던 여자, 즉 살인을 저지른 여자 말이야.”

그녀는 빅토르에게 덤벼들었다. 자백이자 격렬한 항변인 그 일격과 함께 그녀는 외쳤다.

“그녀는 살인자가 아니야! ... 이 여자가 사람을 죽일 리가 없어! ... 그녀는 범죄를 혐오해! 피와 죽음을 극도로 싫어해! ...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고!”

“그럼 누가 죽인 거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빠르게 오갔다. 그녀의 고조된 기운은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갑자기 깊은 절망이 찾아왔다. 그녀는 너무도 약한 목소리로, 그가 들을 수나 있을지 모를 만큼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이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構いません. 어차피 저는 이미 끝났어요. 모든 게 저를 향해 돌아가고 있어요. 왜 비미스가 이 손수건을 간직했을까요? 그는 어떻게든 그것을 버리기로 했었잖아요. 아니… 저는 이미 끝났어요.”

“왜요? 가세요. 당신을 막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갈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럼 나를 도와줘.”

“무엇을?”

“그에게 알리려고.”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하지.”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럼 스카프는 돌려받겠지?”

“비미스는 어떻게 되는데?”

“그가 탈출할 방법을 주겠어.”

그녀가 다가가자 빅토르는 잠시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는 다시 용기를 내고 있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자신에

게 여성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남자 앞에서, 그녀는 거의 미소까지 지었다.

어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조건 없이 자신을 위해 헌신하려는 이 마음을. 왜 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파멸의 risk에 처했을까?

그녀 역시도 차분한 그 눈빛과 단호한 표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서둘러요. 무서워요.”

“그를 걱정해서?”

“그의 헌신에는 의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가 내 명령을 따를까?”

“네... 그도 저를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건가?”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문을 열어줄까?”

“두 번, 세 번 두드려야 합니다.”

“서로 알아보는 신호 같은 건 없나요?”

“없습니다. 이 두드리는 방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가 떠나려 하자, 그녀가 그를 붙잡았다.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떠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경보가 끝나는 대로, 한 시간 안에 제가 다시 올 테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돌아올 수 없다면요?”

“금요일에 생자크 타원광장(square de la Tour Saint-Jacques)에 오세요.”

그가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자, 모든 게 잘 준비된 걸까? 우연에 맡길 여지는 없는가? 가자. 그리고 제발, 여기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는 밖을 내다보며 엿보았다. 복도는 평소와 달리 비어 있지 않았다. 호텔 곳곳에서 발걸음이 오가고, 벌써부터 요동치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첫 번째 관문은 엘리베이터 철조망 앞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337호로 달려가, 미리 정해 둔 리듬으로 문을 두드렸다.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자물쇠가 열렸다.

그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비미스를 보고, 방금 그 젊은 여자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건넸다.

영국인에게는 알렉산드라 때와는 사정이 달랐다. 서로가 서로를 꺾으려 애쓰는 저항도, 공격적인 의지를 관철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즉각적인 ‘마찰’이 일어났다. 영국인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왜 빅토르가 자신을 경계하는지 헤아려 보지도 못한 채 두려움에 곧장 몸을 굽혔다.

게다가 그는 프랑스어를 잘 이해하긴 했지만, 정작 말은 거의 하지 못했다.

빅토르가 그에게 말했다.

“당장 내 명령을 따르시오. 지금 당장.”

“모든 방을 수색해야 합니다. 마르보 거리 바의 영국인이 이 호텔에 숨어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당신도 의심받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로 심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 prétendue(거짓된) 발목 염좌 때문이죠. 솔직히 말해, 그 구실은 영 똑똑하지 못했어요. 여기 돌아오지 않거나, 방에 틀어박히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말이죠.”

“위험한 서류라든가, 편지 같은 건 없나요?”

“공주님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것이요?”

“장난치지 마. 이 옷장의 열쇠를 주시오.”

상대방은 순순히 따랐다. 빅토르는 셔츠 더미를 무너뜨리고 실크 스카프를 낚아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다 끝났나?”

“아직 시간이 있어요. 정말 다 끝났나요?”

“바실리에프 공주를 배신하려는 시도를 하면, 너의 얼굴을 망쳐놓을 테니 각오해라. 장화, 모자, 코트를 챙겨라. 당장 여기서 사라져라.”

“하지만…… 경찰은요?” 비미시가 물었다.

“입 다물어. 호텔 뒤쪽 폰티외 거리 쪽 출구를 아는가?”

“거기에는 경관 한 명만 지키고 있습니다.”

영국인은 그 경관과 주먹다짐을 벌여 강행할 수 있다는 듯 손짓했다.

빅토르는 반대했다.

“아니,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라. 잡히게 될 거야.”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호텔 안내 지도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통행 허가’라고 적어 넣고, 날짜를 쓴 뒤 ‘모엘론 경감’이라고 서명했다.

“이 지도를 경관에게 보여라. 서명은 확실하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주저 없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거리 모퉁이에 다다르면, 걸음을 재촉해라.”

영국인은 속옷과 소지품이 가득 찬 옷장을 가리키며, 세면도구들을 내려다보곤 안타까운 듯 어깨를 으쓱였다.

“정말, 또 뭐가 더 필요단 말인가?” 빅토리가 비웃었다. “배상금이라도 요구하는 건가? 됐어, 얼른 준비해라…”

비엄이 부츠를 집어들었지만, 그 순간 문이 두드려졌다. 빅토리가 불안한 기색을 띠었다.

“젠장! 혹시 저들이 아닐까? 어쩔 수 없다. 어떻게든 해보자.”

또다시 문이 두드려졌다.

“들어오라!” 그가 외쳤다.

영국인은 부츠를 방 끝으로 던져놓고 소파에 드러누웠다. 빅토리가 문을 열려던 찰나,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층계 하인이 자물쇠를 따고 들어온 것이다. 두 명의 형사가 그를 따랐는데, 바로 빅토리의 동료들이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친애하는 선생님.” 그는 영국인에게 남미 억양을 과장스럽게 섞어 말했다. “다리가 나아져서 반갑군요.”

그는 순경들과 부딪쳤다. 그중 한 명이 매우 정중하게 물었다.

“사법 경찰 소속 루보 형사입니다. 저희는 이 호텔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비미시 씨요? 음, 좀 전부터죠. 로비에서요. 그분이 시가를 권해 주셨어요. 발을 다친 뒤로는 제가 그를 방문하러 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대었다.

“마르코스 아비스토.”

“페루인이시죠? 자, 그분은 검사 대상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경찰서로 내려오시겠습니까? 신분증은 지니고 계신가요?”

“아니요, 방금 이 층 방에 댈렸습니다.”

“제 동료가 동행하겠습니다.”

루보 형사는 소파 위에 놓인 영국인의 다리를, 발목은 붕대로 감겨 있고, 옆 테이블에는 준비된 찜질 팩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더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걸을 수 없군요?”

“소방서장이 곧 이곳에 올 것입니다. 그에게 알려시오.” 그는 동료에게 명령했다. “소방서장이 오기 전에, 저는 이 영국인의 서류를 검토하겠습니다.”

빅토르는 동료를 따라 나섰다. 그는 속으로 비웃음을 터뜨렸다. 루보 형사는 영국인 관련 임무에 전념하며, 자신인 빅토르를 조금도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루보 형사가 혼자 남아서, 의심스러

운 인물, 그리고 아마도 무장을 한 남자와 함께 갇혀 있다는 사실을 단 한 순간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말이다.

빅토르도 그 일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방의 서랍에서 마르코스 아비스토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들을 챙기면서, 자신을 감시하는 간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떻게 하지?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여기 가둔 뒤… 폰티외 거리로 빠져나갈까?’

하지만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

빔시가 직접적인 타겟이 되어, Mauléon의 서명이 위조된 가짜 신분증으로 Roubeau를 처리하고 탈출했다면, Victor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빅토르는 순종적으로 그들을 따라갔다.

하지만 호텔은 이미 소란스러웠다. 아래층 홀과 넓은 복도에는 여행자나 손님들이 가득 찼다. 그들은 호기심 많고 시끄러웠으며, 나가달라는 말에 분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사무실에서 Mauléon 경감도 이미 업무 과부하를 느끼며 성이 나 있었다. 그는 Victor를 흘끗 보더니 바로 옆에 있던 보좌관 중 한 명에게 말을 건넸다. 그는 분명히 Beamish 씨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그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이 쌓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영국인은요?” 그는 Victor를 데려온 경찰에게 물었다. “왜 데려오지 않았소?”

“걸을 수가 없나 봅니다. 발목 염좌 때문이에요.”

“장난하느냐? 그 녀석, 수상해 보이는데. 뚱뚱하고 얼굴이 붉지 않았나?”

“네. 그리고 수염이 빗자루처럼 짧고 굵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틀림없어… 루보가 그와 함께 있었나?”

“내가 가겠다. 나를 따라와.”

기차 시간을 쫓는 한 여행자가 성벽처럼 들이닥쳤다. 그는 이미 등록 명단에 올라 있었지만, 그로 인해 몰롱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귀중한 두 분을 허비한 뒤, 그는 또 다른 두 분을 더 써가며 지시를 내렸다. 드디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빅토르는 자신의 서류 검사를 마친 참이었다. 그는 아무런 허가증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니마르 형사와 다른 한 명의 형사를 다시 만났다. 세 경찰관은 그를 아예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세 번째 층에 이르러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몰롱은 337호 문에 세계 두드렸다.

“루보, 문 열어!”

그는 즉시 화가 나서 다시금 소리쳤다.

“문 좀 열라구, 미친놈아! 루보! 루보!”

그는 방의 하인을 불렀다. 층별 소믈리에였다. 하인이 식탁 준비실로부터 열쇠를 든 채 나오자, Mauléon은 점점 더 불안한 기색으로 그를 밀쳤다. 문이 열렸다.

“세상에! …” 판사가 외쳤다. “나는 이미 예감했어…”

방 안을 들여다보니, 바닥에 수건과 목욕 가운으로 단단히 묶이고 입은 막힌 채, Roubeau 형사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다치지 않았지, Roubeau? 아, 이 도적들아, 네가 얼마나 단단히 묶였는지 보라! 하지만, 세상에, 어떻게 당했던 말이야? 너 같은 사내 말이야.”

형사는 구조되었다. Roubeau는 분노에 이를 갈았다.

“두 명이었어!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그래, 두 명이었지. 다른 한 명은 어디서 나타났을까? 숨어 있었던 게 분명해. 그는 내 등 뒤에서 목을 때리며 공격했어.”

Mauléon은 전화기를 집어 들고 명령했다.

“누구도 이 호텔에서 떠나지 마라! 예외는 없다! 알겠느냐? 도망치려는 자는 누구든 즉시 체포하라.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며 소리쳤다.

“그래, 여기에는 두 명이 있었군! 그런데 다른 한 명, 즉 두 번째 사람은 어디서 나타났단 말인가? 루보의 동료여, 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구나. 어서 찾아보라, 똥보야. 욕실부터 확인했느냐? 그곳에 숨어 있었을 게 뻔하다.”

“저는요, 루보가 말했다. … impression이 들었습니다. 제가 욕실을 등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욕실을 점검했다. 하지만 단서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때때로 옆 방과 연결되던 문의 빗장은 정상적으로 걸려 있었다.

“수색하라!” 총감이 명령했다. “철저히 수색해야 한다. 루보, 너도 따라오라. 우리는 아래층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는 복도에 모여든 사람들을 헤치고 나섰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왼쪽으로 걸어가려던 찰나, 오른쪽에서 요란한 소음이 들려왔다.

복도는 호텔이 이루는 넓은 사각형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루보가 지적했듯, 비미스는 후면으로 향하는 오른쪽 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곳은 폰티외 가를 내려다보는 곳이었다.

“하지만 라르마동이 경비 중입니다. Mauléon이 말했다. “명령도 분명합니다.”

소음은 점점 커졌다. 첫 번째 코너를 돌아마자, 복도 끝에서 무리들이 보였다. 그들이 손짓하며 그들을 불렀다.

손바닥만한 안방처럼 생긴 공간에는 야자수들이 가득했고, 안락의자들도 놓여 있었다. 마치 겨울 살롱 같았다. 그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바닥에 누운 시체 곁에 몸을 굽히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야자수 두 그루 사이에 숨겨져 있던 시체를 방금 발견한 참이었다.

루보가 말했다.

“영국인…… 그 사람 맞아요. 피투성이예요.”

“뭐? 빔리시? 죽지는 않았지?”

누군가 대답했다. 무릎을 꿇고 시신을 살피고 있던 사람이었다.

“아니요. 하지만 중상을 입었어요. 어깨에 칼을 맞았죠.”

“그럼, 루보.” 몰레옹이 외쳤다. “그건 다른 놈이겠군. 숨어 있다가 네 등을 찌른 그 자 말이야.”

“당연하지. 동료를 없애려다니. 다행이야. 출구를 모두 막았으니, 그 자는 이제 우리 손안에 들어왔어.”

빅토르는 두 경찰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지 않았다. 소동이 일어난 틈을 타서 두 번째 계단 쪽으로 달아나,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1층은 폰티외 거리 출구가 가까웠다. 호텔 종업사들이 그 주변을 바글바글 메우고 있었고, 라르마와 형사 두 명이 경계하고 있었다. 빅토르가 라르마에게 손짓했다. 라르마는 말을 건넌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 주었다.

“통행이 안 됩니다, 빅토르. 지시가 그렇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신분증을 보여주더냐?”

“네. 가짜였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것이었죠.”

“세상에나!”

“그 남자는 도망쳤나?”

“물론이지.”

“외모는 어땠나?”

“잘 기억 안 납니다. 외모가 젊은 편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야?”

빅토르의 확신은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뤼팽이 개입된 이 혼란스러운 순간들은, 늘 그렇듯 코믹하고 우스꽝스러운, 연극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마를론은 창백해져 당황한 채, 자신의 창백함으로 인해 거짓임이 드러나는 침묵을 가장하며, 마치 군 지휘관이 사령부에 있는 것처럼 상무

국 사무실에 상주했다. 그는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 증원군을 요청했고, 호텔 구석구석에 사령을 보냈다. 그러면서 서로 모순되는 명령을 내려 모든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뤼팽! … 뤼팽이야! … 그는 꼼짝 못 해! … 우리가 봤어…”

그때 영국인 빔이시가 구급상에 누운 채 지나갔다. 그는 보주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고, 당직 의사는 단언했다.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아… 내일쯤은 심문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곧 폰티외 거리에서 루보가 매우 당황한 채 도착했다.

“그가 뒤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라르마나에게 당신의 서명이 적힌 카드를 건넸습니다, 상사!”

몰레옹이 격분하여 소리쳤다.

“위조 문서야! 나는 단 한 장도 서명하지 않았어! 라르모나트를 불러!”

루보가 화살처럼 날아갔다.

“위조예요! 서명까지 흉내 낸 게 아니예요. 저런 당돌한 짓은 뤼팽 말고는 못 해요. 영국인 방에 올라가서… 잉크병과 펜, 그리고 호텔 명함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 봐요.”

루보가 다시 화살처럼 날아갔다.

다섯 분 뒤, 그가 돌아왔다.

“잉크병은 아직 열려 있었어요. 펜도 제자리에 없었고요. 호텔 명함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조는 당신이 묶여 있는 동안, 바로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거군.”

“아닙니다. 내가 보았을 거예요. 영국인은 신발을 신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도망쳤어요.”

“하지만 둘 다 우리가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영국인 옆에 누군가 있었어요. 페루 출신의 남자였는데...”

“마르코스 아비스토요. 그 자식은 지금 어디 있죠?”

루보가 다시 날카롭게 소리쳤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방은 비어 있었죠. 셔츠 세 벌, 정장 한 벌, 세면도구들, 그리고 방금 사용한 것 같은 메이크업 상자. 상

자는 닫히지도 않은 채로 놓여 있었어요. 페루 남자는 도망가기 전에 분장을 풀었을 겁니다.”

“공범이 분명합니다. Mauléon이 말했다. “그들은 세 명이었군요. 부장님, 욕실 옆 방에 있던 방은 누가 썼습니까?”

호텔 평면도를 확인했다. 부장은 매우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 방은 빔시 씨가 임대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가 목기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그는 두 방을 모두 빌린 거죠.”

모두 경악했다. 몰롱이 요점을 짚었다.

“결국, 세 사람은 같은 층에 가까운 곳에 살았다고 봐야 합니다. 마르코스 아비스토는 345호, 비미쉬는 337호, 그리고 아르센 뤼팽은 그 옆방에 있었죠. 그 방은 마브프 거리 바에서 도망친 후 은신처로 쓰던 곳입니다. 뤼팽은 다친 몸을 회복하고 있었죠. 비미쉬가 은밀하고도 능숙하게 간호하고 돌봐주었습니다. 그 정교함 덕분에 층 직원들은 뤼팽이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새로 들어온 가티에 형사국 국장 앞에서 설명되었다. 가티에는 몰롱 형사의 보고를 이미 들은 상태였다. 가티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설명을 받은 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비미슈는 붙잡혔다. 만약 그 카드를 뤼팡이 쓴 게 아니라면, 그는 아직 호텔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페루인이 그곳에 있다는 건 확실하다. 수색이 훨씬 수월해졌으니, 이제 모든 지시를 해제한다. 각 출입구마다 형사를 배치해 드나드는 사람을 감시하게 하겠다. 몰레온, 방들을 살펴봐라. 단, 예의 바르게. 압수수색이나 심문은 하지 마라. 빅토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몰레온이 반박했다.

“빅토르는 여기 없어요, 상사.”

“있지.”

“빅토르요?”

“그렇다. 모던 브리데 소속의 빅토르. 내가 도착했을 때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동료들과 호텔 문지기랑 수다를 떨고 있었어. 루보, 그를 불러라.”

빅토르가 모습을 드러냈다. 좁은 재킷을 입은 채 다소곳이 서 있었고, 평소처럼 표정이 굳어 있었다.

“당신도 거기 있었군요, 빅토르?” 몰롱이 물었다.

“방금 도착했어요. 제게 상황을 파악할 시간을 좀 주라고 했죠. 정말 잘했어요. 영국인 체포는 큰 수비죠.”

“그렇지만, 뤼팡은요?”

“그건 제가 볼 일입니다. 당신이 일을 너무 재촉하지 않았다면, 뤼팽을 그대로 구워 드렸을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의 동조자, 마르코스 아비스토, 브라질인 말이에요?”

“그도 그대로 구워 드릴 뻔했어요. 마르코스는 제 좋은 친구 중 한 명입니다. 참으로 매력적인 소년이지요. 그리고 실력도 출중하죠. 아마 당신 코밑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몰롱은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이 할 말이 다 그 정도라면...”

“음,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작은 발견을 하나 했어요. 흠, 사소한 것일 뿐이고, 아마 우리 사건과 관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무슨 일이죠?”

“목록에 머딩이라는 다른 영국인도 있잖아.”

“네, 에르베 머딩이요. 그는 지금外出 중이었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걸 봤어. 문지기에게 그 사람에 대해 물어봤지. 그는 월세로 방을 하나 얻었는데, 거의 자지 않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후에만 찾아온대. 항상 같은 여자가 그를 만나러 오는데, 우아하게 치마를 길게 덮어쓴 그 여자와 함께 차를 마신다고 해. 그 여자는 때때로 로

비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지금처럼 이곳이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워지자 다시 돌아갔지. 아마 영국인 머딩을 불러내는 게 좋을 거야.”

“루보, 너는 가봐. 그 영국인 머딩을 데려와.”

루보가 재빠르게 뛰어가 한 남자를 끌고 왔다. 그 남자는 분명히 ‘에르브 머딩’이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없었고, 영국인도 아니었다.

모를롱은 그를 즉시 알아보고 놀란 기색으로 외쳤다.

“뭐?! 당신인가요, 페릭스 드발? 구스타브 제롬의 친구, 생클로드의 부동산 중개인 말입니다. 영국인인 척하다니요?”

페릭스 드발은 구스타브 제롬의 친구이자 생클로드의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그는 다소 당황한 표정이었다. 농담을 섞어 보려 했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어딘지 어색하게 울렸다.

“네… 그렇죠… 파리에서 한 칸의 거처를 갖는 게 편리하잖아요… 연극 보러 갈 때요.”

“그런데 왜 다른 이름을 쓰는 겁니까?”

“단순한 취향입니다… 그리고 그게 남의 간섭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만나는 그 여자는요?”

“친구일 뿐입니다.”

“친구인가? 여전히 베일을 쓰고 다니는?”

“아마 결혼도 했을지도.”

“아니… 아니야. 하지만 그녀에게는 사정이 있어.”

사건은 다소 코믹해 보였지만, 왜 저렇게 어색한 태도를 취하는 걸까? 망설임은 또 무엇이었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Mauléon이 계획을 살피며 입을 열었다.

“Félix Devalle의 방도 3층에 있소. 겨울 작은 살롱 바로 옆이지. 그곳에서 영국인 Beamish를 때린 곳 말이야.”

Gautier 씨는 Mauléon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이 우연의 일치가 놀라웠다. Félix Devalle를 네 번째 공범으로 봐야 할까? 그를 방문하는 베일 쓴 여인은, 시네 발타자르의 숙녀이자 Élise Masson의 살인자가 아니었을까?

그들은 Victor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Victor는 어깨를 으쓱하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너무 깊이 파고들었군. 내가 말했지, 이 사건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전채요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해.”

고티에 씨는 펠릭스 드발에게 사법 당국의 지시에 따르라고 명했다.

“좋아, 결론은 이렇네.” 빅토르가 말했다. “이제 차장님, 며칠 뒤 아침에 한번 만나주실 수 있겠나?”

“새로운 단서가 나온 거야, 빅토르?”

빅토르는 모를론 지사를 따라 호텔 안을 수색하는 데 동행하지 않았다. 대신 바실리에프 공작 부인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영국인 빔시슈의 체포가 그녀에게 치명적인 폭로를 불러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교환수화실로 슬그머니 들어갔다. 모든 규정이 해제된 상태였다. 그는 여직원에게 345번으로 연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345번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고집을 부리시겠어요, 미스?”

다시 한 번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없었다.

빅토르는 문지기에게 다가가 상황을 물어보았다.

“345호 여자분 나가셨나요?”

“바실리에프 공주님이요? 네, 나갔습니다. 한 시간쯤 전이었죠.”

빅토르는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나갔다고요? 갑자기?”

“아니요, 전혀요. 짐들은 어제 모두 치워졌고, 계산도 오늘 아침에 끝났습니다. 남은 건 여행용 가방 하나뿐이었죠.”

빅토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알렉산드라 바실리에프가 떠난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는가? 그녀가 떠나는 것을 막을 이유도 없지 않았는가. 게다가 뤼팽의 허락을 기다릴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렇다고 해도, 속은 타들어 갔다.

기절해 버린 뤼팽. 사라진 알렉산드라.

어디서, 어떻게 그들을 찾아야 할까?

제9장

“하룻밤이면 모든 파탄을 수습할 수 있다.” 빅토르의 말이었다.

다음 날 저녁, 친구 라르모나가 그를 찾았을 때, 빅토르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은 가라앉아 있었고, 자신감도 넘쳐 보였다.

“일시 유예일 뿐이야.” 그가 단언했다. “내 수법은 너무 단단해서 겉 모습만 어지러워졌지.”

“내 의견을 들어볼까?” 라르모나가 물었다.

“이미 알고 있어. 넌 이미 지쳤지.”

“그래, 맞아. 너무 복잡해졌어. 경찰이라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 쓰는 수법이 아니야. 가끔은 네가 오히려 저편에 있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

“목표에 도달하려면 길은 고를 수 없는 법이지.”

“아마도 그렇지. 하지만 난…”

“넌 실망한 거야. 그렇다면 그만두는 게 좋겠어.”

“자, 친구.” 라르마나가 단호한 어조로 외쳤다. “네가 제안하니까, 난 받아들인다. 끊어 버리지는 않겠지. 너에게 너무 고마움을 느끼니까. 다만 잠시 멈출 뿐이야.”

“오늘따라 영리하군.” 빅토르가 비웃었다. “그래도 네 그 양심에 대해서는 탓할 수 없지. 그럼 형사국에서 다른 협력자를 찾으면 되지.”

“모르겠어. 이사가 어찌고…”

“뭐? 고티에 씨?”

“아마도… 누가 알겠나? 형사국에서는 뭐라고들 하던데?”

“신문에 나온 대로지. 모를론이 환호하고 있잖아. 어쨌든 뤼팽은 잡지 못했지만, 영국인을 얻었어. 러시아인 세 명까지 합치면, 꽤 그럴듯한 구성이야.”

“영국인은 입을 닫고 있는 건가?”

“러시아인들처럼 말이야.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뤼팽이 자신을 구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지.”

“그리고 쾰라우의 친구인 페릭스 드발은?”

“모를론이 그 사안을 두고 발버둥치고 있군. 오늘 그는 생클로드와 가르슈에 있다고 해. 정보를 수집 중이야. 그 단서는 진지해 보인단다. 일반 시민들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고. 펠릭스 드발의 관여가 많은 의문을 풀어줄 수 있어. 요컨대, 모두가 들떠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 마디, 친구. 드발 관련, 특히 그의 생계 수단과 재산 상태에 대해 소식이 들어오면 당장 전화해. 모든 게 거기에 달려 있어.”

빅토르는 집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 그는 이런 시기를 좋아했다. 행동의 한창 한숨을 돌리는 시간, 그 동안 온갖 모험을 두루 검토하고, 앞뒤 에피소드를 펼쳐놓으며, 스스로 차근차근 쌓아 올린 생각과 사실을 대조해 보는 시간 말이다.

목요일 밤, 라르마나로부터 연락이 왔다. 펠릭스 드발의 재정 상태는 최악이었다. 빚도 많고, 허세도 부렸지만, 그는 주식시장의 급등락과 절박한 투기꾼들 사이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채권자들은 그가 이미 끝장났다고들 했다.

“소환장을 받았나?”

“내일 오전 11시, 수사판사로부터.”

“그 말고는 없나?”

“아니요. 오토레이 여사와 제로므 씨도 소환됐습니다. 몇 가지를 명확히 하려는 거죠. 국장과 모를롱도 참석할 예정이고…….”

“나도 갈 거야.”

“너도?”

다음 날 아침, 빅토르는 먼저 캠브리지 호텔로 들러 갔다. 펠릭스 드 발이 머물렀던 방은 현재 폐쇄된 상태였다. 그는 그곳으로 향했다. 그 후 그는 고티에가 기다리고 있는 경찰청으로 향했다. 그들은 모를롱 경감과 함께 수사판사 집무실로 들어갔다.

1분이 지나자 빅토르는 하품을 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의 태도는 너무도 무례해서, 그를 잘 아는 고티에 씨가 참다못해 말했다.

“도대체 뭐야, 빅토르.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하라고.”

“할 말이 있긴 합니다.” 빅토르는 투덜거리는 표정으로 말했다. “다만 오토레이 씨와 귀소름 제로－ム 씨가 있는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기이하지만 진지한 인물로 알려졌다. 게다가 자신의 시간뿐 아니라 남의 시간도 아끼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런 확실한 이유 없이 이 대면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먼저 남작 부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 상복을 두른 채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였다. 잠시 후, 귀소름 제로－ム도 함께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경쾌한 모습이었다.

모를레옹은 자신의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좋아, 가보게, 빅토르.” 그가 투덜거렸다. “중요한 진술이라도 있는 건가?”

“진술은 아닙니다.” 빅토르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저희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목을 막고 있는 오류와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다시 시작하려면 반드시 그 지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한 번 그 작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이자 방공채권(Bons de la Défense)을 둘러싼 모든 것을 정리해냈죠.

이제 뤼팽에게 최종 공격을 가하기 전에, 비코크의 살인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무대에 남은 인물은 드 오흐루여사, 그리고 귀스타프 제롬 부부와 펠릭스 데발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그가 가브리엘 드 오흐리에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부인,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편의 자살을 자백으로 보십니까?”

그녀는 검은 크레프 베일을 벗어 던졌다. 창백해진 얼굴과 눈물로 붉어진 눈이 드러났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남편은 범행이 있던 밤,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인의 주장이고, 그 주장이 믿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내야 할 진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빅토르가 말했다.

“제가 주장하는 것以外에 다른 진실은 없습니다. 다른 진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빅토르가 말했다.

그리고 구스타브 제로메에게 말을 돌렸다.

“저 여자는 아시죠, 가스타브 제롬. 방금 전 마지막 만남 때 암시했듯이, 단번에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건가요?”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맹세합니다.”

“거절하는 겁니까?”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빅토르가 말했다.

“그럼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오드레이 백부님께 끔찍하고도 가혹한 상처를 남기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일입니다. 차라리 지금 잘라내는 게 낫습니다.”

모든 질문에 회피하던 남자에게는 어울리지 않게, 가스타브 제롬이 당황한 듯 항의의 제스처를 취했다.

“경감님, 지금 하려는 일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 심각한지 알려면, 제가 하려는 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하세요.”

빅토르가 기다렸다. 상대방이 침묵을 지키자, 그는 결연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범죄가 일어난 그날 밤, 구스타브 제로르는 친구 펠릭스 드발과 함께 파리에서 저녁을 먹었다. 두 사람은 맛있는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사랑하는 식도락가라, 이런 외식은 자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날은 유난히 술이 많이 따라졌다.

그 결과, 밤 열한 시 반쯤에 구스타브 제로르가 귀가했을 때, 그는 이미 정신이 흐릿한 상태였다. 사거리에서 마지막으로 켐멜 리큐어를 한 모금 들이키자, 취기는 한층 더 깊어졌다. 그는 간신히 운전을 해내며 자신의 차를 몰아 가르슈 도로를 따라 달렸다.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 자신의 집 앞이었을까? 그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는 현재 살고 있는 빌라 앞이 아니

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집 앞에 서 있었다. 그곳은 그가 지난 십 년 동안 거주했던 곳으로, 파리에서 좋은 저녁을 먹고 돌아올 때마다 밤마다 수없이 들어왔던 집이었다.

그날도 그는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평소처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주머니에 열쇠가 있지 않은가? 그 열쇠 때문에 현재 세입자인 오토레이와 법정 다툼까지 벌인 적 있었다. 그는 고집스럽게 그 열쇠를 항상 주머니에 지니고 다녔다.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그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이름을 대며 지나다녔다. 그는 계단을 올랐다. 그리고 자신의 열쇠로 문을 열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완벽하게, 자신의 집 안으로. 다른 곳이 아니라, 확실히 자신의 집이었다.

흐려진 눈과 흔들리는 뇌를 가진 그가, 자신의 아파트와 현관을 알아보지 못하겠는가?

가브리엘 드 오토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빅토르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문장마다 쉼표를 두며 하나씩 끊어 말했다.

“그가 자신의 방 문을 모를 리가 없지. 똑같은 문이야. 돌리는 손잡이도 같고, 밀어 여는 판자도 같아. 방 안은 어둡지. 그가 아내라고 믿

는 여자는 잠든 척하고 있어. 그녀는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리고,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중얼거렸지. 그제야 그녀도 환각에 빠진 거야. 아무 것도 그 환상을 깨뜨리지 못해. 아무것도.”

빅토르가 말을 멈췄다. 도트레 백작 부인의 공포는 끔찍할 지경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기억들이 깨어나 그녀를 때리고 있는지, 어떤 디테일들이 다시 떠오르는지 짐작이 갔다. 결국, 그녀에게 무서운 논리로 강요되는 모든 설명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귀스토 제로미를 바라보며 경악의 제스처를 취했고, 몸을 돌려 한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가렸다.

모든 것이 큰 침묵 속에서 일어났다. 빅토르가 한 기묘한 고백과 백작 부인의 수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브리엘 도트레는 자신의 크레프 천으로 머리를 가렸다.

귀스토 제로미는 그곳에 서서 약간 당황한 듯 반쯤 웃으며 매우 코믹하게 보였다. 빅토르가 그에게 말했다.

"맞는 거죠, 맞죠? 제가 잘못된 건 아니죠?..."

다른 한쪽은 고백해야 할지, 아니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감옥에 갇히는 쪽을 택하는 ‘신사’ 역할을 끝까지 고수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결국 그는 입을 열었다.

“네... 맞아요... 저는 술에 취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혀 몰랐죠. 깨어나서야, 여섯 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오드레 이 후작님은 저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먼저는 은은하게, 곧 억누를 수 없는 웃음이 발리두 씨에서 고티에 씨로, 비서에서 Mauléon 본인에게로 퍼져 나갔다. 그러자 Gustave Géraume의 입꼬리가 크게 벌어졌다. 그도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 이 사건이, 이제야 그에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절망적인 어조로 다시금 말했다. 무릎 꿇고 있는 검은 형상에 게 향하며.

“미안합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후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남작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빅토르가 말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먼저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도요. 네, 당신을 위해서요. 언젠가 제게 감사할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베일로 얼굴을 감춘 채, 수치심에 몸을 굽힌 채 방을 나갔다.

빅토르는 여전히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비로운 어조로, 그러나 그 안에는 어쩔 수 없는 비꼬미 섞인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엾은 여인이시라! 내가 단서를 잡은 건, 그날 밤 그녀의 남편 귀국을 이야기하는 태도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귀국을 떠올릴 때면 감격에 찬 어조를 지웠다.

‘저는 그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그녀는 마치 드문 일이었던 양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 오토루이 씨는 아내에 대해 그저 애정 이상의 감정이 없었다고 했다.

명백한 모순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 모순을 깨달은 순간, 문득 그 열쇠 이야기가 떠올랐다. 오토루이가와 제로姆가 사이에 수많은 다툼을 불러일으켰던 그 열쇠 말이다. 두 생각이 부딪히자,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생각이 정리되었다.

제로姆 씨, 즉 집주인이자 이전 세입자였던 그 남자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그렇다면 그 뒤의 일들은 자연스레 추론될 수밖에 없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이다.”

“그럼 살인 사건은?” 발리두 씨가 물었다.

“살인은 드오토리가 혼자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계 여자는요? 엘리즈 마송의 계단에서 마주쳤던 그 여성 말입니다.”

“그녀는 엘리즈 마송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즈를 통해, 바론 드오트리가 ‘국방 채권’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채권이 레스코 씨 댁에 있다는 것과, 바론이 그것을 다시 빼내려 할 것이라는 정보도요. 그래서 그녀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둑질을 하러?”

“아닙니다. 제 조사 결과, 그녀는 도둑이 아니라 신경증 환자였습니다. 자극을 갈구하는 사람이었죠. 호기심으로 그곳에 갔다가, 마침 살인이 일어나는 순간에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도망칠 시간도 없이,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 쪽으로 달아났을 뿐입니다.”

“그 자동차는, 즉 뤼팽의 차를 의미하는군요?”

“아니요. 뤼팽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실패한 뒤에도 방위채권에 계속 매달렸다면 사건은 더 잘 처리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천만 프랑 사건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고, 그의 연인은 그와 상관없이 혼자 행동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도트레이는 아마 그녀를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도망쳤고, 집으로 돌아가는 용기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새 큰길들을 배회하다 새벽녘에 이르러 엘리즈 마송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남작부인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무심코 저지른 오해가 남편을 열정적으로 옹호할 수 있게 했고, 남편이 밤새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진심으로 확신하며 저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도트레이는 그 오해를 전혀 알지 못했군요…”

“물론이지. 하지만 오후가 되자, 그는 아내가 자신의 편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

“그걸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의 아내와 나눈 대화는, 문 너머에 있던 노모의 귀에 들어갔거든. 그 노모가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노리는 눈매의 기자 한 명에게 붙잡혔고, 그 기자에게 그 장면을 모두 털어놓았지. 기자는 그걸 기사로 써서 저녁 간행물 하나에 넘겼어. 하지만 그 기사는 거의 주목받지 못한 채 묻혀버렸지. 그런데 오후 네 시경, 가드 드 노르 역 근처에서 드 오트레이가 그 신문을 사들인 거야. 그는 당연히 경악하며, 아내가 자신에게 설득력 있는 알리바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래서 그는 출국을 포기했고, 약탈한 보물은 안전한 곳에 숨긴 뒤,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했어. 그런데…….”

“그런데?”

“자, 그 남자가 이 알리비의 가치를 정확히 깨달았을 때,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를 조금씩 알아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구타했습니다.”

빅토르가 말을 마쳤다.

“이제 우리는 알리비가 바론 도트레이가 아닌, 구스타브 제롬을 위해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롬이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범죄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알면, 비코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는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헨리에트 제롬, 그의 아내를 통해서입니다.”

“그녀를 소환했습니다,” 발리두 판사가 말했다.

“판사님, 펠릭스 드발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먼저 헨리에트 제롬이 들었고, 이어 펠릭스 드발이 들어왔다.

그녀는 몹시 지친 듯 보였다.

재판장이 그녀에게 앉으라고 청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빅토르가 그녀에게 다가와 몸을 굽혔다. 그리고 무언가를 주워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작은 머리핀이었다. 구리빛의 물결무늬 빗발핀이었다.

빅토르가 그것을 살펴보자, 앙리에트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 들고 머리에 꽂았다.

“여보시죠, 마담?”

“확실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건 여기서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 개의 다른 핀들과 보석류들과 함께, 크리슬 작은 그릇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그릇은 캠프리지 호텔에서 펠릭스 드발이 묵던 방에 있었죠. 그곳에서 당신이 그를 만나곤 했잖아요.”

“당신은 펠릭스 드발의 애인이군요.”

빅토르의 필살기였다.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방어가 불가능해 보이는 수단을 써서 일격에 끝내는 방식이었다.

젊은 여성은 숨이 막혀 올랐다. 그녀는 저항하려 했지만, 빅토르가 내리친 또 한 방에 그녀는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몰랐다.

“부인, 부인하지 마십시오. 이런 증거가 스무 개나 있습니다.”

빅토르가 단언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그런 증거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당황한 그녀는 어떻게 반격해야 할지,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펠릭스 드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공격의 거침없음에 그는 당황한 모양이었다.

빅토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모든 사건에는 운과 필연이

논리적이지 않죠. 그리고 펠릭스 드발과 제라움 씨가 만남의 장소로 캠브리지 호텔을 정한 것도 그저 순전한 우연일 뿐입니다. 그 호텔은 마침내 아르센 뤼팽의 본거지였으니까요. 우연일 뿐이죠. 단순한 우연이라고요.

펠릭스 드발이 분노한 듯 팔을 휘저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경감님, 저는 경감님이 제 존경심을 가진 한 여성을 비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장난은 그만두자고.” 빅토르가 말했다. “저는 단순히 몇 가지 사실을 나열할 뿐입니다. 이 사실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만약 조사 판사가 여러분이 Géraume 씨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는 여러분이 이 사건을 이용해 연인의 남편을 의심스럽게 만들려 했는지, 그리고 연인의 체포에 가담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Mauléon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Gustave Géraume의 서랍을 수색하라고 조언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인을 설득해 권총 탄환 두 발을 제거하게 한 것도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정원사 알프레드가 여러분의 친구인 Géraume 씨 밑에 배치된 것도 여러분의 손짓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알프레드를 매수해 주인을 배반하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것도 여러분이 아닌가 하고 묻게 될 것입니다.”

“당신 미쳤군요!” 펠릭스 드발이 분노에 얼굴이 붉으며 소리쳤다.
“내가 그런 짓을 할 동기가 뭐란 말인가?”

“당신은 파산했습니다, monsieur. 당신의 연인은 부자입니다. 타락한 남편과 이혼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당신이 이겼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망해버린 남자가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을 하듯, 고개를 숙이고 그 모험에 뛰어들었습니다. 증거에 관해서는……”

빅토르가 발리두 판사를 향해 돌아섰다.

“판사님, 사법 경찰의 역할은 엄격한 수사를 통해 사법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증거는 판사님께서 쉽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결론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올 거라 믿습니다. 다트루의 유죄, 귀스타브 제롬의 무죄, 그리고 펠릭스 데발이 사법을 기망하려 한 시도가 그것입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엘리즈 마송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말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펠릭스 드발은 도발적인 태도를 취했다. 물론은 고개를 끄덕였고, 판사와 고티에 씨는 현실의 모든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그의 논리에 압도당했다.

빅토르는 담배 한 갑을 검사님과 고티에 씨에게 건넸다. 두 사람은 대충 받아 든 채 라이터를 켜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자리를 뜨며 다른 이들이 계속 일을 하도록 내버려뒀다.

복도에서 고티에 씨가 그를 따라잡았다. 고티에 씨는 그의 손을 힘차게 쥐었다.

“대단했어, 빅토르.”

“머리님, 그 사나운 물론이 제 발밑의 풀을 베어가지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대단했을 텐데요.”

“무슨 뜻이야?”

“음, 캠브리지 호텔에서 제가 그 무리를 다 잡았을 때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당신도 그 호텔에 있었군요?”

“물론이지, 형사님. 오히려 방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영국인 비미스와 함께?”

“당연하지.”

“하지만 그 방에는 페루인 마르코스 아비스토만 있었던 말이오.”

“페루인? 그게 바로 저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요?”

“진실입니다, 형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제발 믿으십시오, 형사님. 마르코스 아비스토와 빅토르는 같은 사람입니다.”

빅토르는 고티에의 손을 꼭 쥐며 덧붙였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형사님. 사흘 후면 마울롱의 실수를 바로 잡고, 뒤펅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대 입 밖으로 새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

“하지만 당신은 인정해야 하지 않소…”

빅토르는 한 타버나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

비코크의 살인 사건, 오프레이 가, 제로姆 가, 그리고 펠릭스 드발의 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디그랑, 타자기 치는 에르네스티느, 그리고 샹생 부인 때처럼, 경찰이 이 모든 사람들을 처리하도록 맡겨두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모호함이 없다. 제삼자가 일으키는 잘못된 행동도 없다.

모를롱도, 라르마톤도, 자신에게 의존해야 할 사람들도 더 이상 없다.

뤼팽과 알렉산드라, 알렉산드라와 뤼팽. 오직 그들만이 중요했다.

그날 이후 빅토르는 단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캠브리지 호텔에서의 소동 다음 날부터 그는 확신했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에게 건넨 약속의 장소를, 만약 다시 만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낸 그 약속을, 바실리에프 공주는 반드시 찾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그 상황에서 수행한 역할, 그리고 그 격렬한 충돌이 그들을 서로 부딪치게 하다가도 같은 위험 속에서 하나로 묶어주었던 일.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그녀가 다시는 자신을 보지 않기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재능 있고, 강인하며, 유익하고 헌신적인 남자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 인상을 남겼기에,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끌려올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는 기다렸다.

아이들이 모래로 놓고 있었다. 오래된 숙녀들은 나무 그늘이나 탑 그림자 아래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낮잠을 자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남자는 펼친 신문을 들이대고 읽고 있었다.

십 분, 십오 분, 이십 분이 흘렀다. 세 시 삼십 분, 빅토르가 안절부절못했다. 정말로 그녀는 오지 않는 걸까? 그를 이어주는 실을 끊어 버릴 작정인가? 파리를 떠났는가, 아니면 프랑스를 떠났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녀를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뤼팽에게 다가가야 할까?

잠시 동안의 불안이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고, 그는 고개를 돌려 그 미소를 감췄다. 바로 맞은편, 펼친 신문 아래로 보이는 두 다리는 아니었을까?

다시 오 분을 기다린 그는 일어나 천천히 출구 쪽으로 향했다.

한 사람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신문을 들고 있던 남자가 다정하게 다가와 말했다.

“마르코스 아비스토 씨, 맞습니까?”

“네, 바로 저입니다. 혹시 아르센 뤼팽이시죠?”

“네, 아르센 뤼팽입니다. 안토인 브레스락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죠. 제게도 왕비 바실리예프 공주의 친구라고 소개해도 될까요?”

빅토르는 즉시 그 남자를 알아보았다. 바로 캠브리지 호텔에서 앤서니 뎀시와 함께 있던 그 남자였다.

그가 먼저 눈여겨본 것은 짙은 회색, 슬레이트색 눈빛이었다. 그 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솔직함도 느껴졌다.

그 단호함은 친절함의 미소로 누그러졌다. 더구나 그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사려는 의도가 뚜렷했다.

그는 매우 젊은 분위기를 풍겼다. 넓은 어깨와 스포츠맨다운 유연함이 돋보였고, 턱선과 얼굴 뼈대에서는 막강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나이는 아마 마흔 쯤 되었을 것이다. 옷차림도 훌륭했다.

“캠브리지 호텔에서 뵈었습니다.”

“아하! 브레사크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도 한 번 본 사람을 절대 잊지 않는 특별한 재능이 있군요. 사실 저는 부상병처럼 숨어 있기 전까지, 빔리시의 두 번째 방으로 피신하기 전에 홀을 여러 번 들락거렸거든요.”

“당신의 부상은?”

“사실 별것 아닙니다. 하지만 아프고 불편하죠. 당신이 빔리시에게 알리러 왔을 때——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저는 거의 균형을 잡은 상태였어요.”

“어쨌든 그에게 나쁜 충격을 줄 만큼은 충분했군요.”

“글쎄요! 제가 당신에게 서명해 준 안전증명을 그에게 주지 않자, 저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때렸죠.”

“그는 입을 닫고 있을 거요?”

“물론이죠! 그는 제 미래를 너무도 믿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리볼리를 따라 걷고 있었다. 브레스크의 자동차가 멈춰 서 있었다.

“우리끼리 수다 떨지 맙시다.” 브레스크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우리 의견이 일치하죠?”

“무엇에 대해?”

“서로 일치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이로운지에 대해.” 브레스크는 밝은 어조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거주지는?”

“커뮤니지 이후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드맹두몽드 호텔.”

“그곳으로 갑시다. 짐은 챙기시고, 저는 잠시 쉬어가게 해 드리죠.”

“그만큼 급한 일인가요?”

“매우 급합니다. 한창 진행 중인 큰 사건입니다. 천만 프랑이 걸려 있어요.”

“공주님 말씀이시죠?”

“공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올라갔다.

드맹두몽드 호텔에서 빅토르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짐을 다시 들었다. 그는 일의 흐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파리를 벗어나 뉘이로 향했다.

루르 대로 끝자락, 한 골목 모퉁이에는 마당과 정원이 있는 두 층짜리 단독 주택이 하나 서 있었다.

“간단한 별장입니다.” 브레삭이 발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파리에 이런 집이 열 채쯤 있습니다. 잠자리가 필요한 사람만 잠깐 머물 수 있게, 인력도 최소한으로만 두고요.”

“당신의 스튜디오에서 자시면 됩니다. 2층, 방 옆에요. 1층은 공주가 쓰고요.”

창문이 거리로 향한 스튜디오는 안락했다. 좋은 안락의자와 소파 침대, 그리고 정성스럽게 고른 책들로 꾸며져 있었다.

“몇몇 철학자 책들이 있군요. 회고록도 있고요. 그리고 아르센 뤼팽의 모든 모험담이요. 잠들기 좋게요.”

“그건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브레삭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집 열쇠 필요하시죠?”

“왜요?”

“외출하셔야 할 때요.”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저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빅토르가 말했다. “출타 사이에는 혼자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무슨 일인지 알 때更是 그렇죠.”

“오늘 밤, 그러니까 저녁 식사 후에요. 공양을 위해 공작부인의 작은 거실로 모시겠습니다. 편리함도 있지만, 경계 차원입니다. 제 거주지 1층은 항상 경찰 급습이나 예상치 못한 싸움에 대비해 손볼 곳이 많거든요.”

빅토르는 짐을 풀고 담배를 피웠다. 그 후 작은 전기 다리미로 턴트바지 주름을 꼼꼼하게 펴고 옷을 갖춰다. 여덟 시가 되자 안투안 브레삭이 그를 데리러 왔다.

바실리에프 공주는 그를 매우 정중하게 맞이했다. 캠브리지에서 그와 그의 친구들을 위해 그가 해준 일에 대해 열렬히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곧 그는 자신 안으로 깊숙이 숨어드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거의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듣고 있을 뿐이었다.

거의 말하지 않았던 빅토르는 자신이 주인공이 된 두세 가지 모험을 이야기했다. 물론 그의 공로도 만만치 않았다. 반면 안투안 브레사크는 매우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는 재치가 있었고, 유쾌했으며, 자신을 과시하는 방식에도 재미있는 자만심과 아이러니가 공존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알렉산드라는 커피와 리큐르를 대접했다. 시가를 권한 뒤 소파에 누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빅토르는 넓은 쿠션 의자에 편안하게 앉았다.

그는 기분이 좋았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그가 미리 준비해 둔 순서대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알렉산드라의 동조자로서, 그 무리에 조용히 잠입했다. 점차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으며, 재주와 헌신을 증명해 보였다. 이제 그는 아르센 뤼팽의 비서이자 동료가 될 참이었다. 그는 이미 그들 내부에 들어와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필요로 했고, 그의 협력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었다.

당연히 이 일은 그의 뜻대로 끝이 날 것이었다.

‘잡았어… 내가 그를 잡았어…’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지나친 미소 하나, 어색한 어조, 혹은 엉뚱한 한마디라도 던진다면, 저런 영감 같은 자를 상대할 때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

“도착했나?”

브레삭이 경쾌하게 외쳤다.

“도착했지.”

“잠깐만요. 먼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대략 짐작 하시나요?”

“대략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과거를 단호히 뒤로 돌린다는 뜻이죠. 방위채권 문제, 비코크 사건, 그리고 신문들이 endlessly 되풀이하던 모든 잡담들. 사법부의 기이한 추측과 대중의 헛된 기대, 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잠깐만요. 오귀스타드 거리 살인 사건은요?”

“그것도 끝났습니다.”

“사법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생각은 나중에 말씀드리죠. 지금은 오직 한 가지, 단 하나의 목표만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실리에프 공작부인에게 당신이 쓴 편지에서 암시했던, 천만 프랑 사건입니다.”

양투안 브레사크가 외쳤다.

“좋아! 넌 정말 눈이 빠지도록 날 지켜보고 있군. 이제야 비로소 내 궤도에 오른 게로구나!”

제10장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 일은 언론이 천만 프랑 사건이라며 끝없이 추측했지만, 그럴싸한 가설 하나도 내놓지 못한 그 사건입니다. 이 일을 Beamish가 나에게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Beamish입니다.

그는 전쟁 후 아테네에서 일하던 젊은 타자기를 치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주 부유한 그리스인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 타자기 치는 여자는 나중에 기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 Beamish에게 옛 상사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Beamish의 강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드디어 그 파일들이 나왔다.

그리스인은 자국 화폐가 붕괴할까 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현금화했다. 한쪽에는 아테네에 있는 증권과 부동산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에피루스, 특히 알바니아에 있는 광대한 토지와 영지가 있었다.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졌다. 첫 번째 파일은 첫 번째 재산 부분, 즉 영국 은행에 증권 형태로 예치된 자산을 다루었다. 이 파일은 ‘런던 파일’이라고 불렸다. 두 번째 파일은 모든 토지와 영지의 매각을 다루었고, ‘A. L. B. 파일’이라고 불렸다. 의심의 여지 없이 ‘알바니아 (Albanie)’의 약자였다.

타이피스트가 확인한 계정에 따르면, 두 파일 모두 약 1천만 프랑의 비슷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런던 파일은 분량이 방대했다. 반면 A. L. B. 파일은 길이가 20~25센티미터쯤 되는 작은 뭉치였다. 끈으로 동여매고 봉인한 그 작은 뭉치는 그리스인이 항상 서랍이나 여행 가방 속에 넣어 두었다.

« A.L.B. 사건 파일은 에피로스에서 회수한 천만 프랑을 어떤 형태로 담고 있었을까? 수수께끼였다.

타이피스트가 결혼을 위해 그를 떠난 뒤, 그 상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 다른 미스터리였다. 내가 그를 만났던 삼 년 전, 비임시도 아직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

« 나의 국제 조직을 동원해 관련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벌일 수 있었다. 길었지만 효과적이었다.

그가 재산의 절반을 맡겨두었던 런던의 은행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은행이 파리 소재 X 씨라는 인물에게 예치된 증권들의 쿠폰을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X 씨가 독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는 고생이 많았다. 그 독일인의 주소를 찾아내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결국 그 독일인과 그리스인이 실은 같은 인물임을 밝혀냈다. »

앙투안 브레사크는 말을 멈췄다. 빅토르는 단 한 번도 질문을 던지지 않고 경청했다. 알렉산드라는 눈을 감은 채 잠든 듯 보였다. 브레사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 수사는 한 전문 기관의 도움으로 더 좁혀졌습니다. 그 기관은 믿을 만합니다. 그 그리스인 남자는 병석에 누워 거의 걸을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절대 자신의 저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하실이 아닌 1층에서 잠을 잤고, 두 명의 전직 형사를 고용해 밤낮으로 호위하게 했죠. 하인들은 세 명의 여성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모두 지하실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얻었죠. 그녀가 입주할 당시의 기록 사본을 입수한 덕분이었습니다.

그중 한 권에는 ‘보안용’ 전기 알람 설비 공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창문에 예외 없이 보이지 않는 장치가 달려 있어, 살짝만 눌러도 일련의 종소리가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런 방비를 쌓는 것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거나, 오히려 숨기려 할 때만 하는 법입니다.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요? A. L. B. 사건 파일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빅토르가 단언했다.

“다만, 그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요? 1층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곳은 우리 남성의 일상적인 삶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층은 비어 있고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고된 한 노파로부터 배웠습니다. 매일 그가 2층, 즉 최상층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어요. 그곳은 넓은 작업실로 꾸며져 있으며, 그는 오후 내내 혼자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곳에는 그의 서류들과 책들, 그리고 그가 가장 아끼던 두 사람, 딸과 손녀의 흔적들이 모여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수 공예품, 초상화, 장난감, 잡동사니 등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노파의 증언을 바탕으로, 저는 차분히 방의 평면을 그려냈습니다. 브레사크가 그것을 펼쳤습니다. 여기가 책상, 여기가 전화기, 여기가 책장, 여기가 추억을 담은 선반, 여기는 거울이 놓인 벽난로입니다. 그 거울은 움직일 수 있는 일체형 거울이었죠.

바로 그날, 특정 위치에 일체형 거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계획은 비로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연필로 종이 한 켠에 줄을 그으며 말했다.

“호텔은 약간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넓은 대로변에 있는데, 좁은 마당이나 오히려 가장자리에 난 작은 정원 띠, 그리고 높은 철조망으로

분리되어 있죠. 마당 양옆에는 벽이 둘러쳐져 있어요. 오른쪽에는 관목이 어지럽게 자라는 빈 땅이 있는데, 매물로 나와 있더군요. 저는 거기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어요. 고개를 들어 보기만 해도 유리창에 커튼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 하필 나인가요?”

“비엠이시 감옥에 있고, 당신을 직접 지켜본 결과라고나 할까요.”

“조건은?”

“수익의 4분의 1.”

“만약 제가 A. L. B. 파일을 찾아낸다면 절반이죠.” 빅토르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3분의 1입니다.”

“좋소.”

두 남자는 악수를 나눴다.

브레사크가 폭소를 터뜨렸다.

“두 상인이거나 두 금융인이 중요한 거래를 맺을 때는 서명을 하고, 종종 공증인 앞에서까지 한다. 반면 우리 같은 정직한 사람들은 정중한 악수 하나로 충분하지. 그 후로 나는 당신의 협력이 확실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당신도 내가 우리의 약속을 철저히 지킬 거란 걸 알고 있소.”

빅토르는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웃지 않았다. 그저 살짝 미소 지을 뿐이었다. 다른 쪽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답했다.

“당신이 말한 상인들이나 금융인들은 사안을 잘 파악한 후에야 서명하죠.”

“그래서?”

“글쎄, 우리 상대의 이름도, 그가 사는 곳도, 당신이 쓸 수단도, 당신이 정한 날짜도 나는 모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에게 불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저를 놀라게 하죠.”

브레사크는 망설였다.

“당신이 내세우는 조건인가요?”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글쎄요, 제가 하나 내세우겠습니다.” 알렉산드라가 갑자기 몽상에서 깨어나 두 남자 쪽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무엇을?”

그녀는 빅토르에게 말을 걸었다. 열정적인 표정과 명령조 목소리로.

“방금 방코크와 오제르드보강가 사건은 이미 해결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니까요. 그러면 다음 작전 때, 제가 저지른 것처럼 같은 짓을 저지르려 할 겁니다. 앙투안 브레사크나 저나 상관없어요.”

빅토르는 태연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도, 앙투안 브레사크에게도 아무것도 뒤집어씌우지 않습니다, 마담.”

“그럼 대체 뭐라고?”

“우리가 엘리즈 마송을 죽였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 중 한 동료가 죽였지만, 우리는 그 죽음에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법원의 판단이고,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건 더 이상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누구란 말이야? 생각 좀 해 봐! 우리는 엘리즈 마송 집에서 나오는 여자를 봤어. 그 여자는 바로 나였지. 아니, 정말로 나였어. 그렇다면 내가 범인이 아닌 게 어떻게 될 수 있겠어? 내 이름 말고는 아무도 언급되지 않았잖아.”

“네 이름을 제외하고 다른 이름을 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직 그 용기를 내지 못했을 뿐이야.”

“다른 사람이라니?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야?”

빅토르는 이제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는 걸 느꼈다. 안투안 브레사크에게 즉각적인 정보를 요구하며 내세웠던 그 제한 조건 때문에, 그는 동조자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립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한 번 더 입증할 기회였다.

“다른 사람이라니?” 그가 되물었다. “모던 브리데(사교계 형사대) 소속 빅토르 형사 말입니다.”

“무슨 뜻이요?”

“제 말이 단순한 추측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건 관련 자료와 신중한 기사 분석을 통해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제 생각처럼 빅토르 형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그는 천재적인 형사는 아니지만, 분명히 고위급 경찰입니

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경찰입니다. 동료들처럼, 그리고 우리 모두처럼, 약점과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존재죠.

사건 당일 아침, 그는 오토레이 남작과 함께 엘리즈 마송의 집을 방문해 첫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는 분명히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다시 내려온 후, 오토레이 남작을 차에 태우자마자 그는 순경 한 명에게 남작을 감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층 카페에서 전화기를 들고 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즉시 두 명의 형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문이 감시되기를 원했고, 철저한 수색이 끝날 때까지 엘리즈 마송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공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전화 연결이 쉽지 않았습니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고요. 그 15분 동안, 오토레이 남작이 연인에게 다시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도망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가 그를 막았겠습니까? 형사 비크토르는 다른 일로 바빴습니다. 순경은 교통 정리에만 신경 쓰고 있었고, 게다가 카브리올레의 천막 아래서 남작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만나려 했을까요?” 안토인 브레사크도 매우 주의 깊게 물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즈 마송의 방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하시나요? 가니마르 형사가 증언한 그 장면이요.”

“그녀는 막시므 다르트레이가 단순 절도범이 아니라 살인범으로 지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그 의심 자체가 그녀를 격분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니마르 형사가 분노로 오해한 그 감정은, 사실 공포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인이 ‘방어 국채’를 훔쳤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레스코 신부를 죽였을 거라고는 단 한 순간도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녀는 그 남자를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두려워했죠.”

“다르트레이는 그녀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고발할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 말을 걸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전용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위협으로 답합니다.”

“다르트레이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목표가 눈앞에 다가온 마당에, ‘방어 국채’의 주인이 된 그가, 마지막 순간에 실패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를 죽였죠. 하지만 그녀의 배신이 너무도 분명한 나머지, 그는 수초 동안 그녀를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이미 자동차의 차양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순경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가니마르 형사 역시 아무 의심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공주가 속삭였다.

“그렇습니다. 한두 시간 뒤에 도착한 당신이, 엘리스 마송 사건에 대해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하려는 목적으로 문을 열었을 때, 살인자가 있고 간 열쇠가 문에 꽂혀 있던 겁니다. 당신이 안으로 들어섰죠. 당신 앞에, 노란색과 초록색 스카프로 목이 졸려 죽어 있는 엘리스 마송이 널 브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녀에게 준 스카프였죠.”

알렉산드라는 크게 흔들렸다.

“맞아요… 맞아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진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스카프는 시체 옆 카펫 위에 놓여 있었죠… 제가 주워 들었어요… 공포에 질려 미쳐가고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양투안 브레스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진행되었죠… 범인은 오프레이입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은 자신의 무모함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는 빅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결국 당신은 만만치 않은 녀석이군. 처음 만나지만, 내가 기대고 갈 수 있는 동료라니… 마르코스 아비스토, 우리 함께 훌륭한 일을 해내 겠군.”

그는 곧장 필요한 정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그리스인 이름은 세리포스. 여기 근처, 부아드부르동 숲 옆 마요 거리 98번지 2호실에 산다. 다음 화요일 밤에 작업을 진행한다. 그날 밤, 12미터까지 늘릴 수 있는 특수 사다리가 내게 인도될 테다.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거다. 일단 안으로 들어간 뒤에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내 부하 세 명을 위해 현관문을 열어줄 거다.”

“열쇠는 현관문 안쪽에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아.”

“하지만 그 곳에도 전기 벨 장치가 설치되어 있겠지요. 문이 열리자마자 작동하도록 말이죠.”

“맞아요. 하지만 그 장치는 외부의 공격을 대비해 설계된 거지, 우리처럼 내부에서 침입할 때는 작동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장치 자체도 눈에 띄는 곳에 있죠. 제가 그 작동을 막기만 하면 돼요. 그 후, 제 부하들이 잠에서 깨어난 두 경비를 순식간에 묶어둘 테니까요.”

“그럼 이제 시간이 충분해집니다. 먼저 1층 방들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2층 서고를 철저하게 수색해야 해요. 거기에 돈뭉치가 있을 테니까요. 괜찮습니까?”

“물론이죠.”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다. 이번 악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

빅토르에게 그 몇 날은 달콤한 시간이었다. 그는 곧 다가올 승리를 마음껏 음미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방심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는 무척 조심스러웠다.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편지도 보내지 않았다. 전화 한 통 걸지도 않았다.

이런 태도는 브레삭에게 가장 큰 신뢰를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빅토르는 잠시 동안 자신의 주도와 통찰력으로 인해 지나치게 커진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이내 자신의 진정한 자리를 되찾았다. 그는 파트너였지만, 종속된 위치였다.

준비와 결정은 모두 안투안 브레삭의 몫이었다. 빅토르가 할 일은 그저 따라가는 것뿐이었다.

그는 두려운 적수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쾌감을 느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름만 들었을 뿐 정작 알지 못했던 그 남자를 가까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의 사생활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 치밀하게 작전까지 짰으니, 그 보람은 더했다. 브레삭이 경계심 하나 없이 그를 온전히 믿고, 자신의 모든 계획을 주저 없이 털어놓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Victor는 큰 만족감을 느꼈다.

때때로 Victor는 불안해지기도 했다.

‘내가 오히려 그에게 장난감을 당하는 건 아닐까? 내가 함정을 파놓았는데, 정작 내가 그 덫에 걸리는 건 아닐까? 저런 위엄 있는 남자가 이렇게 쉽게 속아넘어갈 리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아니었다. 브레삭은 전혀 의심 없이 자신을 내맡기고 있었다. Victor는 매일 스무 가지의 증거를 그에게서 발견했다. 그중 가장 확실한 증거는 알렉산드라의 행동이었다. 그는 오후의 대부분을 알렉산드라와 함께 보냈고, 그녀의 태도는 Victor가 그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구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마음이 놓인 듯했다. 종종 밝게 웃었고, 언제나 정중했다. 그리고 범인의 정체를 밝혀준 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 내가 발각되더라도, 적어도 ‘내가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릅니다.”

“왜 발각되시겠어요?”

“세상사 어찌 될지 누가 압니까?”

“알 수 있어요. 브레스크에 당신을 지켜줄 친구가 있잖아요. 그분이 절대 당신에게 해가 가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가 반드시 자신의 연인이 되어야 할 그 남자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비밀로 남았다.

비커는 때때로 그녀가 무관심하고 단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며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정말로 그녀의 연인일까? 그녀는 그를 다른 무엇보다도 위험을 함께 나누는 동료로 여기며, 그녀가 갈구하던 강렬한 감정을 그 누구보다 잘 줄 수 있는 존재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를 그에게 끌어당기고, 지금도 붙잡아두는 힘은 바로 ‘뤼팽’이라는 이름의 위엄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마지막 밤, 비커는 그들을 마주 보고 서서 입술을 맞댄 채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격분을 억누르느라 애를 썼다. 그러나 알렉산드라는 전혀 거리낌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왜 제가 이 분을 위해 온갖 미모를 다 발휘하는지 아세요? 내일 밤 제가 동행하게 해달라고 청하기 위해서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그는 거절합니다. 여자는 짐일 뿐이라고요. 그녀의 존재 때문에 모든 것이 어긋날 수 있다니, 혹은 마주해야 할 위험이 있다니. 결국 그럴싸해 보이는 핑계에 불과한 이유들이죠.”

그녀의 아름다운 어깨는 얇은 튜닉 밖으로 드러나, 그녀의 전체적인 매력을 한껏 부각하고 있었다. 열정적인 표정의 얼굴은 빅토르에게 간곡히 애원하는 듯했다.

“설득해 주시오, 친애하는 친구. 나는 그곳에 가고 싶소… 바로 위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아니, 위험을 사랑하는 게 아니요. 나는 두려움을 사랑하는 것이요. 맞아요, 두려움 말입니다. 머리를 빙글빙글 돌게 만드는 그 특별한 어지러움만큼 훌륭한 건 없소.

나는 두려워하는 인간들을 경멸하오. 그것은 바로 비겁함이요. 하지만 내 두려움은 나를 취하게 하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빅토르는 농담조로 안토니 브레사크에게 말했다.

“두려움을 사랑하는 이 병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
서도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만큼 끔찍한 일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요.
우리끼리 말인데, 그 감정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거
요.”

다음 날,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빅토르는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
다.

알렉상드르가 달려왔다. 회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매우 잘 어울리
는 옷차림이었다. 그녀는 마치 위험한 모험을 떠나는 여성이라기보다,
즐거운 소풍을 가는 아이처럼 매우 젊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눈동자의 빛을 보면, 그 기쁨 아래에 쉽게 놀랄 수 있는 예민한
감성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작은 병 하나를 보여 주었다.

“해독약이에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무엇에 대한 거죠?”

“감옥에 대한 거예요. 죽음은 인정하지만, 감방은 어떤 경우에도 싫
어요.”

그는 그녀의 병을 빼앗아 마개를 열고 바닥에 내용을 쏟아 부었다.

“죽음도 감방도 없어요.” 그가 말했다.

“그런 예언은 어디에 근거한 거죠?”

“이 사실예요. 뤼팽이 있으면 죽음도 감옥도 두려울 게 없으니까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 자신도 패배할 수 있다.”

“그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네…… 네……”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며칠째 이상한 예감이 들어…… 좋지 않은 꿈들만 꾸고 있어.”

자물쇠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거리 쪽 문이 밖에서 열렸다. 막 마지막 준비를 마친 앙투안 브레사크가 돌아오고 있었다.

“다 됐어.” 그가 말했다. “알렉산드라, 정말 고집을 부릴 거야? 알아 두게, 사다리는 높단 말이야. 올라가면 흔들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은 언제, 친애하는 친구? 자신 있나?”

빅터 역시 침묵했다.

세 사람은 누이유의 거의 비어 있는 대로들을 따라 걸었다. 그들은 말을 섞지 않았다. 알렉산드라가 그들 사이를 걸었다. 유연한 몸짓, 리듬감 있는 발걸음.

별이 쏟아진 맑은 밤하늘이, 전등불빛에 잠긴 집들과 나무들 위에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들은 샤를라피프 거리로 꺾어들었다. 이 거리는 마요 대로와 평행
하게 이어져 있었다. 거리에서 대로까지, 특설 저택들이 어둠 속에서
도 희미하게 빛나는 창문들을 내민 채 우뚝 서 있는 정원과 운동장이
펼쳐져 있었다.

한쪽 재산의 경계에는 낮은 판자로 만든 울타리가 둘러쳐 있었다.
틈이 새는 이중 문 너머로, 허허벌판의 관목과 나무들이 엿보였다.

그들은 늦게까지 떠도는 행인이 자신을 방해하지 않을지 확인하기
위해, 반 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했다. 그리고 나서, 빅토르와 알렉산드
라가 경계를 서 있는 사이, 앙투안 브레삭이 가짜 열쇠로 자물쇠를 열
어 문 중 하나를 살짝 벌렸다.

그들은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갔다.

가지들이 그들을 에워쌌다. 가시덤불이 그들의 피부를 긁었다. 바닥
에는 철거 현장에서 나온 큰 돌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사다리는 벽 왼쪽에 있소.” 브레삭이 속삭였다.

그들은 그곳으로 다다랐다.

사다리는 두 개로 나뉘어 있어, 레일을 따라 서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덕분에 그들은 끝이 없이 길고 가벼운 사다리를 만들 수 있었으며, 밧줄로 단단히 고정했다.

그리고 사다리를 세워 올렸다. 두 개의 발을 모래와 잔해 더미에 꽂아 고정한 뒤, 사다리가 완전히 똑바로 서자, 그들은 어두운 땅에 박힌 채로 사다리를 기울였다. 그리고 사다리는 인접한 안마당과 땅을 가르는 벽 너머로 뻗어 나갔다.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사다리의 다른 한쪽 끝을 그리스인 세리포스가 사는 호텔의 2층에 대었다.

호텔 측면의 창문들은 모두 단단히 닫힌 창문 아래로 빛이 새어나가지 않았다. 브레사크는 더듬거리며 사다리를 조정해, 꼭대기가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직사각형 유리창에 닿게 했다.

“제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알렉산드라, 제가 사라지면 당신 차례입니다.”

그가 재빨리 사다리를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사다리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 약한 골조에 올라타는 그의 몸짓이 짐작될 정도였다.

“이제 맨 끝에 섰군요.” 빅토르가 속삭였다. “유리 조각을 잘라 창문을 열겠습니다.”

사실 1분 후,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을 향해 몸을 숙이고, 두 팔을 쪽 뻗어 사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무서워요?” 빅토르가 물었다.

“시작이군. 정말 맛있다. 다리가 후들거리지나 앓길, 그리고 어지러움이 몰아치지나 앓길 바랄 뿐이야.”

그녀는 처음에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다 갑자기 멈춰 섰다.

‘다리가 떨리고, 어지러움이 머리를 도는구나.’ 빅토르는 생각했다.

그녀가 멈춰 선 시간은 일 분도 채 되지 않았다. 브레삭이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독려했다. 드디어 그녀는 정상에 올라서서 벽돌 가장자리를 넘어섰다.

최근 며칠간 브레삭의 집에서, 빅토르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왔다.

‘이 둘은 내 손바닥 위야. 고트리에 국장의 개인 전화번호도 내게 있다. 전화 한 통이면 집까지 찾아가 이들을 연행할 수 있어. 몰레옹은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도 앓을 거야. 이 체포의 모든 영광은 단연 모던 브리테의 빅토르 형사에게 돌아갈 테지.’

그가 이 방법을 물린 것은, 뤼팽을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뤼팽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했다. 평범한 도둑처럼 손에 잡히는 대로 감옥에 넣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던가? 두 공범자는 이미 함정에 갇혀 있지 않았는가?

하지만 그는 아직 결심하지 못했다. 브레삭이 위에서 그를 불렀다.
그는 손짓으로 기다리라고 신호하며, 속삭였다.

"너,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친구? 네 연인처럼 감옥이 두렵지 않니? 자, 남은 시간을 즐겨라... 행동해라... 1천만 프랑을 챙겨라. 이것이 네 마지막 업적이 될 거야. 그 뒤로는, 뽀빠, 수감자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제11장

“자, 친애하는 친구여. 도대체 뭐가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두었소?”

빅토르가 창가로 다가오자 브레삭이 물었다.

“아무것도요. 듣고 있었을 뿐이죠.”

“뭐라고?”

“저는 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귀를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니까요.”

“하! 과장하지는 맙시다.”

브레삭은 그런 지나친 주의 깊음을 다소 경멸하는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그 역시 방 안을 둘러보며 손전등 불빛을 사방으로 비추는 데는 각별한 신중을 기했다.

그는 오래된 벽지 조각을 발견하더니 의자에 올라가 그것을 떼어내, 거울 없는 거울판에 고정했다.

모든 구멍이 막히자 그는 스위치를 돌렸다. 그러자 밝은 빛이 쏟아져 나왔다.

그때 그는 알렉산드라를 꺼안고, 가볍고도 소리 없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에트르파, 카캉과 지그의 시초 같은 동작들을 능숙하게 선보이며 말이다.

젊은 여성은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뤼팡이 행동에 들어설 때면을 드러내는 이런 습관은 그녀를 즐겁게 했다.

반면 빅토르는 얼굴을 찌푸리고는 자리에 앉았다.

“이봐, 앉는다고? 그럼 일은?”

안토니가 좋은 기운으로 말했다.

“나는 일하고 있어.”

“이상한 방식이군.”

“당신의 모험 하나를 기억해 보세요. 어느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자작의 서재에서 밤을 새워 일하셨죠. 책상만 바라보셨을 뿐인데 비밀 서랍을 찾아내셨잖아요. 저는 당신이 춤을 추는 동안 이 방을 응시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배운 거예요, 뤼팡. 이보다 더 나은 스승은 없으니까.”

“내 수업은 빨라야 해. 우리는 한 시간밖에 없어.”

“두 명의 경호원, 전직 형사들이 순찰을 돌고 있지 않다고 확신합니까?” 빅토르가 물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브레사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그리스인이 이 방까지 순찰을 돌면, 그제야 자신이 숨긴 무언가를 드러내게 되는 셈이죠. 게다가 저는 제 부하들을 불러들여, 경비원들의 어떤 시도도 미리 차단하겠습니다.”

그는 젊은 여성에게 앉으라고 권하고는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혼자 남아도 괜찮으시죠, 알렉산드라?”

“오, 십 분이면 충분합니다. 십오 분을 넘기지 않을 테죠. 이 일은 복잡하게 끌지 않고 빠르게 끝내야 합니다. 우리 친구가 여기서 함께 있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가세요. 저는 쉬고 있을 테니까요.”

그는 호텔의 상세한 평면을 다시 한 번 살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출장실 역할을 하는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두 번째 문이 나왔다. 무겁고 단단한 그 문은 그리스인 세리포스가 자신의 서재에서 일할 때 잠그는 것이었다. 열쇠는 아직 자물쇠에 꽂힌 채였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계단 꼭대기에 다다랐다. 계단 샤프트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빛으로 간신히 비춰지고 있었다.

그들은 끝내 실수라도 할세라 극도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 근처, 켜져 있는 전구 불빛 아래서 브레삭은 빅터에게 평면을 가리켰다. 두 경비원이 잠자는 방이었다. 그리스인 세리포스의 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방을 지나야 했다.

그들은 마침내 현관문에 닿았다.

거대한 자물쇠 두 개. 브레삭이 그것을 당겨 열었다. 오른쪽에는 경보 장치를 조절하는 레버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내렸다. 레버 근처에 있는 버튼을 누자, 말리오 대로변을 따라 난 작은 정원의 철문이 열렸다.

그렇게 하고 그는 문을 밀었다. 고개를 밖으로 내밀어 아주 가느다란 휘파람을 불었다.

어둠 속의 세 공범자, 거구들의 그림자 같은 형상이었다. 그들이 다가왔다.

브레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미리 약속된 대로였기 때문이다. 그는 문을 닫고 레버를 다시 올렸다. 그리고는 보그르에게 낮게 명령했다.

“나 감시실로 들어간다. 원칙적으로 너희는 필요 없다. 경계해라.”

그는 공범자들과 함께 사라졌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리고 자신이 마음껏 행동해도 된다는 확신이 서자, 빅토르는 레버를 내렸다. 문틈을 살짝 벌린 채 문짝을 벽에 딱 붙인 뒤, 그는 마요 대로 쪽의 철문을 여는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해서 호텔 정문은 완전히 개방되었다. 그가 원하던 바로 그 상황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 방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브레삭이 예언한 대로, 습격은 별다른 소동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잠자리에 있던 두 경비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순식간에 입에 행거를 물리고 단단히 묶여 버렸다.

그리스인 세리포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브레삭이 잠시 혼자 있게 된 옆방에 있었다.

“저 늙은이한테선 아무것도 끌어낼 수 없었어.” 브레사크가 빅토르에게 돌아와 말했다. “겁에 질려 반쯤 죽었지. 특히 2층 사무실 얘기를 꺼내자 기절할 뻔했어. 틀림없어. 올라가자.”

“당신 부하들도요?”

“절대로 안 돼. 수색은 우리끼리만 해야 해.”

그는 부하들에게 방을 나서지 말라고 명했다. 세 포로를 감시하고, 특히 소음을 피하도록 강조했다. 직원으로 일하는 여성들은 지하실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시 알렉산드라 곁으로 돌아갔다. 계단 꼭대기에서 브레스크는 복도의 무거운 문을 자물쇠로 잠갔다. 동료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경보가 울리면, 그들은 단순히 두드리기만 하면 되었다.

알렉산드라는 의자에서 한 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이 굳어 있었다.

“여전히 차분해요?” 빅토르가 물었다. “무서운 건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다. “두려움이 스며들어요. 몸의 모든 구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아요.”

빅토르는 농담조로 말했다.

“행운의 순간이군요! 이 상태가 계속되길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이 두려움은 터무니없어요!” 브레스크가 외쳤다. “자, 알렉산드라, 우리는 우리 집에 있어요. 여기는 안전하죠. 간수들은 묶여 있고, 제 부하들은 제자리에 있어요. 만약, 불가능한 일이지만 경보가 울린다 해도 사다리가 있고, 이 출구로 도망치면 안전하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경보도, 도망칠 일도 없을 거예요. 저와 함께라면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아요.”

그는 곧장 방 안의 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크지 않고, 길이가 스물에서 스물오센티미터쯤 되는 얇은 소포를 찾아내는 거야. 그 안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형태로 천만 프랑이 들어 있어야 해.”

브레삭은 반쯤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자신이 들고 있던 도면의 지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갔다.

“책상 위에는 전화기, 책 몇 권, 지금 완료 또는 미지급 송장 파일, 그리스와 런던으로 오간 편지들, 장부들뿐이야. 아무것도 없어.”

“서랍은?”

“다른 파일들과 편지들뿐이야. 숨겨진 서랍은 없나?”

“없어.” 빅토르가 단호하게 말했다.

브레삭은 그 말을 믿지 못해 다시 한번 그 물건을 만져보고 서랍 안을 더듬어 본 뒤,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없어.”

그리고 그는 계속했다.

“그리스인이 간직했던 추억의 선반…… 딸의 초상화…… 손녀의 초상화(그 둘을 똑같이 만져보며). 바느질 상자…… 보석함(비어 있고 이중 바닥도 없다고 말함). 그리스와 터키 풍경이 담긴 엽서 앨범…… 우표가 붙은 어린이 앨범…… 어린이용 지리 책…… 사전……(말하면서

도 페이지를 넘기며) 그림책…… 미사 책…… 게임 상자…… 주화 상자…… 인형용 작은 거울장.”

이렇게 방 안의 모든 물건을 일일이 목록에 올렸다. 모든 사물을 들어 무게를 재고, 꼼꼼히 살폈다. 모든 벽을 두드려 보고, 가구를 정밀하게 조사했다.

“당신 미쳤어요!” 안투안 브레스크가 반박했다.

그는 성공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젊은 여성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여전히 조용하시네요?”

“아니요, 아니요.” 그녀가 속삭였다.

“무엇이 당신을 괴롭히는 거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그리고 모든 것… 우리가 떠납시다.”

그가 분노에 찬 제스처를 취했다.

“아니, 절대 안 돼. 내가 이미 잘 말했잖아. 여자들은 집에 있어야 해. 특히 당신처럼 감수성이 풍부하고 신경이 예민한 여성이라면 더더욱.”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너무 괴로워하면, 우리가 떠나는 거죠, 맞죠?”

“아, 그건 내가 맹세할게요. 당신이 요구하는 순간, 바로 떠납니다. 하지만 제발, 터무니없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천만 프랑을 거머쥐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돈이 있는 줄 알면서도 빈손으로 돌아가다니. 제 습관에 맞지 않아요.”

빅토르는 비웃음을 터뜨렸고, 브레사크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우리 일이 여성에게는 고통스러운 광경일 거예요… 이 도둑질은 분명 그녀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요.”

“왜 그녀가 찾아온 거죠?”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보일지, 경찰들 틈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그녀 자신이 어떻게 대처할지 관찰하러 왔죠. 그런데 우리 도난 사건은 그야말로 평범하기 그지없어요. 뒷간에서 작은 상인들을 조사하는 수준이죠.”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들어보세요.”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브레사크가 말했다.

“맞아요, 맞아요,” 빅토르가 인정했다. “저도 뭔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빈터 쪽에서요? 그건 좀 의외군요. 저는 울타리에 사슬을 걸어뒀거든요.”

“아니요, 집 쪽에서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브레사크가 반박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오직 브레사크의 수색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릴 뿐이었다.

그가 실수로 무언가를 떨어뜨렸다.

젊은 여성이 놀라 몸을 일으켰다.

“무슨 일이에요?”

“들어보자. 들어보자.” 빅토르가 일어나며 재촉했다. “들어보자.”

“도대체 무엇을?” 브레사크가 물었다.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 브레사크가 단정했다.

“소리는 아무것도 없어.”

“아니, 있어. 이번엔 바깥이야. 확신해.” 브레사크가 불평했다. 그는 이 기묘한 동료 때문에 점점 성이 치밀어 올랐다. 늘 긴장한 상태이면서도 동시에 너무 평온한 그에게 화가 난 것이다. “나처럼 찾아보는 게 더 나아.”

빅토르는 움직이지 않고 귀를 쫓긋 세웠다. 대로 위를 자동차가 지나갔다. 근처 마당에서 개가 짖었다.

“나도 들려.” 알렉산드라가 말했다.

“그리고,” 빅토르가 덧붙였다. “내가 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달이 뜨려던 참이었고, 사다리가 있는 벽 전체가 곧 밝은 빛에 완전히 드러난다는 거야.”

“젠장!” 브레사크가 소리쳤다.

그래도 확인해 봐야겠다. 그는 전등을 끄고 벽지를 걷어냈으며, 거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곧이어 비명 같은 욕설이 새어 나왔다. 무슨 일인가? 그는 빈 땅에서 무엇을 본 것인가?

그가 돌아왔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빅토르가 거친 비명을 지르며 발코니로 뛰어나갔다. 그 역시 욕설을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창문을 닫고 벽지를 다시 덮은 뒤 말했다.

“사다리가 치워졌어.”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빅토르는 전등을 켜고, 그 사건이 지닌 무서운 의미를 모두 설명했다.

“사다리는 혼자서 없어지지 않는다. 누가 치웠나? 경찰단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발각된 셈이다. 사다리가 어디에 닿았는지, 즉 2층의 그 구멍에 닿았다는 걸 그들은 분명 눈치챘을 테니까.”

“그러면?”

“결국 그들은 이 호텔로 쳐들어와 모든 걸 드러낼 것이다. 공격을 각오해야 해. 저 끝 복도에 있는 두 번째 문은 확실히 잠겨 있나?”

“물론이지! 물론이라고!”

“그들은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올 거야. 문 따위가 무슨 방패가 되겠나? 내가 말하는데, 이건 곧 공격이야. 우리 세 명은 굴 속 토끼처럼 포위되어 잡히게 될 거야!”

“당신 말도 많군요!” 브레삭이 반박했다. “내가 그렇게 쉽게 잡힐 줄 알았나!”

“사다리가 치워졌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창문은?”

“우리는 2층에 있어. 층간 거리가 꽤 높지. 아마 너는 저쪽으로 탈출할 수 있겠지만, 우리까지 따라갈 수는 없어. 계다가…”

“계다가 뭐?” 브레삭이 투덜거렸다.

“외부 창문 달개가 신호 장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지? 전선으로 이어져 있어. 밤중에 그 종소리가 울리면 어떨지 상상해 봐.”

브레사크가 그를 노려보았다. 왜 이 녀석은 행동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장애물만 늘어놓으며 과장하는 걸까.

알렉산드라는 안락의자에 엮드린 채 주먹을 볼에 짹 대고 있었다. 터져 나오는 공포를 억누르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양투안 브레사크가 조심스럽게 창문 중 하나를 열었다. 아무런 신호도 울리지 않았다. 결국 문이 소리 장치를 작동시키는 열쇠였다는 뜻이었다.

그는 창살 위아래, 흠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살폈다.

“됐습니다! 보세요… 메커니즘은 어딘가에 숨어 있지만, 여기 밖으로 나가는 금속선이 보입니다. 아마 1층에 있는 벨로 이어져 있겠죠.”

그는 작은 플라이어로 그 금속선을 빠르게 잘라냈다. 그리고 네 개의 창문을 연결하는 튼튼한 철봉을 조작해 잠금을 풀었다.

이제 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동작을 시도했다.

브레사크는 재빨리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며 밖으로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막았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경보기의 날카로운 울림이 공

기를 진동시켰다. 그 소리는 극도로 날카롭고 환각을 불러일으킬 듯했다. 심지어 그 리듬은 스스로를 더욱 격양시키는 듯했다.

빅토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선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용이고, 당신이 끊은 그쪽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부용이지요. 이렇게 하면 호텔 손님들이 확실히 경고를 받게 됩니다.”

“바보 같은 짓…”

브레사크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그는 이미 방 구석으로 식탁을 밀어 옮기고 있었다. 그곳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식탁 위에 의자를 올려놓고, makeshift(임시) 사다리처럼 만든 그 위에 올라탔다.

천장 장식선 근처를 따라 두 번째 전선이 달려 있었다. 그는 그 전선을 잘라냈다. 시끄러운 소리가 그쳤다.

양투아네는 내려와 식탁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빅토르가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위험하지 않습니다. 종소리 장치도 없으니 이 창문으로 빠져나가세요.”

브레사크가 그에게 다가가 팔을 꼭 잡았다.

“내가 떠나려면 내가 원할 때다. 그리고 내가 떠나기로 마음먹는 건, 천만 프랑짜리 소포를 찾아낸 뒤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못 찾으실 겁니다.”

“왜요?”

“시간이 없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브레사크가 그를 흔들며 말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다 터무니없습니다. 사다리는 미끄러져 떨어졌거나, 장난기 많은 놈들이 가져갔거나, 아니면 이미 누군가 써먹었을 겁니다. 당신들의 공포는 모두 공상일 뿐입니다. 경비원들은 묶여 있고, 제手下들이 경계하고 있죠. 우리는 그저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브레사크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격분한 나머지 거의 미친 상태였다.

“너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겠어, 친구. 그리고 네 보너스는? 영원이야! 네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야!”

그가 말을 멈췄다. 밖에서 피리 소리가 들렸다. 빈터에서 올라오는 가늘고 짧은 선율이었다.

“이번에는 들었지?” 빅토르가 물었다.

“응… 거리 쪽이야. 늦게까지 떠돌고 있는 행인일 거야…”

“아니면 사다리를 가져간 놈들일 수도 있어. 빈터 속에 숨어 있는 거지. 경찰을 부르러 갔어.”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진짜 위험이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 위험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채 어딘가에서 맴돌고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떤 형태로 찾아올지 알 수 없었다.

‘정말 위험한 걸까?’

브레사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알렉산드라의 두려움이 깊어갈수록, 그리고 그 이상한 노인의 행동이 기이해질수록, 그는 점점 더 당황해졌다.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다.

십오 분쯤이 지났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의 알 수 없는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다. 신비로운 정적과 위협으로 가득 찬 무거웠던 공기가 그들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라는 안락의자 등받이를 짹 쥐고 있었다. 닫힌 문 너머로 적군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듯, 그의 시선은 고정된 채 문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브레사크는 다시 일을 하려 했지만, 이내 손을 멈췄다.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이 제대로 짜여진 게 아니야.” 빅토르가 말했다.

브레사크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노인’이라고 부르던 남자를 움켜잡았다. 빅토르는 비웃는 어조로 중얼거리며 맞섰다.

“일이 제대로 짜여진 게 아니야… 우리도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 엉망진창이군… 정말 골치 아픈 일이지.”

브레사크가 그를 욕했다. 알렉산드라가 그들 사이로 달려와 둘을 떼어놓지 않았다면, 그들은 곧장 싸움판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가자.” 그녀는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래, 가자.” 브레사크는 물러날 준비가 된 듯 외쳤다. “길이 막힘 없어.”

둘이 문쪽으로 향하던 찰나, 빅토르가 공격적인 어조로 말했다.

“나는 남을 거야.”

“절대 안 돼! 당신도 가야 해.”

“나는 남겠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브레사크 씨, 당신 말이 기억나십니까. ‘천만 프랑이 여기 있다. 우리도 알고 있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리가 있겠느냐? 내 습관에 맞지 않아.’ 내 습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브레사크가 다시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 참 대답하군요. 도대체 당신이 이 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더 이상은 싫다는 분의 역할입니다.”

“그럼 당신의 의도는?”

“문제를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이번 작전은 엉망으로 짜여졌습니다. 준비가 안 됐고, 실행도 엉망이죠.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미쳤나 봐요.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나중에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요, 천하장사!”

“너는 찾는 법을 모르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런 일은 전문가가 있지.”

“전문가?”

“우리 시대엔 모든 게 전문화됐어. 수색의 달인들을 나는 알고 있어. 한 명 불러볼까.”

그가 전화기 쪽으로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다.

“당신,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천하의 미친놈!”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보물만 챙기고 나가면 되는 거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샤텔레 24-00번을 연결해 주시겠어요?”

“도대체 누구랑 전화하는 거야?”

“제 친구 한 명입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다 게으른 놈들이고, 당신도 그들을 믿지 못하죠. 제 친구는 천재입니다.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해 줄 거예요. 당신은 깜짝 놀라게 될 거야. 알로… 샤텔레 24-00? 아, 당신이었군요, 반장님. 마요 대로 98번지 2층 개인 저택에 있습니다. 제게 오세요. 안뜰의 철제 문과 저택 정문은 모두 열려 있습니다. 차 두 대와 사람 네다섯 명을 데려오세요. 라르모나도 포함해서요. 1층에 아르센 뤼팽의 공범 세 명이 있을 텐데, 항의할지도 모릅니다. 2층에는 뤼팽이 있습니다. 기절해서 미이라처럼 묶여 있죠.”

빅토르는 잠시 말을 멈췄다. 왼손으로 수화기를 든 채, 오른손으로 브레사크를 향해 브라우닝 권총을 겨눴다. 브레사크는 주먹을 쥐고 돌진하고 있었다.

“폭탄 같은 말은 하지 마, 뤼팽. 안 그러면 개처럼 썩 죽이겠어.” 빅토르가 외쳤다.

그는 이어 전화기에 계속 말했다.

“잘 들리셨죠, 본부장님? 45분 안에 여기서 만나야 합니다. 제 목소리를 분명히 알아들으셨죠? 실수 없으시죠? 네, 마르코스 아비스토입니다. 즉, 즉……”

그는 잠시 멈춰 섰다. 브레사크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젊은 여자에게 고개를 숙인 뒤, 권총을 방 안 반대편으로 던져 버렸다.

“모데나르 단 소속, 빅토르 경감입니다.”

제12장

“풍기단속반 빅토르다! 그 유명한 빅토르다. 예리한 통찰력으로 엉킨 실타래 같은 사건을 하나하나 풀어가던, 단 이틀 만에 노란 봉투를 손에 쥔 세 사람을 속속들이 밝혀냈던, 레스코 신부를 찾아냈던, 오프레이 남작을 쫓아 자살로 몰아넣었던, 펠릭스 드발의 계락을 무력화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페루인 마르코스 아비스토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브레사크는 떨림 하나 없이 그 충격에 맞섰다.

빅토르가 수화기를 제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방치한 채, 그는 몇 초간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권총을 꺼내 들었다.

알렉산드라는 그 움직임을 눈치채고 놀란 기색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요!”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반말을 하며 속삭였다.

“당신 말이 맞소. 어차피 결과는 같을 테니까.”

빅토르는 브레삭을 비웃듯 말했다.

“어떤 결과요, 브레삭?”

“우리 싸움의 결과 말입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지요.”

빅토르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두 시 사십 분. 그 시간까지면 내 상부, 즉 사법경찰국장이자 국장인 고티에 씨가 몇몇 부하들을 데리고 루팡 씨의 어깨에 손을 얹게 될 거요.”

“하지만 그전까지, 감시자여…”

“그전까지?”

“물 한 바가지는 흐를 테니까.”

“그걸 확신하오?”

“당신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확신합니다. 그전까지, 빅토르 씨라면…”

브레사크는 두 다리에 힘을 주어 당당히 서 있었다. 넓은 가슴에 팔을 끼고 선 그의 모습은, 주름진 얼굴과 둥글게 굽은 어깨를 가진 노경의 형사 가니마르보다 훨씬 컸다. 외모만 보더라도 그는 가니마르보다 훨씬 튼튼하고 힘차게 보였다.

“그때까지는, 빅토르가 말했다. 그는 다시 너로 부르며 말을 이었다. “그때까지 넌 꿈쩍도 못 하고 조용히 있을 거야, 내 잘난 친구 뤼팽.”

“그래, 그래. 넌 웃고 있군. 빅토르와 뤼팽의 대결이라니, 넌 이제 내가 유일한 상대라니 안심했지? 손가락으로 툭 치는 것만으로도 끝장이야. 장난꾸러기 같으니라구! 오늘 중요한 건 근육이나 이두근이 아니야. 두뇌지. 그런데 말이야, 뤼팽, 넌 지난 삼 주 동안 정말 약했어. 정말 추락했어.”

“세상에, 이게 바로 내가 무서운 존재로 여겼던 그 유명한 뤼팽이야? 무적의 뤼팽! 거인의 뤼팽! 아, 뤼팽. 넌 지금까지 운이 좋았나 봐. 넌 늘 자신감 있는 적수를 만나지 못해서 승리와 명성을 얻었지. 나처럼.”

빅토르는 가슴을 치며 그 두 마디를 힘차게 되뇌었다.

“나처럼! 나처럼!”

안투안 브레사크는 고개를 저었다.

“말이 됐어, 형사. 네가 배를 얼마나 잘 몰랐는지. 알렉산드라와 벌인 그 연극은… 일품이었어. 클립 훔친 거, 절도상 집에서 훔친 거…

다 훌륭해. 그리고 캠브리지에서의 난투극, 우리를 구해낸 그 방식까지! 천만에, 이런 배우라니 내가 어찌 경계했겠나.”

브레사크는 손에 시계를 든 채, 멈추지 않고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빅토리가 비웃듯 말했다.

“떨리고 있군, 뤼팽!”

“그래, 너는 지금 당당해 보일지 몰라. 하지만 잡혀갈 때는 어떻게 보자고.”

빅토리는 킁킁 웃었다.

“맞아! 방금 전 네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봐라.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바로 거였지. 넌 여자처럼 약한 놈일 뿐이라는 걸, Alexandra가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야. 넌 애초에 그녀를 조롱했잖아. 그 사다리 마법, 기억나? 하지만 사다리는 딱 한 뼘 떨어진 곳에 있어. 내가 창문 발코니를 넘을 때 밀어둔 자리에. 그 순간 네가 얼마나 주저앉았는지 알겠지?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아무 반응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결국 네가 할 일은 백만 프랑 없이 문을 통해 도망치는 것뿐이야.”

그는 발로 바닥을 차며 외쳤다.

“제발 좀 반항해 봐라, 겁쟁이! 보라지, 네의情人이 너를 보고 있어. 너 아픈 거야? 아니면 좀 약해진 걸까? 어서 말해! 한 마디라도, 한 행동이라도!”

브레사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빅토르의 조롱 섞인 말은 그의 귀에 들리지도 않는 듯했다. 오히려 그는 아렉산드라를 돌아보았는데, 그녀는 일어서서 가니마르 형사 대신 빅토르에게 열정적이고도 집요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스물다섯 분,”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내겐 그 이상으로 충분해.”

“정말 충분하죠,” 빅토르가 말했다. “계단 두 층 내려가는 데 분, 동행자들과 함께 호텔을 빠져나가는 데 분. 딱 그 정도면 됩니다.”

“한 분 더 필요해요,” 브레사크가 말했다.

“왜요?”

“당신을 혼내주려면.”

“이봐요! 구타라도?”

“아니, 내 연인 눈앞에서 쟁기질이라도 당하는 거지. 네 말대로 말이야. 경찰이 도착하면 너는 조금 굶히고, 피도 조금 나고, 단단히 묶여 있을 거야.”

“그리고 목구멍에 명함이 박혀 있겠지.”

“바로 그거야. 아르센 뤼팽의 명함. 전통을 존중해야지. 알렉산드라, 문 좀 열어주게.”

알렉산드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감격해서 몸이 굳은 걸까?

브레삭이 문으로 달려가더니 곧 욕실을 내뱉었다.

“젠장, 자물쇠로 잠겨 있잖아!”

“어떻게요? 내가 잠그는 줄 몰랐어요?” 빅토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열쇠를 줘.”

“두 개가 있어. 이 열쇠랑 복도 끝 다른 문 열쇠.”

“두 개 다 줘.”

“그건 너무 편한 시나리오잖아. 네가 계단을 내려가고, 정직한 부르주아처럼 집에서 나가면 된다고? 안 돼. 네가 문밖으로 나가는 순간, 너와 출구를 가로막는 한 가지 의지가 있다는 걸 명심해. 바로 빅토르의 의지야. 모던 브리테의 빅토르 말이지. 내가 구상하고 실행한 이 모험의 핵심은 결국 거기에 있어. 바로 너와 나, 혹은 뤼팽과 빅토르의 대결이지.

젊은 뤼팽은 세 명의 흉악한 동지와 함께 권총과 칼을 들고, 한 명의 공범자까지 얻어쥐고 있어. 반면 늙은 빅토르는 무장 없이 혼자서 맞서야 해. 이 격투의 증인이자 승패를 가르는 심판관으로, 아름다운 알렉산드라가 서 있지.”

브레사크가 무자비하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빅토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경찰이 나타나기 전에, 늙은 빅토르는 반드시 제압되고 징벌되어야 했으며, 열쇠는 되찾아야 했다.

두 걸음 더.

빅토르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해봐라! 하얀 내 머리카락도 불쌍히 여기지 마라! 자, 용기를 내라...”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러자 브레사크가 순식간에 상대에게 덤벼들었다. 첫 타격으로 온몸의 무게를 실어 그를 짓눌렀다. 둘은 마루바닥에서 구르며 서로를 꼭 껴안았고, 격투는 곧 거의 야생적인 집요함을 띠기 시작했다. 빅토르는 몸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브레사크의 포효는 끊어지기 어려웠다.

알렉산드라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마치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원하지 않는 듯했다. 그녀에게 승패가 무엇이든 상관없었던 걸까. 아니, 오히려 그녀는 불안한 열정으로 그 결말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불확실한 상황은 길게 가지 않았다. 비록 브레삭이 신체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빅토르의 나이가 더 많았지만, 결국 일어난 것은 빅토르의 승리였다. 그는 숨도 찰 것 없이 다시 일어섰다. 오히려 그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친근한 표정이었다. 마치 서커스 선수들이 상대를 '넘어뜨렸을 때' 보이는 듯한 과시적인 몸짓을 취했다.

젊은 여성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런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다. 안토인 브레삭의 패배를 단 한 순간도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땅에 누운 그 남자의 모습은 그녀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으로 다가왔다.

빅토르는 브레삭의 주머니를 뒤지며 권총과 단도를 꺼내 들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방식의 한 수입입니다. 효과는 확실하죠. 권총도 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먹을 쭉서 넣기만 하면 되죠. 후퇴나 힘주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플 뿐이고, 한 시간 정도는 몸을 가누기 힘들게 만들 뿐이죠. 불쌍한 뉘팡이군요.”

하지만 그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이미 사건이 일어난 데는 반 아들인 상태였고, 이제 머릿속에는 이 놀라운 남자가 무엇을 할지, 또 어떤 의도를 품고 있는지만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또다시 그녀를 당황하게 하고 있었다.

“그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요? 당연히 넘기죠. 15분 후면 수갑이 채워질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놓아주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남자를 위해 제게 간청하지만,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한 건가요?”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게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녀는 평소라면 공포에 떨었을 여성치고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눈앞에 닥친 위험이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분함 속에는 도발과 심지어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빅토르가 그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건 당신입니다. 당신을 지금 당장, 단 한분의 지체도 없이 떠나게 하는 것이죠.”

“제 상사들이 여기 오면, 당신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서 가세요.”

“안 됩니다. 당신의 태도만 봐도, 당신은 경찰의 통제 바깥에서, 더 나아가 편할 때면 경찰에 반대해서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행동한다는 게 분명합니다. 당신이 도피를 제안한다면, 앙투안 브레사크도 함께 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남겠습니다.”

빅토르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은 그를 사랑하는 건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를 구해.”

“안 돼.”

“그럼 나도 남을게.”

“가!”

“남아.”

“좋아,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라!” 그가 격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힘도 나를 그를 구하도록 강요할 수 없어. 들었지? 한 달째 나는 오직 이 일만 해왔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 목표를 향해 달려왔지. 그를 잡는 것! 그를 폭로하는 것!

그에 대한 증오일까? 아마도 그럴 거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나를 격분시키는 경멸을 불러일으켰어.”

“경멸이라니? 왜?”

“왜냐고? 네가 진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으니 내가 말해줄게.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해.”

브레사크는 일어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숨이 가빠졌다. 그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도망치는 일만 생각했고, 자신의 회복 불가능한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다.

빅토르는 두 손으로 짧은 여성의 머리를 꼭 쥐었다. 그리고 명령조로 쏘아붙였다.

“나를 보지 마요… 당신처럼 탐욕스러운 눈으로 나를 묻지 마요. 봐야 할 건 내가 아니에요. 바로 저 guy요.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 혹은 그 용감하고 타지 않는 전설, 그리고 끝없이 솟구치는 재주를 사랑하는 그 남자를요.”

그는 쏘아붙이듯 말했다.

“그렇다면 그 남자를 보시오. 고개를 돌리지 말고요.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그 남자가 당신을 실망시켰다는 것을. 당신은 더 나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나요? 뤼팽은 분명 다른 풍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패배한 자를 가리키며 악의 있는 웃음을 터뜨렸다.

“뤼팽이 어찌해서 아이들 장난감처럼 놀아먹히고 말았단 말인가? 사건 초기의 실수들, 내가 당신을 거쳐, 그리고 직접 네이유의 그의 집에서 그를 어떻게 꼬아매었는지 말하지도 말자. 하지만 오늘 밤, 그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두 시간 동안 그는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마리오네트였다. 폴리시넬 이랄까. 이것이 뤼팽이라고? 그는 장사꾼일 뿐이다. 장부가랑 장부를 대며 계산할 뿐이지.

빛나는 영감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없었다. 내가 그를 조종할 때, 내가 그에게 공포를 고조시킬 때, 그는 멍청이처럼 헛소리를 늘어놓기만 했다.

자, 너의 ‘토끼 가죽을 입은’ 뒤펅을 보라. 내가 그의 속을 간지럽히자마자, 그는 토할 것처럼 창백해져 버렸다. 패배라고? 진정한 뒤펅은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완전히 궤멸되었을 때야 비로소 다시 일어선다.”

빅토르가 몸을 일으켰다. 그는 갑자기 키가 더 커 보였다.

가까이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알렉산드라가 속삭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을 뭐라고 고발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고발한 건 당신이에요.”

“나요? ...나요? ... 이해가 안 돼요...”

“네. 진실이 이제야 당신을 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남자가 당신이 생각한 만큼 위대한 사람이라고 믿었나요? 당신이 사랑했던 건 저 사람일까요, 아니면 더 위대한 사람, 진정한 지도자일까요? 그 평범한 모험가는 결코 될 수 없는 존재요.”

그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덧붙였다.

“지도자는 몇 가지 특징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도자는 지도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어리둥절해하며 되물었다. “제가 잘못 알았다면 말해 주세요. 뭐요?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예요?”

“앙투안 브레사크입니다.”

“앙투안 브레사크라니? 그 사람이 누군가?”

“그게 다입니다. 앙투안 브레사크일 뿐이죠.”

“아니, 그 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 있어! 그건 누구인가?”

“도둑입니다!” 빅토르가 격분하며 외쳤다. “이름과 인격을 훔치는 도둑이지! 재력도 없고 재능도 평범한 인간에게 있어선, 남의 명성을 도용하는 게 훨씬 편한 법이니까.

하루아침에 빛을 발할 수 있다. 눈먼 가루를 뿌리며 사람들을 현혹하지.

그리고 그림자 속의 여인에게 속삭인다. ‘나는 뤼팽이야.’ 만약 그 여인이 인생에 지쳐 있고, 새로운 자극을 갈구하며 불가사의한 것을 찾고 있다면 말이다.

그때부터 그는 뤼팽이 된다.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그 역할을 연기하는 거지. 그러다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는 풍선처럼 꺼져버린다. 인형처럼 바닥에 처박히게 되는 거야.”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속삭였다.

“세상에, 정말일까요? …확실해요?”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당신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당신도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현실이 그녀를 덮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뜨겁게 응시한 것은 바로 빅토르였다. 다른 생각들, 본의 아니게 혼란스럽게 밀려드는 생각들이 그녀를 서서히 잠식해 가고 있었다.

“가시오. 브레삭의 사람들이 당신을 알고 있으니, 통과시켜 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다리가 제 손에 닿는 곳에 있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다리겠습니다.”

“무엇을 기다린다는 말인가? 경찰을?”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하나만 빌겠습니다.”

“무엇이요?”

“아래 세 명은 야수들이야. 경찰이 도착하면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

빅토르는 브레사크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는 듯 했고, 몸을 움직일 기력조차 없어 보였다.

빅토르는 문을 열고 복도 끝까지 달려가 호루라기를 불었다. 세 명 중 하나가 재빨리 계단을 올라왔다.

“빨리 사라져라. 경찰이다! 그리고 갈 때 정원의 철문은 열어둔 채로 가라.”

그리고 그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브레사크는 움직이지 않았다.

알렉산드라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눈빛 하나 오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완전히 낯선 사이였다.

이삼 분 정도 흘렀다. 빅토르는 귀를 기울였다.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대의 자동차가 거리, 즉 호텔 앞 도로에 멈춰 섰고, 이어 두 번째 차가 멈췄다.

알렉산드라는 안락의자 등받이에 매달린 채 손톱으로 천을 긁어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스스로를 단속하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곤 고요함만 남았다.

빅토르가 속삭였다.

“고티에 씨와 그의 요원들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경비병들과 그리스인을 풀어줄 겁니다.”

그때 안토인 브레사크가 일어설 힘을 모아 빅토르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보다 고통 때문에 더 일그러져 보였다. 그는 알렉산드라를 가리키며 더듬거렸다.

“그녀는 어떻게 될까?”

“그건 신경 쓰지 마라, 전(前) 뤼팽 씨. 이제 그건 네 문제가 아니다. 오직 네 자신만 생각하라. 브레사크라는 이름은 가명이지, 그렇지?”

“진짜 이름은 찾을 수 없는 건가?”

“찾을 수 없다.”

“살인 사건은 없었나?”

“아니요. 비엄시에게 칼을 찌른 일 말고는요. 그것도 제가 한 짓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강도 사건 같은 건?”

“단단한 증거는 없습니다.”

“요약하면, 몇 년 감옥 생활이 고작이군요.”

“그 이상도 아닙니다.”

“당신이 감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뒤엔? 어떻게 살아요?”

“국채(국고채권)로요.”

“그걸 숨긴 곳이 괜찮아요?”

브레사크가 미소 지었다.

“택시 안 도트레이의 그것보다 더 좋습니다. 찾아낼 수 없는 곳이에요.”

빅토르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잘 될 거야. 잘되는 게 좋지.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넌 뽀빠이라는 멋진 이름을 훔치고, 그 크기의 인간을 네 수준으로 떨어뜨렸으니 내가 싫어할 만해. 그건 용서할 수 없지. 그래서 너를 감옥에 넣는 거야. 하지만 이번 택시 사건에서 네 눈썹미를 인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너무 떠들지 않는다면 가장 처벌은 하지 않을게.”

계단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들입니다.” 빅토르가 말했다. “현관을 뒤흔치고 있군요. 곧 올라올 거예요.”

그는 갑자기 흥분한 듯했다. 그리고는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민첩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회색 머리를 한 그 세련된 노신사가 발끝으로 발을 차며 춤추고, 비웃는 듯한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은 너무도 코믹했다.

“자, 앙트와니, 이게 바로 뤼팽식 수법이지! 방금 전 너가 보여준 그 어설픈 몸짓과는 차원이 달라. 음, 진짜 뤼팽은 경찰이 쫓아올 때, 혼자 적들만 둘러싸인 상황에서야 비로소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야. 경찰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지. ‘바로 저 놈이야, 뤼팽! 풍기단 속반 빅토르 따위 없어. 뤼팽뿐이야. 뤼팽과 빅토르는 하나야. 뤼팽을 잡으려면 빅토르를 잡으면 돼.’”

그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브레사크를 향해 말했다.

“자, 너를 용서해주마. 방금 그 한 순간을 주었으니, 네 형량을 두 해에서 단 한 해로 줄여주마. 일 년 뒤면 ‘내가 너를 탈출시켜주지.’ 알겠지?”

브레사크는 경악한 나머지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네가 이미 말했잖아, 오만방자한 놈아.”

“뭐라고? 너도 빅토르가 아니라고?”

“과거에 빅토르 오텍이라는 식민지 관료가 있었지. 안전부 형사 후보자였어. 하지만 그는 이미 죽었지. 내가 가끔 경찰 역할놀이를 하고 싶었을 때, 그에게서 신분증을 건네받았어. 하지만 이 일은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 내가 뤼팽이라고 불리더라도 말하지는 마. 그게 더 나을 거야. 그리고 뉘이(Neuilly)에 있는 네 작은 호텔 이야기나 알렉산드라에 대한 말은 절대 하지 않아. 이해했지?”

목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목소리 너머로는 또 다른, 덜 선명한 소리들도 들려왔다.

고티에 씨를 맞으러 나가는 빅토르는 지나가며 젊은 여자에게 속삭였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세요. 그리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고티에 씨가 라르모나와 경찰관 한 명을 데리고 달려왔다. 그는 문턱에서 멈춰 서서 그 광경을 만족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자, 빅토르? 끝났나?” 그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끝났습니다, 상사.”

“저 자가 바로 뤼팽인가?”

“그 사람 맞습니다. 안투안 브레사크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죠.”

고티에 씨는 포로가 된 남자를 내려다보며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그 철제 마차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천만다행이군. 기분이 좋군.” 그가 중얼거렸다. “아르센 뤼팽의 체포라니. 그 유명한, 전 세계가 아는, 무적의 아르센 뤼팽이 함정에 빠져 감옥에 갇혔다니! 경찰의 승리다! 뤼팽에게 그런 일은 흔하지 않지. 하지만 어쨌든 그렇군. 뤼팽이 풍기단속반 빅토르에게 잡혔어. 대단한

사건이야. 오늘이라는 날은 역사에 남을 거야. 빅토르, 그 자, 잘 지냈나?”

“양처럼 순종했습니다, 상사님.”

“다소 허물어진 듯한데?”

“다소 다툼이 있었죠. 하지만 별일 아닙니다.”

고티에 씨는 알렉산드라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손수건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빅토르?”

“뤼팽의 연인이자 공범입니다.”

“영화관 여인이요? 비코크와 보지아르 거리 여인이요?”

“네, 상사님.”

“잘했다, 빅토르. 대성공이다. 나중에 상세히 보고해라. 방위 채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라졌겠지? 뫼팽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지?”

“주머니에 있습니다.”

빅토르가 봉투에서 방위 채권 아 장을 꺼내며 말했다.

브레삭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빅토르를 향해 소리쳤다.

“년새끼!”

“좋아!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왔군!” 빅토르가 말했다. “찾을 수 없다고? 당신의 빌라에 있는 오래된 배관이라고? 그게 찾을 수 없다고? 아 이 같으니라구. 첫날 밤에 내가 이미 그걸 알아냈다고.”

그는 앙투안 브레사크 쪽으로 다가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입 다물어. 내가 갇아주마. 감옥에서 칠 개월, 길어도 여덟 개월만 지내면 돼. 그리고 출소 후에는 전직 군인으로서 백 퍼센트 연금도 받고, 담배 가게도 하나 얻어가지고. 어쨌지, 괜찮지?”

그때 다른 형사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그리스인을 구해냈고, 그리스인은 두 형사의 부축을 받으며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그가 브레사크를 발견하는 순간, 그는 즉시 외쳤다.

“저 사람 맞아요! 저 사람이 저를 때리고 입을 막았어요! 맞아요, 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멈춰 섰다. 공포에 질린 나머지, 그를 부축해야 했다. 그는 추억이 담긴 선반 쪽으로 손을 내밀며 더듬거렸다.

브레사크는 당황한 나머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살살이 뒤졌다.

빅토르의 어깨 위에는 두 개의 시선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손수건을 치우고 고개를 든 알렉산드라의 시선, 그리고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하는 브레사크의 시선.

사라진 천만 프랑.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브레사크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선포해졌다. 그는 입술을 떨며 몇 마디를 중얼거렸다. 마치 그 비난의 뜻을 큰 소리로 꺼내어 자신을 변호하고, 동시에 알렉산드라도 옹호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빅토르의 눈빛은 브레사크를 향해 단호했다. 그는 그 남자의 영향력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결국 침묵을 지켰다.

비난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했다. 이해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천만 프랑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자신만 그 돈을 찾았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빅토르는 단 한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기 때문이다.

빅토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세리포스 씨의 말씀이 의아합니다. 저는 앙투안 브레사크를 따라왔고, 친구가 된 그에게 계속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브레사크에게는 도망친 동조자 세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생김새를 잘 알고 있지요. 아마 그들이 먼저 돈을, 혹은 세리포스 씨가 말하는 그 앨범을 가져갔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벽 세 시 삼십 분, 모든 일은 끝이 났다. 조사는 미루기로 했다. 고티에 씨는 앙투안 브레사크와 그의 애인을 즉시 심문하기 위해 형사국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뇌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방은 잠겼고, 두 명의 형사와 경비원, 그리고 그리스인 세리포스가 호텔 안에 남아 지키게 되었다.

고티에 경감과 두 형사는 브레사크를 상테 형무소 소속 자동차 중 한 대에 태웠다. 빅토르는 라르모나와 다른 한 명의 요원과 함께 젊은 여자를 맡았다.

마요 대로 위로 출발할 때쯤, 동쪽 하늘이 희게 물들기 시작했다. 공기가 날카로울 정도로 차가웠다.

그들은 보두아를 가로질러 앙리 마르틴 대로로 빠져나갔고, 다시 강변 도로로 이어졌다. 앞서 간 첫 번째 자동차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알렉산드라는 자동차 구석에 웅크린 채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보이지 않았다. 열린 창문 옆에 앉은 그녀는 추위에 떨었다. 빅토르는 유리를 올렸다가, 상테 형무소에 가까워지자 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우고 명했다. 그리고 라르모나에게 말했다.

“얼어 죽겠네.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때?”

“음, 그래요.”

“가서 커피 한 그릇씩 가져와라. 나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다.”

할레 시장으로 향하는 채소 운반차들이 와인 가게 앞에 멈춰 서 있었다. 가게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라르마나가 재빨리 차에서 내려갔다. 이어 빅터도 다른 형사에게 지시를 내렸다.

“라르마나에게 크루아상도 같이 가져오라고 해. 서두르라고!”

그는 운전석과 격리된 유리창을 밀어 열고 팔을 뻗었다. 운전사가 고개를 돌리자마자, 턱 밑을 향해 무서운 주먹질을 날렸다. 운전사는 그대로 기절했다.

빅터는 인도 반대편 문을 열고, 다시 앞문으로 차에 올라탔다. 기절한 운전사를 잡아 밖으로 끌어낸 뒤, 보도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다.

광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차를 몰아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차는 리볼 거리와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 네이유로 향하는 도로를 다시 타고, 브레스크의 작은 저택이 있는 루르 대로 끝까지 달렸다.

“열쇠 있죠?”

“네.” 알렉산드라는 매우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곳에서 이틀 동안은 아무 걱정 없이 지내셔도 됩니다. 그 뒤로는 아무 친구 집이나 피신하세요. 나중에 외국으로 건너가시면 됩니다. 잘 가요.”

이때 이미 치안국장은 빅토르의 놀랄 만한 행각과 포로와 함께 도망친 사실을 미리 통보받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집으로 향했다. 노령의 하인은 아침에 주인과 함께 몇 개의 가방을 들고 이미 떠난 뒤였다. 물론 그들도 치안국의 차를 이용했을 것이다.

그 차는 빈센 숲 한가운데서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

저녁 신문들은 그 사건을 온전히 보도했지만, 그럴듯한 추측은 단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문제가 풀린 것은 다음 날이었다. 아르센 뤼팽의 유명한 서한이 하瓦斯 통신사를 통해 전 세계에 전달되었고, 그것은 기쁨과 스캔들의 폭발을 불러일으켰다.

그 서한의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대중에게 알린다. 풍기단속반 빅토르의 역할이 끝났다고. 최근, 특히 방위채권 사건과 관련해 이 역할은 주로 아르센 뤼팽을 쫓는데 있었다. 아니면, 정확히 말해, 정의와 대중이 더 이상 무지 속에 머

물지 않도록, 아르센 뤼팽이라는 존귀한 이름과 빛나는 정체성을 사칭한 앙투안 브레사크라는 인물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풍기단속반 빅토르는 그런 수법에 대한 분노를 담아 치열하게 그 일에 임했다.

“오늘날, 빅토르 덕분에 가짜 뤼팽은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풍기단속반 빅토르는 임무를 완수하고 사라진다.”

하지만 그는 경찰로서의 완벽한 정직함이 조금이라도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양심의 가책을 극단까지 밀어붙인 그에게, 그 일은 존경할 만한 일이다.

그는 국가방위채권 9매를 자기 손에 남겨두지 않았다. 대신 그 돈을 내게 맡기며, 이를 경찰청으로 보내라고 명했다.

그 천만 프랑 발견의 비결은, 그 남자의 모든 재주와 기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세한 부분까지 알려줘야 할 만큼 중요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이상하게도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냈으니까.

마시포 씨의 파일 중에는 앙투안 브레사크의 수사를 이끈 한 가지 단서가 적혀 있었다. ‘A.L.B. 파일’이라는 표기였다. 브레사크는 이를 ‘알바니아 관련 파일’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브레사크는 며칠 전 밤, 마요 대로에 있는 호텔 2층 방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유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소리 내어 목록을 읽었다. 그중에는 ‘사진 앨범… 우표 앨범’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짧은 몇 마디가 빅토르의 날카로운 머리를 번뜩 빛나게 했다. 그는 모던 브리데의 요원이었다.

“네, 바로 그거요.”

빅토르는 즉각 안토인 브레삭의 해석이 틀렸음을 직감했다. ‘A. L. B.’라는 세 글자는 알바니아(Albanie)의 약자가 아니라, 단연코 ‘앨범(album)’이라는 단어의 앞 세 글자일 수밖에 없었다.

세리포스 씨 재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천만 프랑은 알바니아 관련 서류철에 들어 있지 않았다. 그저 한 아이의 우표 앨범 속에, 시장 가치가 천만 프랑에 달하는 희귀 우표 수집품이라는 형태로 숨어 있을 뿐이었다.

신기하지 않은가? 신비로운 심층을 한눈에 꿰뚫어 보는 직관이라니.

혼란스러운 싸움통과 오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빅토르는 단 한 번의 손짓을 했다. 그 순간, 우표 앨범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이 행동이 빅토르에게, 즉 풍기단속반 빅토르에게 천만 프랑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았을까? 내 생각엔 그렇다. 아니, 빅토르의 생각엔 그렇다. 그의 양심은 섬세함과 감성적인 정취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방위채권과 함께 우표 앨범을 내게 건네며, 자신의 손을 직업적인 오점으로부터 깨끗이 지켰다.

“저는 우편으로, 아니, 신성한 의무로서, ‘국방채권’을 사법경찰국장 고티에 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편에는 빅토르 형사의 모든 감사를 전합니다.

천만 프랑에 관해서는, 세리포스 씨가 막대한 부를 가진 인물이고, 그 돈이 쓸모없는 우표 수집이라는 형태로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었으니, 저는 그 돈을 마지막 1센트까지 제 손으로 사회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엄격한 정직함 아래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마지막 1센트까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빅토르, 풍기단속반 형사가 그토록 거침없이 싸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한 여인을 향한 기사도적인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영화관에서 처음 그녀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기꾼 앙투안 브레사크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브레사크는 눈앞에서 아르센 뤼팽이라는 이름을 빌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훌륭한 부인으로서의 삶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정직함과 품위를 지닌 여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석방했습니다.

그녀가 이제 침묵의 안식처에서 지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풍기단속반 빅토르와 페루인 마르코스 아비스토의 작별 인사와 함께, 깊은 존경심을 담아 이 말을 건넵니다.

편지가 쓰인 날 다음날, 사법경찰청장은 등기우편으로 ‘국방채권’ 9매를 받았다. 그 옆에는 에리즈 마송이 드 오토르 남작에게 살해당했다는 사건에 대한 경찰용 간략한 설명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다.

아르센 뤼팽이 본인을 통해 다시 유통하기로 약속했던 천만 프랑은 그 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두 시쯤, 알렉산드라 바실리에프 공주는 자신을 피신시켜 준 친구의 아파트를 나섰다. 그는 텔르리 공원을 한참 거닐다가 리볼 거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녀는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늘 그랬듯 기묘하고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도, 몸을 숨기지도 않았다. 무얼 두려워할 것이 있었겠는가. 그녀를 의심할 만한 이 중 그 누구도 그녀를 알지 못했다. 영국인 비미시도, 안투안 브레사크도 그녀를 고발하지 않았다.

세 시가 되자 그녀는 생자크 작은 공원에 들어섰다.

오래된 탑 그늘 아래, 벤치 한 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정말 그가 맞는 걸까? 그는 페루인 마르코스 아비스토와 너무 달랐다. 모던 브리데의 빅토르와도 사뭇 달랐다. 마르코스 아비스토보다 훨씬 젊고 우아했다. 형사 빅토르보다 훨씬 날카롭고 유연하며 품격 있었다. 그런 청춘과, 사랑스러운 매력이 풍기는 자태

는 그녀를 그 무엇보다도 흔들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앞으로 다가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속지 않았다. 확실했다. 바로 그였다. 비록 다른 남자처럼 보였지만, 틀림없이 그였다. 그녀는 말 없이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 가까이 앉아 침묵을 지켰다. 끝없는 감정이 그들을 묶어주기도, 동시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들은 그 마법을 깨뜨릴까 봐 두려웠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네, 맞습니다. 그 영화에서 처음 뵈던 순간, 그 모습이 제 행동을 결정지었죠. 이 모든 일을 쫓아다닌 것도, 바로 그 사랑스러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가까이 하기 위해 연기해야 했던 두 가지 역할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추악한 연극이었어요.

게다가 그 남자는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저는 그를 증오했습니다. 동시에 그 남자가 제 이름으로 속였던 그 여자에 대해 궁금함과 연민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짜증과 섞인 감정이었지만, 실상은 제가 드릴 자격이 없었던, 무겁고 열정적인 사랑, 즉 진정한 사랑이었죠.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대답을 기다린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대답 자체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말을 대변하며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고, 이어 그녀의 말을 대신했다. 그녀는 그 달콤한 말들이 자신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으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당신이 저에게 가장 깊게 다가왔던 것, 당신의 내면을 조금이나마 보여준 것은 본능적인 신뢰였습니다. 저는 그 신뢰를 흠쳤고, 그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당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숨겨진 이유로 저에게로 흘러들어 왔습니다. 그 이유를 당신은 알지 못했죠. 무엇보다도 그것은 당신의 본질에 깔린 ‘보호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 즉 그 남자에게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때로 필수적인 그 위협에 대한 감각은, 그 남자 앞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불안으로 변질되었죠. 하지만 저 앞에서는, 첫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것이 진정되었습니다.

자, 그날 밤, 당신이 가장 공포에 떨던 순간에도 당신은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형사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자마자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진짜 빅토르 형사가 누구인지 간파한 순간, 당신은 감옥에 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두려움 없이 경찰을 기다렸고, 거의 미소 띤 채로 검찰청의 자동차에 올랐습니다. 당신의 공포 속에는 기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저와 같은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맞죠? 갑자기 깨어난 듯 보였지만, 이미 그 힘의 전부를 느끼고 있었던 그 감

정 말입니다. 맞죠? 제가 잘못 기억한 것은 아니죠?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속 진실 아닙니까?”

그녀는 항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시인하기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어떤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행복했다.

알렉산드라는 자신의 균형을 되찾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마도 그녀는 인생을 완전히 정상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그녀는 자신의 동료인 뤼팽의 불규칙한 삶에 영향을 미치려 애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동료는 불규칙함 속에서도 너무나 다정했고, 탈선할 때마다 너무나 재미있었으며, 비난받을 만한 일에서도 너무나 충실했고, 터무니없는 약속조차 너무나 신실하게 지켰다!

그는 브레사크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 했다. 그는 “도주”했다고 말하며, 여덟 달 만에 석방되었다. 그때 브레사크는 르 섬의 형무소에서 감옥으로 이감되었다. 또한 그는 브레사크의 약속에 따라 영국인 비미시를 구출하려 했다.

어느 날, 그는 가르슈로 향했다.

시청을 나서던 신혼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다정하게 안고 있었다. 이혼으로 자유로워진 구스타브 제롬과, 위로를 받으며 연인에게로 돌아온 가브리엘 드 오토레이 남작부인이었다. 그녀는 사랑에 설레는 약혼녀로서, 아끼는 구스타브의 팔에 부드럽게 매달려 있었다.

그들이 호화스러운 차에 오르려던 순간, 매우 우아한 한 신사가 다가왔다. 그는 신부 앞에 절을 하고, 하얀 꽃다발을 하나 건넸다.

“아마르담 여사, 제 얼굴이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바로 저, 빅토르입니다. 기억나실 테죠…… 모던 브리데, 다시 말해 아르센 뤼팽이요. 여사의 행복을 위해 일한 장본인으로서, 귀스타브 제로메가 여사에게 남긴 매혹적인 인상을 미리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존경과 진심 어린 축복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날 밤, 매우 세련된 신사는 알렉산드라 공주에게 말했다.